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3 Vol.231



국립창극단 '청(淸)'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 부산문화회관

## 2011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

### :: 대상 :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 :: 대관내용

- 대 관 기 간 : 2011. 7. 1. ~ 2011. 12. 31.
-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 Ⓞ 접수 상담 시 안내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 Ⓞ 접수 상담 시 안내
- 접 수 기 간 : 2011. 3. 21(월)~4. 1(금) Ⓞ 2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 대중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제외

###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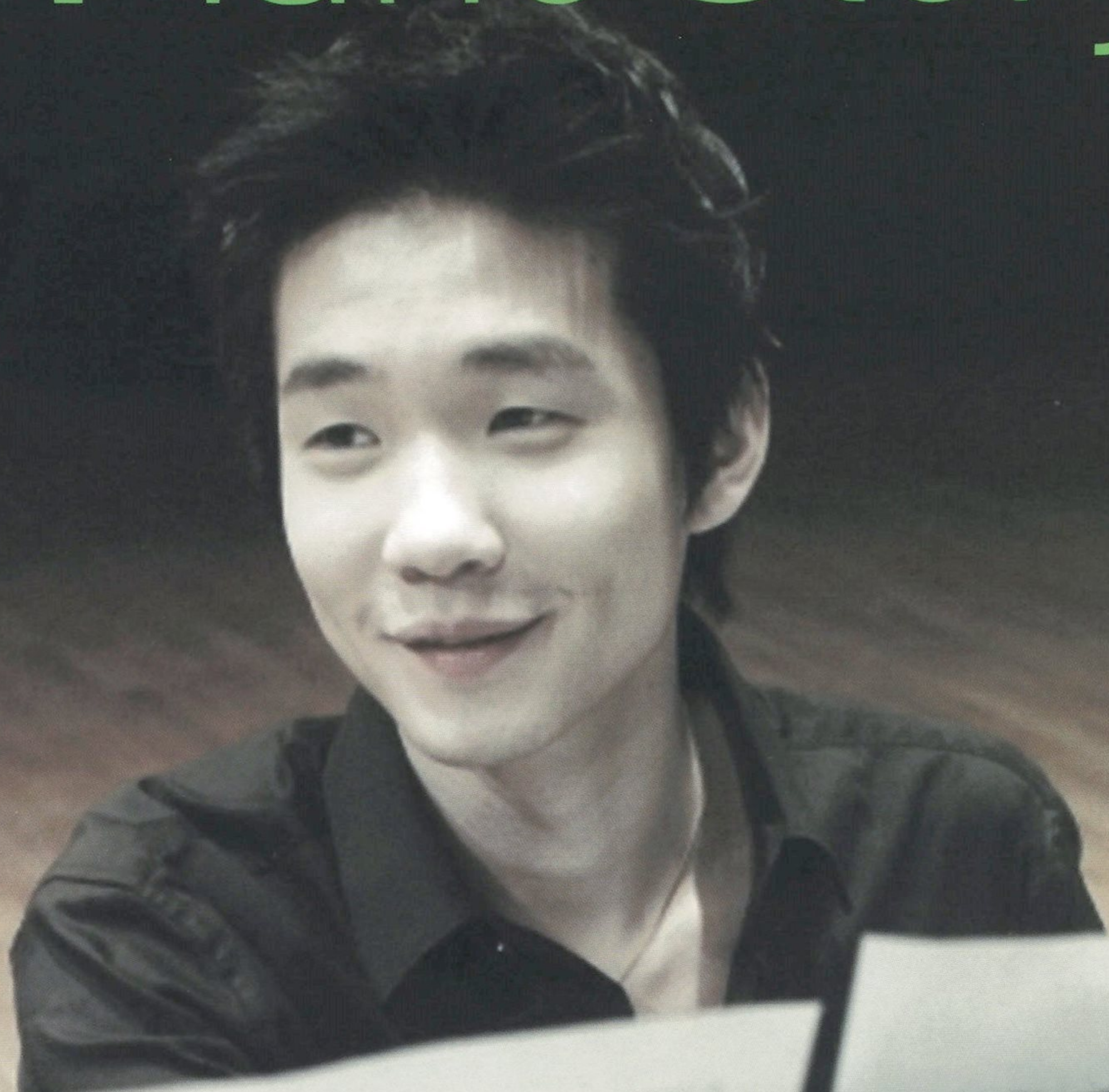
(☎ 607-6051~6)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 임동혁 Piano Story




일시 **2011. 3. 12(토) 17:00**

장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40,000 / S석 30,000 / A석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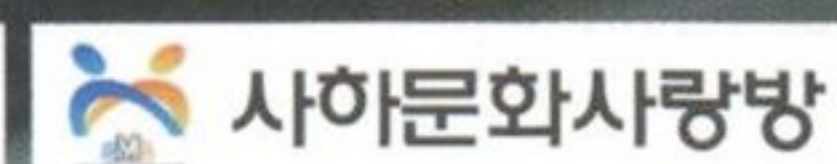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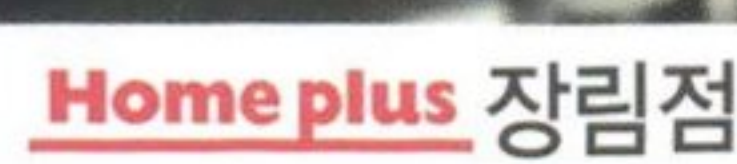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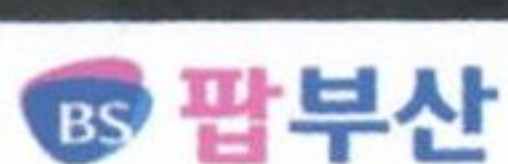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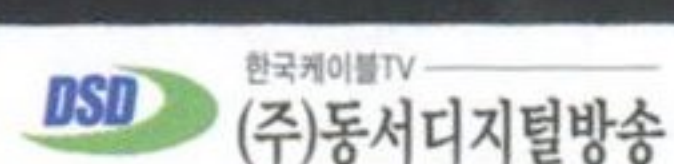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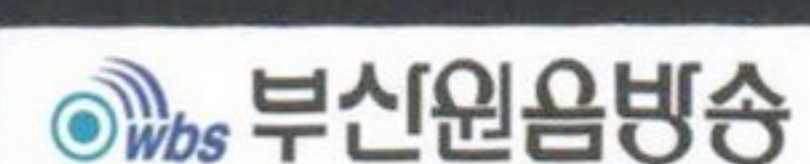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前衛**  
Jeon We Performing Arts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팜부산/부산은행전지점**

문의 **220-5812~13**

후원







### PROGRAM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작품96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Op.96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23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Op.23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작품47  
SHOSTAKOVICH Symphony No.5 Op.47

지휘 \_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

연주 \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협연 \_ 유영욱 (피아노, 연세대학교 교수)

# 제29회 정기연주회 29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사단법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기념음악회

## 2011. 3. 29(화)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티켓 부산 [www.popbusan.com](http://www.popbusan.com) 부산은행 전지점 예매 VIP석 30,000원 / R석 20,000원 / A석 10,000원 (전석 학생 50%할인)

문의 051) 405-4577 [www.bso21.com](http://www.bso21.com)

####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차기공연안내

공연명	일시	장소	지휘	협연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축제 2011 신춘음악회	2011년 3월 6일(일) pm7:00	KBS울산홀	오충근(수석지휘자)	박미혜(소프라노, 서울대 교수), 김동규(바리톤, 강남대 교수) 오정혜(국악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남순과 가야금연주단
교향곡시리즈3 제30회 정기연주회	2011년 4월 26일(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박성원(경북도향상임지휘자)	김동욱(바이올린, 부산시향 악장)
KNN 창사6주년기념 경남 3개 도시 순회연주회	2011년 5월 25일(수) pm7:30 2011년 5월 28일(토) pm7:30 2011년 5월 31일(화) pm7:30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오충근(수석지휘자)	김동규(바리톤, 강남대 교수), 강혜정(소프라노, 계명대 교수), 장사익(가객) 등
교향곡시리즈4 제31회 정기연주회	2011년 6월 7일(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윤일(목포시향상임지휘자)	한효림(바이올린, 커티스음악원 졸업)

#### 오디션 일정

- 원서접수 : 2011년 2월 28일(월) 오전10시 ~ 3월 11일(금) 오후5시
- 면접일시 : 2011년 3월 12일(토) 오후 3시
- 면접장소 : 영도문화예술회관 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습실

#### 모집인원

- 정 단 원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시립교향악단 등 우수 관현악단 단원은 겸임 가능
- 연구단원 : 대학교 재학생

#### 모집악기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악간 명
- 관악기 : 오보에, 바순, 호른 각 1명 • 타악기 : 2명
- \* 자세한 사항은 BSO 홈페이지 [www.bso21.com](http://www.bso21.com)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51)405-4577)





## C/O/N/T/E/N/T/S

- |  |   |
|--|---|
| <p><b>08 커버스토리</b><br/>국가브랜드공연 국립창극단 '청'</p> <p><b>10 프리뷰</b></p> <p><b>16 반갑습니다</b><br/>부산문화재단 신임대표이사 남송우</p> <p><b>18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⑤</b><br/>겨울 속에서 봄이 일어서는 날   정일근</p> <p><b>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b><br/>건축의 도시 시카고의 상징, 시카고 문화회관   조향숙</p> <p><b>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⑤</b><br/>더 콘서트   이동신</p> <p><b>26 불멸의 거장, 리스트 ①</b><br/>천재적인 꽃미남 피아니스트 리스트   황윤하</p> <p><b>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①</b><br/>조선시대 최고 화가 김홍도   변광석</p> | <p><b>30 그곳에 가면</b><br/>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부산예술회관</p> <p><b>32 우리는 문화가족</b><br/>박물관을 찾는 사람들</p> <p><b>34 공연 화제</b><br/>싱싱한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2011 부산연극제</p> <p><b>36 리뷰</b><br/>팝페라 듀엣 휴[HUE:]의<br/>어쿠스틱 콘서트   박진홍<br/>알렉산더 젤딘 연출의 맥베스   김문홍</p> <p><b>38 프로그램 가이드</b></p> <p><b>53 나의 애청음반</b><br/>共鳴 '통해야'   김희성</p> <p><b>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b></p> <p><b>56 부산문화회관 소식</b></p> |
|--|---|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3월호 통권 231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2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 03

## March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1

소 | 강경희 첼로 클래스 연주회 17:00  
강경희(010-3800-2628)

6

7

8

대 | U.K.O 제 21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자(011-589-3111)

중 | 2011 장정윤 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  
19:30 균일 1만원  
장정윤(200-7890, 011-9320-7822)

소 | 부산통기타리스트 통기타 연주회 15:00  
무료/정광석(010-9919-3160)

13

14

15

중 | 서성은 귀국 첼로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20

21

22

대 | 장 베르나르 포미에 피아노 독주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중 | 슈투트가르트 까메라따 유로피아나  
내한연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한국무지카(02-2272-6516, 010-6388-7185)

중 | 소프라노 김삼희 귀국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김삼희(011-863-505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6:0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27

28

29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16:00  
3만원 · 2만 5천원 · 2만원 · 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8:0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WED  
2

THU  
3

FRI  
4

SAT  
5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국립창극단 '청' 16:0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II '추가열'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9

10

11

12

중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지휘자, 2인 2색'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6

17

18

19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7회 정기연주회  
'거장 장-베르나르 포미에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대 |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이승아(010-6432-0821)

중 | 2011 제 11회 부산신춘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16:00,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23

24

25

26

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6회 정기  
연주회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교류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봄의 갈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대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19:00  
3만원 · 2만 5천원 · 2만원 · 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16:00, 19:00  
3만원 · 2만 5천원 · 2만원 · 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8:0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30

31

4/1

4/2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강민성 콘서트' 19:30  
균일 3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9:30  
균일 1만 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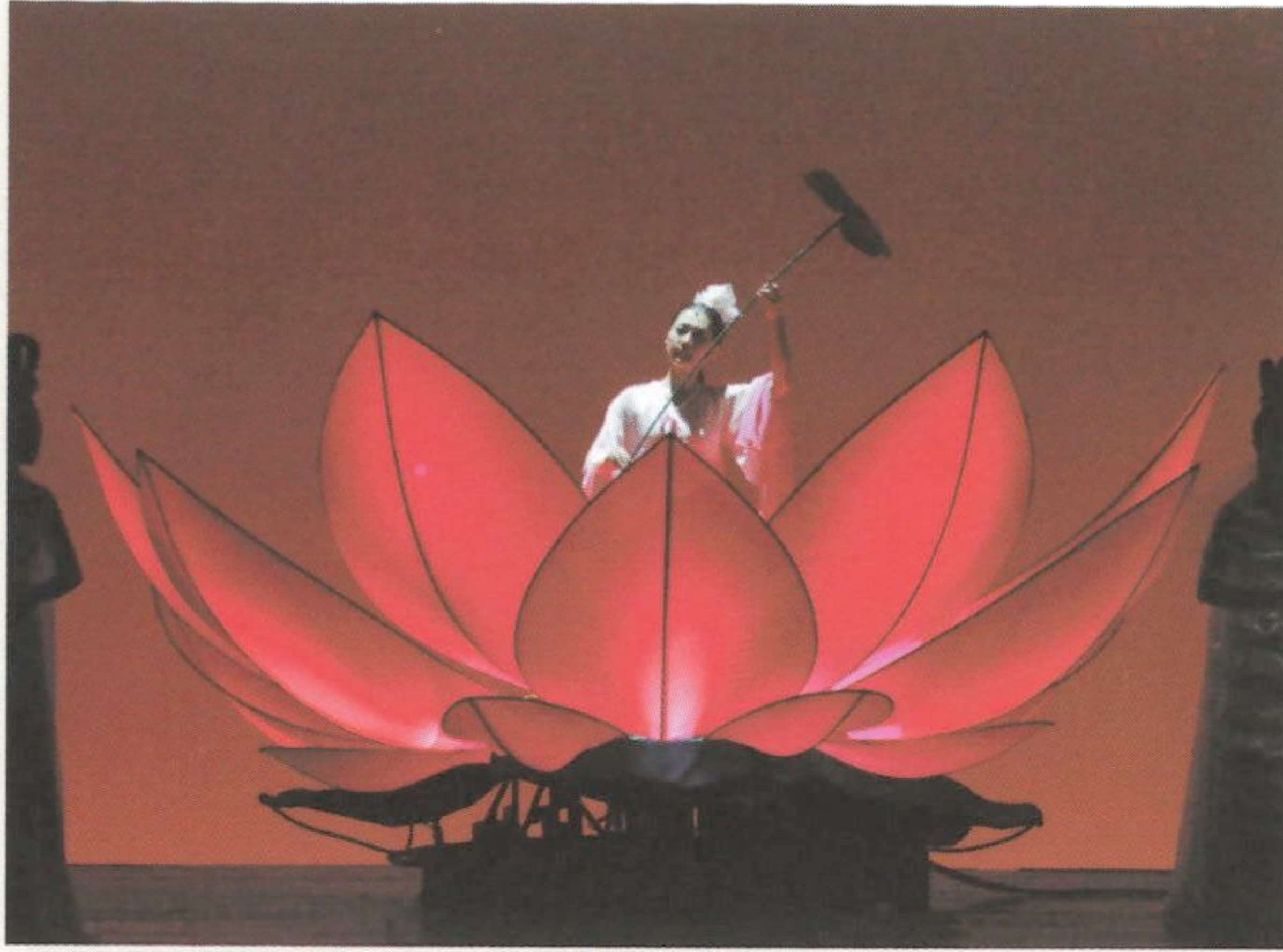
## 국가브랜드 공연 국립창극단 ‘청(淸)’

효녀 심청, 황후 심청, 그리고 ‘청’  
풍부한 선율의 국악오케스트라, 비장미 넘치는 스펙터클한 무대

한국 음악극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국가브랜드 공연 ‘청(淸)’이 3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2006년 9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국립창극단에 의해 초연된 ‘청(淸)’은 지금까지 관객 7만 여명을 불러 모으며 국악 창극 관객중 최대 관객을 기록, 화제를 모았다. 판소리 ‘심청가’를 바탕으로 제작된 ‘청(淸)’은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국립창극단 최고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 국립창극단 기악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하모니와 국립무용단의 화려한 춤이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음악극이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전이 가진 탄탄한 구성과 문학적 가치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 창극이나 특별기획공연, 정기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버전의 ‘심청전’을 무대에 올려왔다. ‘청(淸)’을 통해 기존 심청전에서 볼 수 있었던 한(恨)과 해학(諧謔), 효의 중요성을 알려온 국립창극단은 G20 정상회의에서 ‘청(淸)’을 공연, 스펙터클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 제작된 '청(淸)'은 2006년 초연 무대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높다. 국립창극단 이용탁 음악감독은 특유의 감성으로 국악기와 첼로, 팀파니 등의 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국악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음악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국가대표급 소리꾼의 농익은 소리, 화려한 조명, 직경 14m의 회전무대를 사용한 인당수장면 등은 '청(淸)'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기구한 운명 앞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청'의 비장함이 인당수 깊은 물의 절경과 어우러지고 화려한 조명과 회전무대를 활용한 인당수 장면은 폭풍우 속에서 거친 항해를 하듯 극장 전체를 압도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국립창극단 우수정의 도창을 통해 창극의 감정곡선을 보다 풍부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우리 전통판소리의 구성 중 난이도가 높은 대목들을 도창이 들려주기 때문에 창극을 보는 재미와 더불어 도창이 꾸러가는 심청가의 완창판 소리를 듣는 재미도 관객들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상여소리', '뱃노래', '방아타령', '화초타령' 등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을 독창과 합창으로 만날 수 있다.

'청(淸)'의 주인공 '심청'으로는 2000년 베세토연극제 한중일 '춘향전'에서 한국대표 춘향으로 나서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국립창극단의 차세대 주자 김지숙이 열연한다. 창작 창극 <제비>에서 안숙선 명창과 함께 주인공 '제비' 역을 맡아 눈길을 모은 바 있는 김지숙은 초연부터 무대에 서온 1대 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심봉사로는 조소녀, 안숙선을 사사하고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KBS국악대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남상일이 열연한다. 남상일은 국립창극단의 '적벽가', '춘향', '장끼전' 등 주요 배역에 출연한 차세대 주자이다.

#### 관람 포인트

보통 음악극의 대부분이 재미를 강조하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사상을 가벼이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미만을 강조하다 극이 진부하고 지루하여 관객의 흥미를 잃게 하여 서로 균형감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효(孝)를 주제로 하면서도 끈적끈적한 웃음과 가슴 저리는 듯한 슬픔이 잘 어우러져 있는 '청(淸)'은 어떻게 잘라낼 수 없을 만큼 좋은 극적 구성을 갖는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뜻 깊게 짚어봐야 하는 비전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수반하지 않는 효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일까? 라는 반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내용이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관과 시선을 깨뜨리고 뮤지컬보다 더 생동감이 넘치는 무대와 음악으로 진솔한 판소리의 매력과 여린 듯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멋진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연출 김홍승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지휘자, 2인 2색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최정일



이성훈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출신의 젊은 지휘자 2인과 함께 하는 ‘부산의 지휘자, 2인 2색(2人 2色)’ 무대로 2011년 첫 무대를 연다. 부산의 재발견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무대는 순수 정통 합창곡의 무대로, 유럽에서 공부한 지휘자 이성훈과 미국에서 공부한 지휘자 최정일의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음악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2인 2색(2人 2色) 무대에 맞게 최정일 지휘자가 1부를, 이성훈 지휘자가 2부를 맡아 다른 느낌, 다른 빛깔의 합창무대를 선보인다.

1부 지휘를 맡은 최정일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재학중 도미, 미국 템플대학교와 예일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한 학구적인 지휘자이다.

최정일은 르네상스부터 현대곡에 이르는 폭넓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템플여성합창단, Ars Nova 합창단, 샴페인-어바나 커뮤니티 합창단 등을 지휘하였다. 세계적 권위의 합창음악 학자이며 지휘자인 Dr. Chester L. Alwes를 사사한 최정일은 일리노이대학 티칭 어시스턴트와 일리노이대학 주최 보컬 챔버뮤직 심포지엄 강사를 역임하고 2011년 귀국하여 고신대학교와 인제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2부에서 지휘하는 이성훈 지휘자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탈리아 Novara 국립음악원, Academia Europea에서 성악과 합창지휘 수업을 했다. Milano Scala 극장에서 10년 이상을 합창을 담당한 이성훈은 세계적 지휘자들과 함께 작업한 R. Gandolfi를 사사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성훈은 Milano 대성당에서 Milano SS. Martini 합창단을 지휘하여 Martini추기경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귀국 후 한국에 잘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품, 정통 교회음악의 여러 작품을 초연한 이성훈은 국립합창단 부지휘자와 부산대학교에서 합창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바로크 합창곡을 중심으로 정통 합창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Le Voyage Vocale Ensemble)과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1부는 정통 합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정통 다성음악의 텍스트인 성경을 가사로 하는 ‘세 개의 시편’을 시작으로 C. 스탠포드의 ‘파랑새’와 현대음악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E. 휘태커의 ‘그대 손에 백합을’,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민요를 들려주는 ‘세 곡의 민요’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R. V. 윌리엄스의 이중합창과 솔리스트를 위한 ‘Mass in g minor(사단조 미사)’, 스페인, 한국,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세계의 모든 기도’ 음악을 선사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3월 14일~20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4:00, 7:30 / 일요일 오후 4:00



최진아 극단 놀땅 대표, 작·연출가

2004년 <연애얘기아님> 작/연출  
2005년 <다녀왔습니다> 연출  
2006년 <사랑, 지고지순하다> 작/연출  
<그녀를 축복하다> 작/연출  
2008년 <금녀와 정확> 작/연출  
<예기치 않은> 작/연출  
**수상**  
2006년 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2007년 기대되는 연극인  
2010 대산문학상 희곡상  
2010 한국연극지 올해의 연극 베스트 7  
2010 동아연극상 작품상

부산시립극단이 2010 대산문학상 희곡 부문을 수상한 '1동 28번지, 차숙이네'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최진아의 객원 연출로 2011년 첫 무대를 연다.

1동 28번지, 차숙이네의 주인공은 '집'이다. '우리에게 집은 무엇일까?' 삶의 필수공간이자 도구인 <집>을 바라보며, 집을 짓는 과정에 숨은 인류 지혜의 역사와 그 공간에서 삶을 지속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작가는 60대 아줌마 '차숙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집터를 잡고 나무 틀로 벽을 쌓는 등 집 짓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집에 얽힌 사람들의 사연과 함께 집의 구조와 재료,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해결 방법들을 통해 집에 대한 진화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너무나 친숙하여 무심히 보았던 집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와 시선을 주는 것.

공연제목 '1동 28번지, 차숙이네'는 '집' 주소다. 무대에서는 지방의 어느 시골 삼남매의 엄마 차숙이네가 재개발로 옛날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짓기 시작한다. 집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차숙이의 큰아들이 기초가 비뚤어진 것을 발견한다. 공사는 중단되고 집의 기초를 바로 잡으려는 와중에 차숙이네 삼남매는 옛날집이 택지가 아닌 농지 위에 불법으로 지어졌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군청 몰래 집을 늘려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제 다시 새집을 반듯하게 고쳐 지으려는데 셋째 딸이 이의를 제기한다. 새 집을 비뚤게 짓자는 것이다. 집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다른 삼남매와 어머니 차숙이는 회의를 하고, 집은 매 단계마다 난국을 만나게 된다.

차숙이는 정행심이, 큰아들은 황창기, 둘째 아들 희섭은 유성주, 딸 시은은 김은옥이 열연하고 이혁우, 이돈희가 집을 짓는 대장과 반장으로 열연한다. 이집, 저 집, 그 집, 건너 편 집, 골목길 집 등 외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엔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다. '1동 28번지, 차숙이네'에서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입장권 |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7회 정기연주회

# 거장 '장-베르나르 포미에' 초청연주회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3월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파리 음악원에서 이브 나트와 피에르 상캉에게 피아노를, 유진 비고에게 지휘를 사사한 포미에는 베를린 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에 이어 17세 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준우승으로 일찍부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포미에는 피아니스트로 카라얀, 다니엘 바렌보임, 쿠르트 마주어, 주벤 메타, 리카르도 무티, 사이먼 래틀과 같은 세계적 명성의 수많은 지휘자들과 함께 런던, 비엔나, 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암스테르담, 파리, 모스크바, 시카고, 뉴욕 등지에서 연주하였다. 지휘자로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로열 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투린), 바르샤바 필하모닉, 부다페스트 심포니,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유럽 챔버 오케

스트라, 영국 노던 심포니, 심포니 바르소비아, 이스라엘 챔버 오케스트라,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영국 챔버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에서는 피아노 협연과 동시에 지휘를 맡기도 했다. 노던 심포니 예술감독, 망통 페스티벌 예술감독, 토리노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를 지낸 바 있는 포미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과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고, 현재는 영국 더럼의 뮤직 아카데미 감독과 세인트 차드 대학 객원연구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미에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프랑스 특유의 화려하고 우아한 선율이 돋보이는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과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사모를 담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피아노는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직접 협연, 거장적 해석과 원숙미 넘치는 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상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은 생상이 남긴 다섯 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이 곡은 1868년 5월 13일, 파리에서 생상 자신의 피아노 연주와 루빈스타인의 지휘로 초연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이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제 2번에 견줄 수 있는 작품이 더 이상 탄생하지 않아, 결국 생상의 대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1악장은 피아노 독주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2악장은 현란한 스케르초 풍, 3악장은 박력에 찬 매우 빠른 악장으로서, 급변하는 선율이 특징이다.

2부 무대를 장식하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은 1888년 11월 17일 차이코프스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당시 곡 전체에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운명'의 주제에 의한 순환형식을 취하고 있고 교향곡의 악장에 왈츠를 등장시킨 것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2011 신춘음악회 - 봄의 갈라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봄을 여는 '봄의 갈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노래 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을 비롯 국내 유명 성악가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부분을 발췌, 싱그러운 봄의 환희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나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소프라노 박정원, 이윤경, 테너 조윤환, 바리톤 강경원, 박종준, 조성빈, 베이스 함석헌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세계최대 콜롬비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활동한 박정원은 마담 버터플라이 콩쿠르, 엔리코 카루소 콩쿠르, 볼티모어 오페라 콩쿠르(푸치니 상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없는 2위에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이윤경은 쿠바정부 초청 하바나 시립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 협연 및 다수 음악회에 출연했다.

테너 조윤환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독일 라이프치히국립음악원 마이스터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한 바리톤 강경원은 안토닌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스톨츠 국제콩쿠르에 입상하고 오페라 라보엠, 팔리아치, 라트라비아타, 엘리아 등 오페라, 오라토리오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2010년 제야음악회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베이스 함석헌은 이탈리아 메라노 국제성악콩쿠르와 스페인 자코모아라갈 국제성악 콩쿠르, 독일 쾰른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독일 바덴바덴필하모닉, 쾰른필하모닉, 뮌헨필하모닉과 KBS

교향악단, 울산시향 등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태국 콩쿠르에서 1위한 바리톤 박종준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아지무스 오페라단 전속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바리톤 조성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예술의전당 오페라 축제 '돈 파스칼레' 주연으로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봄의 갈라 첫무대는 슈트라우스 2세 '집시남작' 서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슈트라우스 2세의 또다른 명곡 '박쥐' 중 '여보세요, 후작님(아델레의 웃는 노래)'을 소프라노 박정원이, 바리톤 강경원이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중 '나의 갈망, 나의 망상, 테너 조윤환이 레하르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열창한다. 베이스 함석헌은 슈트라우스 2세 '집시남작' 중 '난 읽지도 쓰지도 못해요', 소프라노 이윤경은 '박쥐' 중 '내가 만약 시골처녀를 연기한다면'으로 봄의 환희를 선사한다.

2부 무대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정원(무제타), 이윤경(미미), 테너 조윤환(루돌프), 바리톤 강경원(마르첼로), 박종준(콜리네), 조성빈(쇼나르)이 모두 무대에 올라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가장 화려하고 경쾌한 선율이 돋보이는 2막을 발췌해 들려준다. 무제타의 왈츠 후, 미미와 쇼나르, 콜리네 등의 배역으로 열연하며 6중창으로 오페라 '라보엠'의 감동을 전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6회 정기연주회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교류음악회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월 2일 첫 절기공연 '설맞이 국악한마당' 으로 2011년 활동을 시작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 지역간 교류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연다.

우리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마련하는 이번 합동교류음악회는 두 악단이 100여명의 연주단을 구성, 지역 정서가 담긴 창작음악들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강원도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창작곡들을 엄선,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신영균이,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한다.

2007년 9월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에 이어 오랜 만에 부산 무대를 찾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한국전통음악의 발전과 강원예술문화 창달을 위해 창단되었다. 현재 신영균 상임지휘자와 함께 연간 60여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창조적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균 지휘자는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청주시립국악단 악장,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부터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신영균 지휘자는 1부에서 강원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인 류형선 작곡 '마침내 바다' 와국악관현악 연주회에서 널리 연주되는 백대웅 곡 '남도아리랑', 이준호 작곡 '아라리' 를 들려준다. '마침내 바다' 는 청정한 강원도 태백산맥 곳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의 수원지가 되었을 강원도 산간지방의 상념과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남도 아리랑' 은 대표적인 남도민요 '밀양아리랑' 과 '진도아리랑' 을 편곡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 철 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신 영 균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한 곡으로 두 민요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같은 선율을 통해 다른 분위기를 표출해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아라리'는 태백산맥의 산간지방에서 생성된 '메나리' 선율의 다른 이름이다. '한오백년' 등 강원민요에 녹아있는 메나리 선율에 반주를 붙여 관현악으로 재구성하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지휘자가 지휘하는 2부에서는 중국 연변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표현한 곡인 백대웅 작곡 '연변목가'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인 이준호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 강봉천 작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단 협주곡 '절영의 전설'을 들려준다.

연변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노래한 연변작곡가 안국민(安國敏, 1931년생)의 곡 '연변목가'를 주제로 삼은 '연변목가'는 소리가 커지도록 개량된 연변양금의 양손을 사용하는 기법들이 국악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곡이다. 굿거리-엇모리-자진모리-6대강-동살풀이(휘모리) 등 여러 장단들이 목가적인 '음악의 공간감'과 함께 곡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1997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인 이준호 곡 '축제'는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수많은 축제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이번 작품은 어느 놀이의 형식을 갖추었다기 보다 그 분위기를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2005년 위촉곡인 강봉천 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조조의 애마 '절영'의 힘찬 소리를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에 얹어 무겁게 사는 세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세희가 25현 가야금을 협연, 아름다운 절영의 전설을 들려준다. 협연자 정세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김해가락문화제 일반부 기악부 최우수상, 부산국악대제전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3월 24일 부산연주회에 이어 4월 7일 춘천에서 합동연주회를 갖는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 장기적인 부산의 문화 로드맵 구상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남 송 우



“올해로 부산문화재단이 출범 3년째를 맞습니다. 문화는 미래를 가꾸는 일인 만큼 시간과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여 주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부산문화재단 제 2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남송우 신임 대표이사(부경대학교 교수, 휴직). 부산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부산문화재단 이사로 부산문화재단과 호흡을 같이 해왔던 남송우 대표이사는 부산문화재단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책임자로 재단 공개모집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에 추대되었다. 때문에 새로 출범한 남송우 대표이사 체제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

3년 임기 내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부산문화재단의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담은 부산문



화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남송우 대표이사는 취임식과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문화재단의 재정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는 2018년까지 재단 기금 5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부족한 액수입니다. 적어도 1천억원대 기금을 확보해 재정 자립을 해야 합니다.”

남송우 대표이사는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 메세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후원회를 구성해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현대소설학회 이사, (사)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문학회 회장, (사)요산기념사업회 이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남송우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정신적인 후원, 관심이 언제나 큰 힘이 되었던 만큼 부산문화재단 활동에도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는 생각이다.

취임시 “재단이 먼저 변해야 부산의 문화가 바뀐다”는 점을 강조한 남송우 대표이사는 취임 후 직원들에게 초심의 자세로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재단이 되자고 당부했다. 남송우 대표이사는 문화재단 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취임 다음날 관련 도서를 직접 골라 재단 전 직원들에게 선물하며 재단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매달 직원 워크숍을 열어 자체 역량을 키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재단 초기부터 거론되어왔던 재단의 기획력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을 재편해 그동안의 부족한 활동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대표이사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남송우 대표이사는 지원 제도 심사 제도를 개선해 열심히 하는 재능 있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지원 원칙이 바뀌고 심사위원이 구성에 따라 장르별 지원액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는 남송우 대표이사는 장르의 특성을 간과한 기존 서류 심사제도를 개선해 원칙을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문을 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부산문화재단에서 신진예술가와 아마추어 시민동호회의 교류를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해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거가 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하나의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울경 협의체를 만든다면 지역민을 위한 공동 기획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 분권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생활과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온 남송우 대표이사는 생활과 밀착한 작은 도서관 개설에서부터 지역 책 살리기 운동,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창출, 부울경 문화지도 제작 등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일이 많다. 부산문화재단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은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남송우 대표이사. 시민과 함께 해양문화 도시 부산을 만들어간다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그에게 2011년의 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글\_백경옥, 사진\_부산문화재단 제공)



## 땅의 별, 하늘의 별 그리고 사람의 사랑

글·사진 정일근\_시인, 경남대 교수

진공관 앰프의 전원을 켭니다. 10여 년 전 은현리로 이사 올 때 적적하면 음악이나 들으라고 친구가 선물한 낡고 오래된 앰프지만 진공관에 붉은 불이 들어오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따뜻해져오는 기분입니다.

오늘 듣는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La Primavera)입니다. '봄'을 듣고 있노라면 음악도 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악장의 새소리, 천둥소리, 시냇물소리, 2악장의 개 짖는 소리..., 나는 눈을 감고 귀를 열어 그 시를 읽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날 창문을 열고 마당에 앉아서 듣습니다. 내 혼자만의 음악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발디의 봄을 마당의 작은 풀꽃도 함께 듣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은 두 귀로 음악을 듣고 풀꽃은 온몸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식물이 음악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포도밭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자란 포도가 좋은 와인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당의 풀꽃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술이란 것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많지만, 자연에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위대한 예술의 공동창작자는 자연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창작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발디의 '봄'을 은현리의 3월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관객이 아닌, 나무를 위한 전람회, 풀꽃을 위한 연주회, 시냇물을 위한 시낭송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사람처럼 열광하거나 '브라보!'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시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있었던 '은현리 음악회'를 마치고 마당을 천천히 돌아 봅니다. 분명 비발디의 '봄'에 온몸으로 박수를 보낸 풀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담장 밖에 피기 시작한 '쇠별꽃'을 만났습니다.





아아, 쇠별꽃은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닮아 별꽃입니다. 작고 단단하여 쇠별꽃입니다. 하얀 꽃 이파리를 헤어보니 10장입니다. 땅에서 뜨는 저 별은 대낮에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늘 밤에는 하늘에도 별이 밝게 뜰 것입니다. 땅이 온몸으로 받아드렸으니 하늘도 그 감동에 반짝이는 별을 띄울 것입니다. 이 밤 나는 당신에게 또 긴 편지를 쓰겠지만, 이미 꽃이 피면 지는 것을 알기에, 별이 뜨면 지는 것을 알기에,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만은 할 것입니다.

## 부석사 무량수

정일근

어디 한량없는 목숨 있나요  
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이승에서의 잠시 잠깐도 좋은 거예요  
사라지니 아름다운 거예요  
꽃도 피었다 지니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시사철 피어 있는 꽃이라면  
누가 눈길 한 번 주겠어요  
사람도 사라지니 아름다운 게지요  
무량수無量壽를 산다면  
이 사랑도 지켜온 일이에요  
무량수전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평생이란 눈 깜짝할 사이에 피었다 지는  
꽃이에요. 우리도 무량수전 앞에 피었다 지는  
꽃이에요. 반짝하다 지는 초저녁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게지요  
사라지는 것들의 사랑이니  
사람의 사랑 더욱 아름다운 게지요





건축의 도시 시카고의 상징

# 시카고 문화회관

출판: 조항숙 시카고 국제자매도시위원, 전 시카고 한인미술협회회장

아침 6시반에 떠났으나 한 시간 반을 운전하여 8시가 되어서야 Chicago Cultural Center 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늘, 2월 17일에 Chicago Sister Cities International에서 마련하는 제 3회 ‘International Breakfast’ 행사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으로 지난달 이곳의 Renaissance Gallery 에서 한달 동안 ‘IN & OUT’ 이라는 전시회 타이틀로 나의 개인전을 가졌었기에 건물에 들어서니 낯설지가 않다. 지은지 1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의 건물로 남는 것을 보면 후세를 생각하며 긴 안목을 가지고 문화의 공간을 건설 할 줄 알았던 이들의 모습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오늘 있는 International Breakfast는 시카고시의 시장인 Richard M. Daley 와의 마지막 아침 만찬이다. 시카고에서 그의 아버지, Richard J. Daley를 이어 1989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로 22년간의 시카고시의 시장직을 다 할 것이라고 한다. Daley시장은 2007년 부산시와 시카고시의 자매 결연을 맺어 주었고, 또한 작년 9월 부산 방문시 함께 하였기에 더욱 친근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만 두신다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침만찬은 4층에 있는 Yates Gallery에서 열렸으며 28개국의 자매도시 위원들과 총영사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것을 예약하면서 시카고 시민의 문화 공간인 Chicago Cultural Center를 내고향 부산에 소개 하리라 마음 먹고 카메라를 단단히 챙겼다. 아침 만찬 행사를 끝내고 1층으로 다시 내려 갔다. 매 번 보아 오던 곳이었지만 취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찬찬히 볼 생각이었다.

Chicago Cultural Center는 78 East Washington Street, Chicago, Illinois, 60602가 주소이다. Michigan Avenue, Washington Street, Randolph Street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앞 Michigan 길을 건너 그 유명한 Millennium Park을 마주보고 있다. 언젠가는 부산문화회관의 공연 작품이 Millennium Park의 Pritzker Pavilion 의 야외 공연장에 올려질 날을 꿈 꾸어 보기도 한다. Millennium Park은 \$475 Million 의 공사 비용이 들었으며 2004년에 완공되었다. 시카고 시에서 \$270 Million을 내고 나머지 \$205 Million 은 개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Hyatt Hotel 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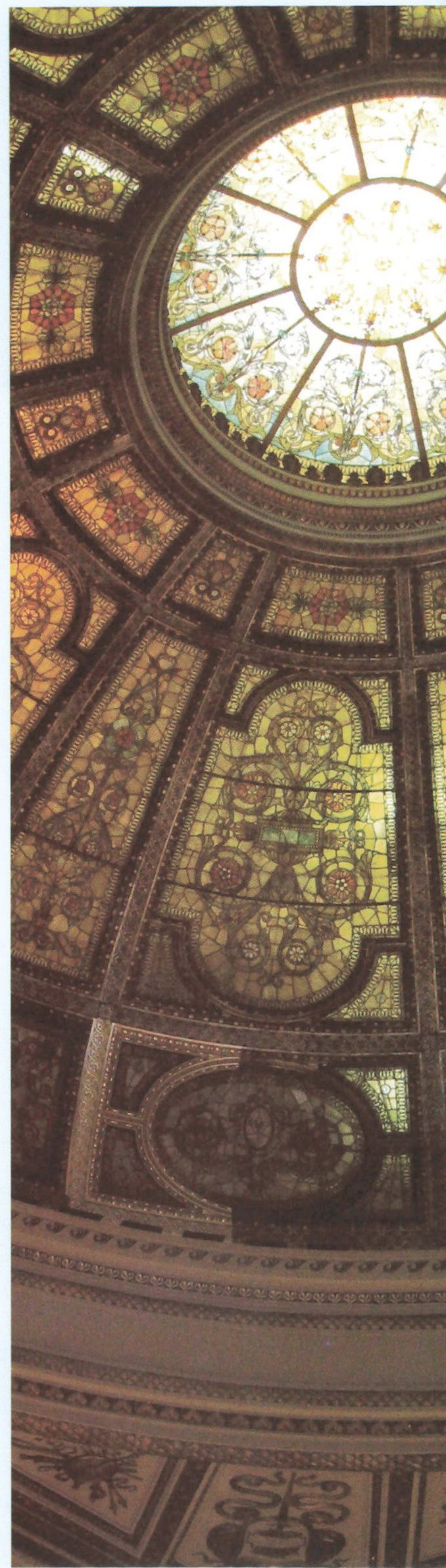
외 몇몇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Pritzker Family가 가장 많이 내고, Mc Donald 회사, Wigley 껌 회사, Harris 은행, Chase 은행, Boeing 비행기 회사, Chicago Tribune 신문사, AT & T 전화회사, BP 개스 회사, Commonwealth Edison 전기 회사 등의 기부로 건설되었다. 9개 기업들에게 기부를 요구 했을 때 어느 기업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문화시설이 풍부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줄 안다. 그래서 국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다.

Millennium Park 공원에는 영국 조각가 Anish Kapoor 의 작품, Cloud Gate, 또는 'The Bean(콩)' 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이 공원과 작품을 감상하려고 한 때 미국인들이 Millennium Park 을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라고 하였다. 이 공원으로 인하여 시카고시는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Chicago Cultural Center에는 크게 두 부서가 있다.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 부서와 Attractions, Events and Exhibition 부서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Business & Professionals, Artists & Entertainers, Cultural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등 4가지를 제공한다. 이 빌딩은 1897년에 Boston Architectural Firm Shepley, Rutan and Coolidge 에 의하여 그 당시 \$2million을 들여 완공한 5층 건물이다. 미국의 Civil War Union Army 참전용사를 추모하기위해 114년전, 1897년에 개관된 이 건물은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고전 건축 양식을 부활하여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으로 지어졌다. 그 당시 미국 최고의 건축가와 장인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원석 대리석, 주형 황동, 앤틱 청동, 고급 나무, 1890년경의 스테인드 글래스 예술의 Tiffany가 고안한 화려한 무지개 빛깔의 퍼브릴 글라스 모자이크, 원석 진주 등의 가장 호화로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 이후 1991년, Chicago Cultural Affairs에 의하여 Chicago Cultural Center로 이름이 바뀌었고 미국 지방단체 중 무료 문화 장소로 매년 100작품 이상의 국내외 미술품 전시회, 음악회, 공연, 문학, 영상, 강연 등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이 빌딩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로 선정되어 있다. 이 곳에 한 번 전시나 공연을 하려면 서류를 접수해 놓고 약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서류 심사도 아주 수준이 높고 까다롭다.

1층, Chicago Cultural Center는 입구가 Washington Avenue와 Randolph Avenue 두 곳에 있다. 나는 먼저 Randolph Avenue 입구에서 부터 살펴 보기로 했다. 정식 입구는 Washington Avenue이다. Randolph Avenue 입구 1층은 그리스 양식을 재현한 곳이다. 로비에 Randolph 카페가 있어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구입 할 수도 있고, 그 곳을 지나면 시민들이 신문, 책을 읽는 공간이 오픈 되어 있다. 다른 느낌이다. 한국에서는 도서관에 젊은 이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도서관에 나이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그 공간을 즐기고 있어 더욱 여유롭게 보인다.

또한 1층에는 Renaissance Court Gallery가 있어 항상 Local Artist의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전을 한 Gallery 이기도 하다. 그리고 Michigan Avenue Gallery도 있



Grand Army of The Republic Rotunda and Memorial Hall





Chicago Sister Cities International- International Breakfast 에서 좌로부터 손예숙 위원, 필자, Daley 시카고 시장, 백남홍 위원장, 박규영 위원

다. Randolph 카페 양쪽으로는 Studio Theater와 Dance Studio가 있다. 그리고 서쪽 방향에 역사적인 건축 사진 수집 작품이 영구적으로 전시된 벽이 있는데 그 이름은 Landmark Chicago이다. 이는 Landmark Chicago Gallery 위원회 제공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시카고가 건축의 도시임을 증명해준다. 내가 들은 말로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시카고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이곳의 건축을 공부한다고 했다.

2층 계단이 보인다. 아니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이라고 해야 한다. 계단도 작품 그 자체이다. Preston Bradley Hall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계단과 벽은 테네시 대리석과 주형으로 조각된 황동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양 벽에는 'Bookmatched' 모티브들이 대리석



Presto Bradley Hall

판에 조각이 되어져 있다. 자세히 보니 초록 대리석에 '생애 1706-1790, Benjamin Franklin, 대출 도서관 창립자' 라고 쓰여 있다. 또 다른 황금빛 대리석에는 '좋은 책이란 귀중한 인생- 중요한 영혼의 피, 인생 저 너머에 있는 흔들리는 보물- 밀톤' 이라고 새겨져 있다.

좀더 자세히 본다. '도서관은 아직도 어둠에 숨겨져 있거나, 저녁이 여명으로 가는 것 같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로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 - 빅토르 휴고' 아! 어떻게 이런 명언의 글귀를 후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벽에 새겨 놓았나! 고대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글도 보인다. Circulating Library The real use of all knowledge is this that we should dedicate that reason which was given us by God for the use and advantage of man - Bacon.

Preston Bradley Hall에는 두 개의 스테인드 글래스 도움형식의 기둥이 장엄하게 서 있다. 예전에 이 곳 Hall에서 나의 아들, 딸이 함께 Chicago Youth Symphony단원으로 연주를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오늘 아침 이 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Live Music Now! Young Peoples Concert"라는 타이틀로 시카고 공립고등학교 Bend Concert가 있었다. 한 학생이 Over The Rainbow를 클라리넷으로 부분 독주를 한다. 이곳 Preston Bradley Hall은 500석 규모의 Classic Concert Hall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3만 조각의 티파니 스테인드 글래스와 대리석으로 건축된 아티스트 도움 형식의 공간이다. 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는 화가 J. A. Holtzer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그 가치는 \$35 Million 이라고 한다. 이 유리 도움 형식의 티파니 스테인드 글래스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전체 건물이 5층 이지만 이 도움 위는 바로 하늘과 닿아 자연광이 들어 올 수 있게 하여 스테인드 글래스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중심 원형이 38피트







Randolph Street Lobby

인 티파니 유리 도움은 꽃잎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그 38피트 둘레를 돌아가며 황금색으로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다. Books are the legacies that a great genius leaves to mankind, which are deliver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presents to the posterity of those who are yet unborn... - Addison.

Washington Avenue 입구로 다시 돌아 간다.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대리석 계단을 타고 2층이 보인다. 이 계단은 Grand Stairways라고 부른다. 아치형의 로마네스크 정문형식으로 흰색, 초록색 등의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고대 학자 베르길리스, 시세로, 플레이토, 에멀슨, 롱펠로 등의 학자를 Y-Symbol 형식의 원주각으로 새겼다. Y-Symbol은 시카고시의 상징이다. 시카고는 지형학으로 3분점의 Chicago River가 합하여 만나므로 알파벳의 Y모양을 심볼로 한다. 그리고 보니 계단도 크게 Y자 모양으로 보인다. 계단 끝에는 화려한 도움 형식의 Grand Army of the Republic Rotunda and Hall이 있다. 이 Hall은 Healy and Millet이 디자인 했는데 노란 색 계통의 르네상스 패턴으로 30 피트 길이의 원형 건물로 낙쉬빌 핑크 대리석으로 장식 되어져 있고 머리 위로는 티파니 스테인드 글래스 패턴이 구심점에서 8등분, 다시 16등분으로 나누어져 천정을 장식 하고 있다. 바닥은 유리 블락으로 만들어져 그 아래에 불이 들어오니 어둡지 않다. 이 도움도 천정에는 하늘이 바로 지붕 위에 있게 하여 자연광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북쪽에는 Claudia Cassidy Theater가 있는데 이 방을 예전에는 참전용사들의 회의 장소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필름 영상, 강연, 공연, 워크샵, 초대강연 등의 일반 프로그램으로 쓰여 지고 있다. 좌석은 294석 규모이다.

4층 Sidney R. Yates Gallery. 이 곳은 아침 만찬이 있었던 곳이다. 원래는 도서관의 책 읽는 방이었는데 Yates 일리노이 국회의원이 재직시 갤러리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방은 14세기 베니스 궁전의 영향을 받아 실내를 티파니 유리, 폼페이 붉은 색, 은색 잎사귀로 장식하여 그 깊이를 더하고 사방으로 유리 창을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 오게 디자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4층에는 아주 큰 갤러리가 있다. 지금 'Off the Beaten Path' 전시가 있으며 'Violence, Women and Art' 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다. 갤러리를 한바퀴 돌아 보았다. 해골로 계속 자신의 가슴을 치는 여인의 비디오 아트, 후라이팬으로 가슴을 가린 여인의 사진 작품도 있다. 오노 요꼬의 퍼포밍 아트도 있다. 오노 요꼬의 옷을 관객이 가위로 하나씩 잘라 가는 것이다. 여성이 당하는 폭력을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5층에는 Chicago Children's Choir 방이 있으며, Millennium Park, Washington Room, Garland Room이 있고 또 다른 사무실 등이 있다.

Chicago Cultural Center를 이렇게 둘러보니 이 건물이 새롭게 보이고 시카고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기까지 한다.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부의 척도는 문화에 달려 있다고 한다. 모든 국가마다 그 고유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찬란한 전통 문화 유산을 토대로 더 윤택한 문화 생활을 가꾸어 우리의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어야 하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 할 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긴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국가나 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생활에 동반을 해야 할 것이다. 내 고향 부산의 여러 발전을 보며 문화와 경제가 잘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갑자기 또 부산이 가고 싶어진다.



# 더 콘서트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대부분의 음악영화는 음악가인 주인공의 감동적인 연주회로 마무리된다. 물론 〈카빙 베토벤〉처럼 연주회 이후에도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영화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연주장면을 향하고 마침내 연주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형식이다. 연주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겠지만 그 연주에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지를 안다면 감동은 배가 될 것이다.

〈더 콘서트〉는 음악영화가 지녀야 할 덕목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스토리가 다소 억지스럽지만 그마저도 음악영화가 가져야 할 기본을 확실히 지킨 마지막 장면 때문에 묵인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극장의 청소부인 안드레이 필리포프는 한 때 볼쇼이 교향악단의 지휘자였다. 그런데 30년 전 유대인 단원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고발당해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중에 쫓겨나고 교향악단도 해체된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볼쇼이 극장에 남아 있던 그에게 드디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파리의 한 공연장에서 볼쇼이 교향악단을 초대하는 공문을 본 것이다. 안드레이는 이 공문을 가로채고는 옛 동료들을 모아서 볼쇼이 교향악단으로 사칭한 채 파리로 떠난다. 이들의 목적은 30년 전 연주를 중단해야 했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에서 활동하는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마리 자케에게 협연을 요청한다. 사실 이 음악가는 30

년 전 연주당시 협연하던 바이올리니스트의 딸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모인 오합지졸 오케스트라가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정말 쉽지 않다. 당연히 안네 마리 자케는 협연을 거부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언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을하기로 한다.

〈더 콘서트〉의 백미는 단연코 공연장면이다. 영화의 마지막 15분에 달하는 이 장면은 큰 감동을 선사한다. 오합지졸이던 단원들이 마침내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은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통해서 완벽한 감동으로 되살아난다.





물론 30년 동안 연주활동을 하지 않던 교향악단 단원들이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완벽한 공연을 하고 더불어 안드레이와 안네의 갈등도 해소 되는 과정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장면은 이러한 허점들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든다.

〈더 콘서트〉는 음악영화라기보다 코미디가 조금 더 부각된 드라마에 가깝다. 음악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는 단원들도 있으며 길거리에서 연주해서 돈을 버는 단원도 있다. 여기에 예로영화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단원까지 50여 명의 교향악단 단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게 되는 과정은 흥미롭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없는 공산당의 모습이나 단원들이 파리에 갈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되어주는 젊은 석유 재벌에 대한 풍자도 재미있고 파리에 도착해서는 공연준비보다 외화벌이에 정신이 없는 모습도 터무니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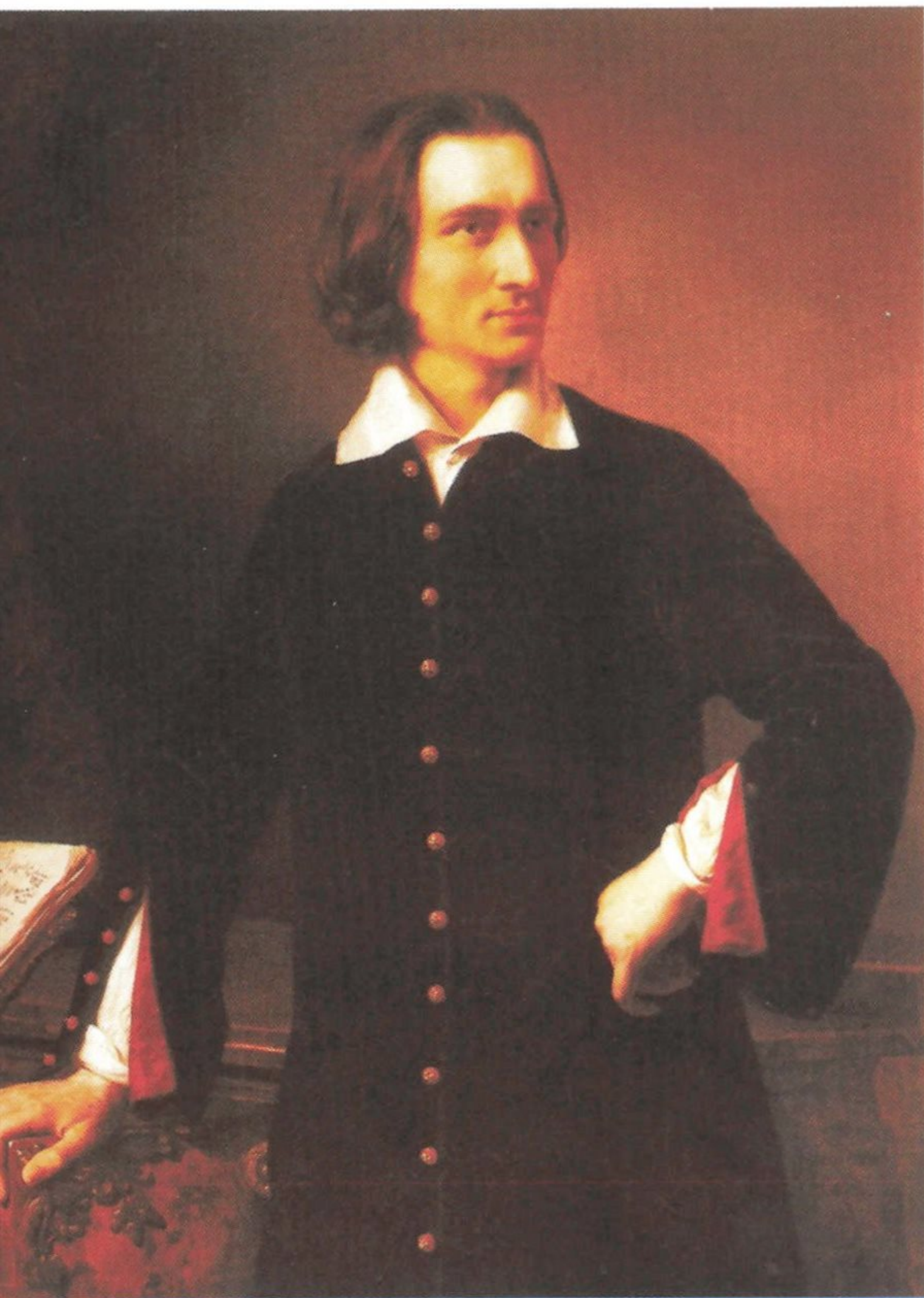
영화 〈투게더〉와 일본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에도 등장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이 장르의 최고의 걸작이다. 다른 많은 차이코프스키의 곡처럼 이 곡도 초연 당시에는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비난과 혹평에 시달렸다.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작곡가의 비참한 결혼생활과 그로 인한 우울증을 이기고 작곡된 이 곡은 러시아적이면서 애수에 젖은 선율과 독주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 그리고 웅장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명곡으로 지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더 콘서트〉를 연출한 ‘라두 미하일레아누’ 감독은 프랑스 국립영화학교를 나온 뒤 첫 장편영화인 〈밀고〉로 몬트리올영화제 신인감독상을, 〈트레인 오브 라이프〉로 베니스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루마니아 출신 감독이다. 감독은 어린 시절 독재자 차우체스쿠 정권에서 경험했던 억압의 기억을 〈더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유머러스한 연출로 담아냈다. 안드레이 역을 맡은 ‘알렉세이 구스코프’는 약 7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러시아의 국민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음악가 연기에 도전한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 출연했던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마리 자케 역을 위해 3개월 동안 바이올린을 배워 사실적인 연주모습을 보여준다. 안드레이의 부인 역으로 열연을 보인 영국출신의 관록 있는 배우 재클린 비셋의 모습도 흥미롭다.



라두 미하일레아누 감독은 어린 시절 독재자 차우체스쿠 정권에서 경험했던 억압의 기억을 〈더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유머러스한 연출로 담아냈다.





2011년은 프란츠 리스트(1811-86)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인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연주회에서 관현악, 피아노, 성악가들이 연주하는 다채로운 리스트 관련 연주회가 기획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리스트협회(1999년 창단됨, [www.lisztociety.or.kr](http://www.lisztociety.or.kr))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리스트 오라토리오 연주회, 헝가리 피아니스트 예노 안도 초청 피아노 독주회 &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 리스트 가곡 연주회, 리스트 피아노 앙상블곡 연주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주관하고 있다. 이 많은 행사들 중 특별한 것으로 2011년 10월 22일 리스트의 생일(세계 리스트 날)에 지구촌 각 나라의 리스트협회들이 연대하여 같은 날 리스트의 오라토리오 'Christus'를 연주(한국초연)하는 행사가 있다. 이 작품은 무대에만 300여명의 인원이 등장하고 연주 시간도 2시간 40분이나 되는 장대한 음악인데 리스트의 날 하루 동안 지구의 자전을 따라 끊임없이 각 나라에서 이 장대한 리스트의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된다. 한국에서도 10월 22일에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이 뜻 깊은 연주회가 열리는데 참으로 의미 있고 감동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스트는 19세기에 활동했던 헝가리 태생의 위대한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으로 오라토리오 'Christus' 같은 장대한 종교 음악에서부터 가벼운 소품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작곡했다. 일반인에게 리스트는 '피아노의 달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리스트의 음악 세계는 너무 폭넓고 다양하고 그의 음악이 후세에 끼친 영향도 대단하다. 리스트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식을 줄 모르는 탐구심과 열정으로 당대의 여러 음악인들, 문인, 예술가들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감동과 영감은 그의 초절적인 피아노 기교, 낭만적 환상, 종교적 열정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새로운 음악들은 새로운 낭만주의의 문을 활짝 열었다. 미술품, 문학작품, 관현악곡, 가곡, 오페라 등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연주 기법이 과감히 사용되었고 새로운 화성이 시도되었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기법과 화성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당대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현대음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리스트는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당대의 천재적인 꽃미남 피아니스트로 당대 모든 유럽 여성들의 연인이자 우상이었으며 여러 여성들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깊은 열정과 갈망이 그의 정신세계에 일생을 통해 일관되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는 복잡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뛰어난 피아노 연주력과 함께 천부적인 매력을 풍기는 외모와 분위기로 많은 연주회를 대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열광하는 많은 팬을 거느린 당대의 인기 스타 음악인이었다고 한다. 표면으로 드러난 이러한 화려한 모습과는 별도로 그는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였을 뿐만 아니라, 작곡가, 지휘자, 편곡자, 교육자, 평론가, 사상가, 성직자, 구도자로서의

## 천재적인 꽃미남 피아니스트

황윤하\_한국리스트협회 회장



삶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의 폭넓은 음악세계는 여러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데, 어린 시절 아마추어 첼리스트였던 아버지를 통해 헝가리의 민중으로부터의 민속 음악과 종교적인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 그의 음악에서 헝가리 집시 음악적 특성과 종교적인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그는 일생을 통해 여러 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며 여러 예술가들의 다양한 음악과 문학 작품, 예술 작품을 그의 넘치는 재능과 탐구심, 열정으로 접하였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비엔나와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던 당시부터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낭만주의 문인들과 접하게 되는데 위고, 뒤마, 뫼세, 상드, 하이네, 발자크, 라마르틴 등과 교류하며 많은 서적을 탐독하였고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음악인들로는 파리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리스트는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으로 자신의 초절적 피아노 연주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고난도의 기교를 요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게 되어 그의 음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이른바 '명기주의(Virtuosentum)'를 보여주게 된다. 또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쇼팽으로부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바그너의 오페라에 흥미를 느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바이마르 시절에는 당시 곤경에 처해 있던 바그너의 작품들을 자신이 지휘하던 오케스트라로 자주 연주하며 성원하였다. 바그너 역시 리스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그가 받은 많은 영감은 그때마다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이 만들어졌다.

리스트는 편곡의 대가였는데, 오페라, 가곡, 관현악곡들을 접하고 느낀 감동과 영감을 새로운 피아노 음악으로 편곡하였다. 원곡에 충실하게 편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항상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초절적인 피아노 기교가 유감없이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아노 음악의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었다. 그는 편곡작품들에서 오케스트라, 오페라의 감흥과 영감을 화려한 피아노 기교로 색채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그의 도전적인 정신과 음악적 어법으로 관현악 음악에서도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다.

화려한 연주 여행을 계속하던 리스트는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을 만나면서 연주 여행을 접고 바이마르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시절에는 고정된 지휘자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연주하고 작곡하였다. 이를 계기로 리스트는 단순한 피아니스트에서 벗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시야를 넓히고 많은 새로운 시도와 작품을 만든다. 베를리오즈, 바그너 등 진취적인 음악인들과 교류하였으며 항상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후원하였다. 이때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항상 무료로 가르쳤다고 한다.

리스트는 화려한 연주 생활과는 별도로 평생 종교적인 열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말년에는 주로 로마에 거주하며 수도사의 직책까지 받고 수도사의 생활을 하며 종교 음악에 몰두하여 종교적 영감이 어린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다.

- 2011년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3월호 부터 한국리스트협회 회장 황윤하가 리스트의 음악과 삶을 소개합니다.



# 조선시대 최고 화가 김·홍·도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 <자화상>

조선시대 풍속화가 크게 유행한 시기는 18세기 영조·정조 때부터다. 기존의 양반중심 문화에서 나아가 중인·서민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때는 소위 문예부흥기였는데 민의 의식 성장과 농업·수공업·상업의 발달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구가할 수 있었다. 회화의 소재나 기법에서도 우리의 자연산하와 사회풍물을 가지고 독자적 화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국적 실경(實景)·진경(眞景)의 풍속화와 산수화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특히 풍속화의 수요층이 증가했고 이를 공급하는 화원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이제 풍속화는 양반, 서민 뿐만 아니라 학문적 군주였던 정조까지도 즐기게 되었다. 오죽하면 정조는 자비대령 화원을 뽑는 시험에 그림을 보고 깔깔 웃을 수 있는 풍속화를 그리도록 명했을 정도이니 그 분위기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진정한 서민풍속화를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당대 최고화가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이다. 그의 자[字:사능(士能)]와 호[號:단원(檀園)·단구(檀丘,檀邱)·서호(西湖)]는 작품의 관지(款識)에서 확인된다. 단원은 한국인의 인물 표현법을 독특하게 개척하여 서민생활을 가장 사실적으로 담아 내었다. 문인서화와 평론의 대가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집을 어릴 때부터 드나들면서 그림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급기야 강세황의 천거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조정의 화보작업에 큰 역할을 했다. 후에 그의 작품은 스승인 표암과 함께 예술로서 만났다. 표암은 단원을 일컬어 ‘무소불능의 신필(神筆)’ 또는 ‘이 시대의 명수(名手)’ 라는 표현으로 극찬했다.

한편 효전(孝田)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은 풍속화는 하류가 그리는 것이라 하여 비하의 시선을 가지면서도 “요즘의 화가 김홍도는 세속의 물정과 일상에 쓰이는 사물을 잘 그렸다. 일상 사물을 실제 상황에서 그리되 그 모양과 색채를 전부 묘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단원에 대한 칭찬을 놓치지 않았다.

단원은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영조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어진화사가 된 천재화가였다. 이어 신이의 필법을 인정받아 정조의 어진을 그리고는 포상휴가까지 받는다. 임금으로부터 명승지를 그려오라는 명을 받아 김응환(김득신의 숙부)과 함께 금강산과 영동지역 및 동해바다를 화폭에 담아오기도 했다. 바위, 파도 등의 묘사가 정선이나 심사정의 영향이 있지만, 나뭇가지와 잎사귀의 묘사나 독특한 공간구성 연출은 걸출하다. 특히 인물선의 능숙한 처리, 강한 묵선과 부드러운 담채기법의 조화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이었다. 인물을 그릴 때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유자재로 붓을 춤추게 한 신필의 소유자였다.



단원의 작품에는 사대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기록화나 아취있는 신선도·아집도 및 정초에게 바친 금강사군첩 등과 같이 화격이 높은 명작이 많지만, 한편으론 서민의 일상생활을 리얼하게 묘사한 풍속도가 또한 일품이다. 그의 풍속도첩 가운데 작품 하나를 만나보자. 김홍도의 '무동'은 한창 신나게 춤추고 있는 소년(舞童)을 중심으로 소규모 악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 연주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른바 삼현육각(三絃六角)이다. 삼현육각은 연회, 행진, 무용의 반주에 널리 쓰이는데 정식의례의 악기구성이 아니라, 민간에서 약식으로 연주되는 악기편성으로 18세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단원 외에도 혜원(蕙園)이나 기산(箕山) 등의 풍속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한눈에 보아도 그림 속의 연주가 마치 귀에 짹짹 울리는 것 같다. 무동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보면, 악기는 앉아서 치는 북(좌고), 장고, 향피리, 세피리, 대금(젓대), 해금(강강이)이다. 북, 장고도 있지만 공명악기인 대금과 피리가 선물을 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는 분명 관악합주(대풍류)의 방식이다. 다만 해금은 현악기이지만 연주방법이 활대로 문질러서 대금처럼 지속적 음을 내므로 관악합주에 흔히 편성된다.

그림배치는 단원이 즐겨 구사하는 원형구도이다. 무동과 악사들을 강조하고 원근감을 부여하기 위해 배경을 생략하면서 색의 농담을 강조해서 그렸다. 악사 가운데 3명은 갓을 쓰고 나머지 3명은 벵거지를 썼는데, 그것도 변화를 주기 위한 배려로 악기의 성격과 모자를 배려하여 섞어서 등장시켜 놓았다. 즉 단원은 기악의 소리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모습까지도 음양의 원리로 배치하는 완결성을 잃지 않았다.

몸은 북을 향했으면서도 시선은 악단을 놓치지 않고 북채를 치는 모습. 아예 장고를 무릎꿇에 올린채 어깨를 흔들며 연주하느라 갓이 얼굴 앞으로 기울은 모습. 가부좌를 틀고서 우람한 소리를 내는

향피리와 음량이 작은 소리를 내는 세피리 두 연주자의 부풀은 볼. 거꾸로 틀어앉아 무동의 춤사위를 보며 흥을 맞추는 대금잡이. 전체 가락에 맞추어 오른손으로 활켜기에 몰입한 해금잡이. 이들의 기악합주에 신나게 한판 춤을 펼치는 무동. 그림 속의 동작이 모두가 살아있고 악기소리가 요란하다.

공연은 절정에 오른 상태다. 그림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춤추는 소년에 있다. 한 손은 위로, 나머지 한 손은 옆으로 뻗친 데다가, 한 발은 땅에 딛되 발꿈치를 치켜들고, 나머지 한 발은 공중에 휘젓는 자세가 가장 흥에 겨운 춤사위다. 신명나는 동작은 팔력

이는 옷주름과 소매자락 및 허리띠가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 무동을 제외하면 그림 구도상 연주자들의 배치는 반원형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원은 무동이 춤출 스텝 공간까지 배려된 것이다. 그만큼 신나게 한판 추고 있다는 뜻이다. 또 배치상 대금잡이도 재미있다. 악단 전체를 보지 않고 혼자 바깥을 향해 앉았다. 무동의 동작을 보면서 대금을 불기 좋은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소박한 그림 하나만 봐도 역시 단원은 신필의 소유자다.

삼현육각은 여러 악기가 동시에 다양한 소리를 연출해 내는 조선시대



김홍도 <무동>

의 이동식 오케스트라였고, 무동은 조선시대의 비보이었다. 즉석에서 춤을 추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 비보이는 헤비메탈과 테크노 음악의 녹음기를 틀어놓고 즉석에서 추지만, 옛날엔 현장에서 연주하는 악단에 맞추어 정식으로 추었던게 차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기계음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다. 삼현육각의 합주처럼 자연스레 구성진 가락도 우리에게 참 좋은데...

- 3월호 부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변광석 전임연구원과 함께 그림 속에 살아있는 선인들의 풍류를 찾아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 전경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부산예술회관이 3월 3일 개관한다.

남구 대연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건립된 부산예술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예술인 전용사무실과 연습실, 소극장과 전시실 등이 들어서 있다. 3월 개관을 앞두고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 사무실 이전으로 분주하다.

특히 그동안 전용회관이 없어 부산시민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던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이번 부산예술회관 개관에 따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무대와 전용 사무공간 확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건축가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영화협회, 음악협회 등 산하 10개 회원단체와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 등 12개 단체를 거느린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는 협소한 공간에 사무실을 나눠 사용하거나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두는 등 협회별로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그동안 유기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았다. 게다가 공연을 앞둔 예술인들이 전용 연습공간이 없어 연습실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도 이번 부산예술회관 개관으로 상당수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단체인 한국민족





부산예술회관 광장



연습실



회의실



250석 규모의 소극장

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도 이 곳으로 옮겨오면서 부산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부산예술회관 개관과 더불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새로운 행보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존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예술 장르가 영역을 넓혀가는 이 때,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계획. 부산예술회관은 바로 이 새로운 50년사를 준비하는 전지가지인 셈이다.

부산예술인들은 부산예술회관 내에 들어서는 25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2곳의 전시실에 기대가 크다.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공연장과 전시실은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도 가능하다. 공연, 전시가 열리지 않는 오전,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는 다양한 문화강좌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부산예술회관이 자리한 대연동은 인근에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 부산문화회관, 박물관 등의 문화관련 시설과 함께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예술대학 등 대학교가 몰려있어 부산의 대학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특색을 살려 1천600㎡ 규모의 부산예술회관 광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로 하면서 예술인과 시민, 예술과 젊음이 공존하는 남구 문화의 출발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예술회관 3월 개관을 앞두고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는 산하 회원단체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의 예술과 문화’를 소재로 195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부산문화사를 음악과 연극, 무용, 시극 등 다양한 장르로 엮어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이밖에도 개관기념전으로 원로미술전, 사진전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문 의 |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631-1377)



국토 박물관을 찾아 국내 구석구석을 누비는

##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수년 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한 때 답사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수많은 답사회가 꾸러지면서 전국의 문화유적지에는 한 때 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3일 300회 답사라는 진기록을 세운 부산의 대표적인 답사단체인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그 이름이 빛난다.

지난 2월 13일, 302차 답사여행을 떠나는 회원들이동이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답사는 청사포를 시작으로 임랑 묘관음



사, 장안사, 간절곶, 진하 명선교, 서생포 왜성, 외고산 옹기마을, 방어진 울기등대, 슬도방과제, 경주 읍천항, 문무대왕릉, 감은사지를 돌아보는 코스. 버스가 출발하자 답사대장 장순복 씨의 막힘없는 해설이 시작된다.

국내에 답사열풍이 불기 전인 지난 2002년 결성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현재 온라인에 가입된 회원수만 1,900여명. 한달에 한번 열리는 다른 답사동호회와는 달리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답사여행을 떠난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답사대장 장순복 씨. 지난 1970년대 후반 우연히 부산박물관에서 열리는 각종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문화유적의 진면목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는 ‘누군가는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으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주 열리는 답사일정을 짜는 것도 장순복 씨의 몫. 주제와 동선을 맞춰 답사지를 결정한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답사의 묘미. 향토사학자, 고택의 종손, 문화유산 해설사 등 답사지에서 만나는 아마추어 사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문가 뺨치는 실력을 갖춘 회원들이 포진하면서 어떤 날은 전문가급 수준의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단순히 답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사 후에는 잘못된 안내문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잡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300회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볐던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3월에도 새로운 ‘박물관’을 찾아 답사를 떠날 예정이다. 공휴일인 3월 1일에는 경주 남산과 경주박물관, 국내유일의 마애열반상을 둘러보며 신라통일의 수수께끼와 해상왕 장보고의 역사를 만나며, 6일에는 남한강을 따라 한국 석조유물의 금자탑 고달사지와 영월암, 영릉, 조선 문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읊었던 여강의 신륵사를





지난 1월 300회 답사기록을 세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전국의 문화 유적을 찾아 답사 여행을 떠난다.

답사한다. 13일에는 探梅(탐매) 특집답사로, 광양매화, 금둔사의 납월매, 선암사의 흥매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19일에는 여수의 사도와 추도에서 모세의 기적을 만날 예정이다. 장순복 답사대장과 함께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공식 문화 유산해설사인 창단회원 민학기 씨. 대학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답사경력 30년. 거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는 민학기 씨의 전문가 뺨치는 해박한 지식에 팬을 자처하는 회원들이 많다. 온라인 회원이었다가 답사여행에는 처음 참석했다는 정귀남, 이언호 모자. 일반여행사가 운영하는 테마여행과는 달리 회원들간의 가족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좋다는 엄마 정귀남 씨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아들과의 답사여행이 행복하기만 하다. 신문에 게재된 답사일정을 보고 2008년부터 답사여행을 시작

한 회원 박서영 씨. 두 딸인 이연정, 이화정 씨와 자주 동행한다는 그는 역시 딸과 함께 참석했던 고성 문수암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번 답사에서는 특히 부산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묘관음사와 장안사가 답사코스에 있어 참석했다. 박장춘, 홍수자 부부는 5~6년 전부터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1999년 남편인 박장춘 씨가 정년퇴임하면서 답사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부는 다른 답사동호회와 달리 정기적으로 답사를 진행하는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 문의 |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cafe.daum.net/museummystery)





싱싱한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3월 24일(목) - 4월 10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소극장 · 야외무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야외무대

부산연극계 최대의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1년 무대가 3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부산지역 6개 극단이 경연부문에 참가해 전국연극제 참가 티켓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올해는 지난해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 누리예의 창작극 '여자 이발사'를 비롯해 극단 도깨비 '상사화', 극단 한새별 '선택',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극단 자유바다 '돌고 돌아 가는 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등 6편의 창작초연작이 무대에 오른다.

경연작 외에도 이번 부산연극제에서는 연희단 거리패의 개막 축하공연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6편의 자유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자유참가작은 공연예술 전위 '용띠위에 개띠',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창작극연구소 '몽키 프로젝트', '그라찌에빠빠' 등 성인극과 어린이 관객을 위한 극단 사계 '토끼의 이솝이야기', 강민성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신명나는 축제한마당 모리문화예술원의 '희망콘서트-놀이'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제 기간동안에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제 4회 부산시민연극제(3월 31일~4월 4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와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사진전시회(3월 24일~4월 9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부산연극정보관(3월 24일~4월 9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관객과의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개막축하 공연작

연희단거리패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2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우리나라 근, 현대사 최초의 희극작가 오영진의 대표작으로, 광복 직

후 친일, 친미 행각으로 시류에 편승하던 기회주의자 이중생의 말로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풍자극.

• 작/오영진 • 연출/이윤택

## ■경연작

극단 도깨비 '상사화'

3월 28일-29일 월-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꽃이 피면 잎이 지고, 잎이 피면 꽃이 지는 상사화처럼 돈과 사랑, 명예와 권력 등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이치처럼 죽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부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현대판 마당극.

• 작, 연출/김익현

극단 한새별 '선택'

3월 31일-4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광해군 시절, 명과 청나라 사이 실리와 명분이라는 외교정책의 희생양이었던 강홍립 장군을 중심으로 당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린 각자의 선택과 갈등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역사극.

• 작, 연출/이철우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을 주인공으로, 그가 겪는 부조리한 세상과의 불화를 극단적인 시각화를 통해 표현한 작품.

• 작/이원희 • 연출/김세진

극단 자유바다 '돌고 돌아 가는 길'

4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4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임진왜란 당시 권력의 무상함을 비판하며 세상을 뒤엎고자했던 두건과 과거급제를 통해 세상 구원을 꿈꿨던 한선비, 그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과 인생행로를 그린 작품.

• 작, 연출/정경환





2010 제 23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색'

자유 참가자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4월 4일-5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0년간 한국땅에 살아남은 일본여성 '에이코'를 통해 척박한 현실에서도 삶을 개척하려했던 한 일본여성의 사랑과 인생을 그린 작품.

• 작/김경미 • 연출/강성우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4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20년대 '모던'이라는 말과 함께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기 시작했던 신여성들의 자유연애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화두인 진정한 사랑과 자아찾기를 그린 작품.

• 작/최은영 • 연출/김지용

**■자유참가작**

**공연예술 전위 '용띠위에 개띠'**

3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소극장

76년생 용띠 나용두와 82년생 개띠 지견숙, 처음 만남부터 내기로 시작된 그들의 결혼생활은 내기로 점철되고, 이들의 티격태격 부부싸움은 어느새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대신한다.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3월 25일(금)-30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역사속으로 사라진 추억의 동대문 야구장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던 한씨 가족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낸 작품.

• 작, 연출/박훈영

**강민성 콘서트**

3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독일 뮌헨국립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강민성이 오페라리아와 가곡, 뮤지컬 넘버를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콘서트.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빠빠'**

4월 6일-8일 수-금요일 오후 7:30, 9일-10일 토-일요일 오전 11:4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유태인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큰 감동을 안겨줬던 영화 '인생은 즐거워'를 모티브로, 평범하지만 위대했던 아버지의 부성애를 그려낸 작품.

• 작, 연출/이준하

**극단 사계 '토끼의 이솝이야기'**

4월 6일-8일 수-금요일 오전 11:00,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이솝우화의 동화 속 세계로 들어가게된 토끼의 모험을 통해 우화 속 교훈을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4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와 민요부르기, 100명이 펼치는 대형 난타공연, 우리나라 최고의 놀이 판굿 등 관객과 함께 펼쳐지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

• 연출/정동훈

- 입장권 | 개막축하공연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R석 30,000원/S석 25,000원/A석 20,000원/B석 15,000원  
경연작 및 자유참가작 균일 12,000원 (자유참가작 '용띠위 개띠' 일반 20,000원/청소년 12,000원, '강민성 콘서트' 균일 30,000원)
- 문 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





웃음, 감동, 편안함이 있는

# 팝페라 듀엣 휴[HUE:]의 어쿠스틱 콘서트

박진홍\_음악평론가



2011년 2월 9일 수요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309번째 금정수요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연주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류무룡, 김지현이 결성한 팝페라 듀엣 휴

[HUE:]의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시크릿 가든의 Hymn to hope,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엔리오 모리꼬네의 ‘Nella Fantasia’를 비롯한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들은 크로스 오버 듀엣 휴[HUE:]라는 이름으로 2006년 수요음악회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다. 5년 만의 친정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 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진하게 배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5년 전, 필자는 그들의 새로운 시도가 당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이었던 두 사람의 가벼운 바깥나들이 정도로 생각했다. 오페라 아리아는 대부분 성악가들의 레퍼토리였고, 사라브라이트만이나 안드레아 보첼리 등의 팝페라 가수들의 영향으로 크로스 오버적인 레퍼토리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음악가들이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날 연주에서는 휴[HUE:]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찾을 수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프리랜서로의 전환에서 오는 변화들

이었다. 그들은 시립합창단 단원의 일부로서 전체 음악의 한 부분을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닌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다소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것이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가창력이다. 류무룡, 김지현 두 사람의 노래는 성악 전공자의 벨칸토 창법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팝페라로 전향하면서 풍부한 성악발성 위에 대중성에 호소할 수 있는 농도 짙은 감성을 장착했다. 이러한 점이 그들의 음악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오페라 아리아, 우리 대중가요, 팝음악, 뮤지컬 음악, 그리고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고 있는 영화 OST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시네페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있었다.

네 번째는 관객과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류무룡은 객석에 앉아 있는 칠순의 노모를 위한 노래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곡의 중간 중간에 직접 곡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들의 활동 중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김지현과의 대화나 설명 등으로 풀어내며 때로는 진솔하게 또 때로는 유머러스한 예능감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웃음을 만들어냈다.

부산에서 시작한 팝페라 듀엣 휴[HUE:]는 부산뿐만 국내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도전, 끊임 없는 노력이 일구어 낸 결과로 생각된다. 원칙을 고수하며 음악의 깊이를 추구함으로써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더불어 변화와 도전을 통해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이 계속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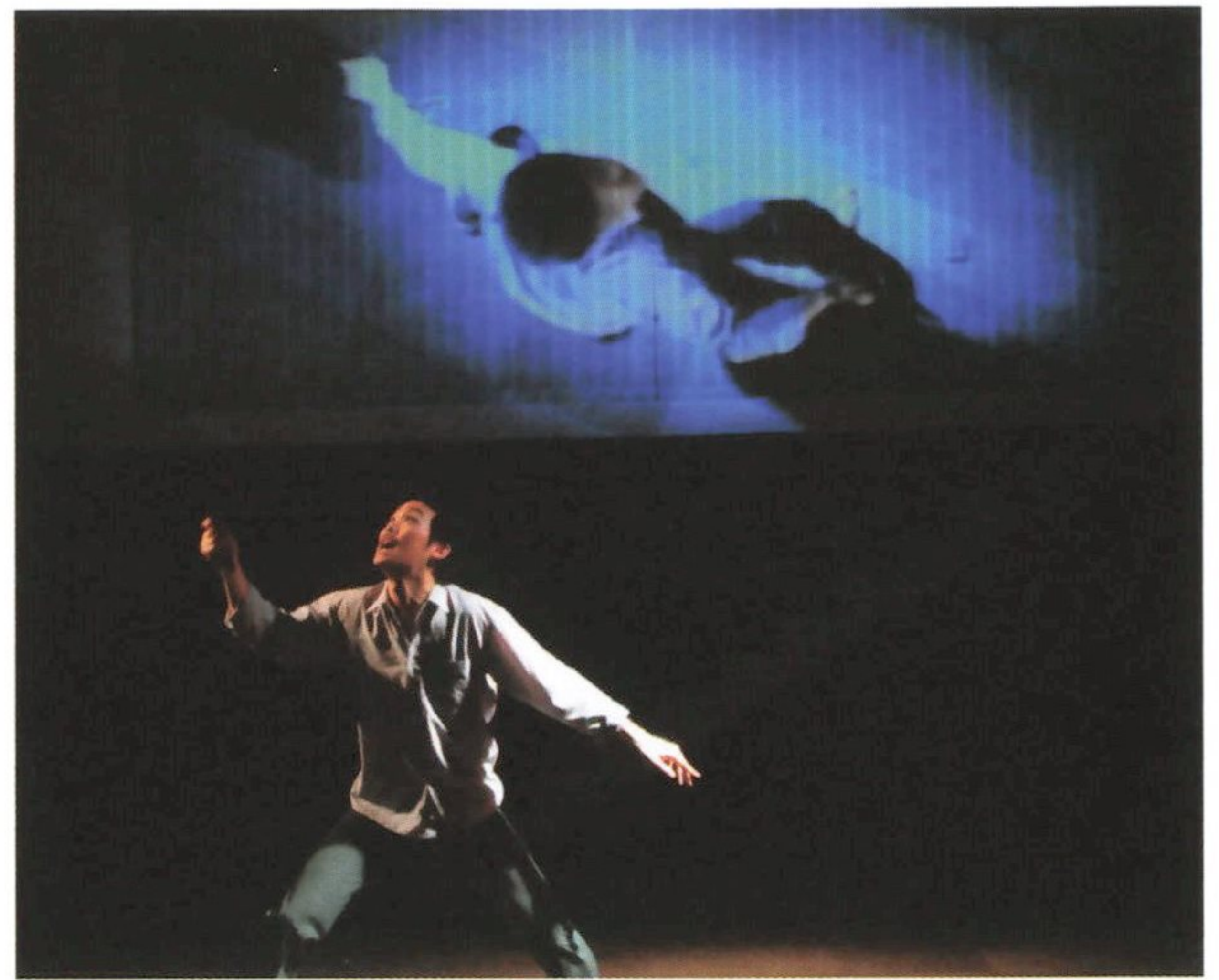
## 운명의 한계상황에 놓인 인간 야망의 내적 투사 알렉산더 젤딘 연출의 ‘맥베스’

김문홍\_연극평론가

제 2회 가마골 젊은 연출가전의 첫 번째 작품인 연희단거리패의 <맥베스>(W. 셰익스피어 작, 알렉산더 젤딘 연출, 번역 및 드라마트루기 이채경, 2011. 1. 19-1. 30, 가마골 소극장) 공연에서 알렉산더 젤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운명의 시각이다. 인간은 운명의 예정된 경로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올가미 속에서 피투성의 싸움을 진행하다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유한적인 한계상황 속의 존재라는 점이다. 이번 공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대 위(지상)의 인물들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여 후면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운명에 얽매인 인간의 비극성을 관객들의 심상에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독일 ‘샤우뷔네’의 상임연출자인 오스터마이어의 ‘햄릿’ 과 기법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스터마이어의 햄릿은 누추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클로즈업시키고 있지만, 알렉산더 젤딘의 이번 작품은 운명의 예정된 계획 속에서 그 비극적 행로를 따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전지적인 시점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무대 위의 인물들은 그러한 전지적 시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투사된 인물들의 영상을 카메라와 함께 관찰하고 있다는 동질적인 ‘엿보기’의 심리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운명과 관객은 동일한 시점의 공유로 인간들의 어리석고 희화적인 행태를 관찰하고 있는 데에도 정작 무대 위의 인물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연의 두 번째 특징은 원작의 상황을 우리들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곳’의 상황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적인 시각으로서의 접근에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젤딘의 이번 작품은 운명의 예정된 계획 속에서 그 비극적 행로를 따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전지적인 시점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대사의 재창작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번 공연에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대사의 내용과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원작은 반역자의 무리를 퇴치하고 돌아오는 장군으로서의 무사인 맥베스와 벵코우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장교복을 걸친 현대적 인물로 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사는 원작의 뜻과 말맛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을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는 폭력으로 은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폭력의 관계망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풍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TV 모니터에서 맥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적 풍경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환치시키고 있는 상징과 은유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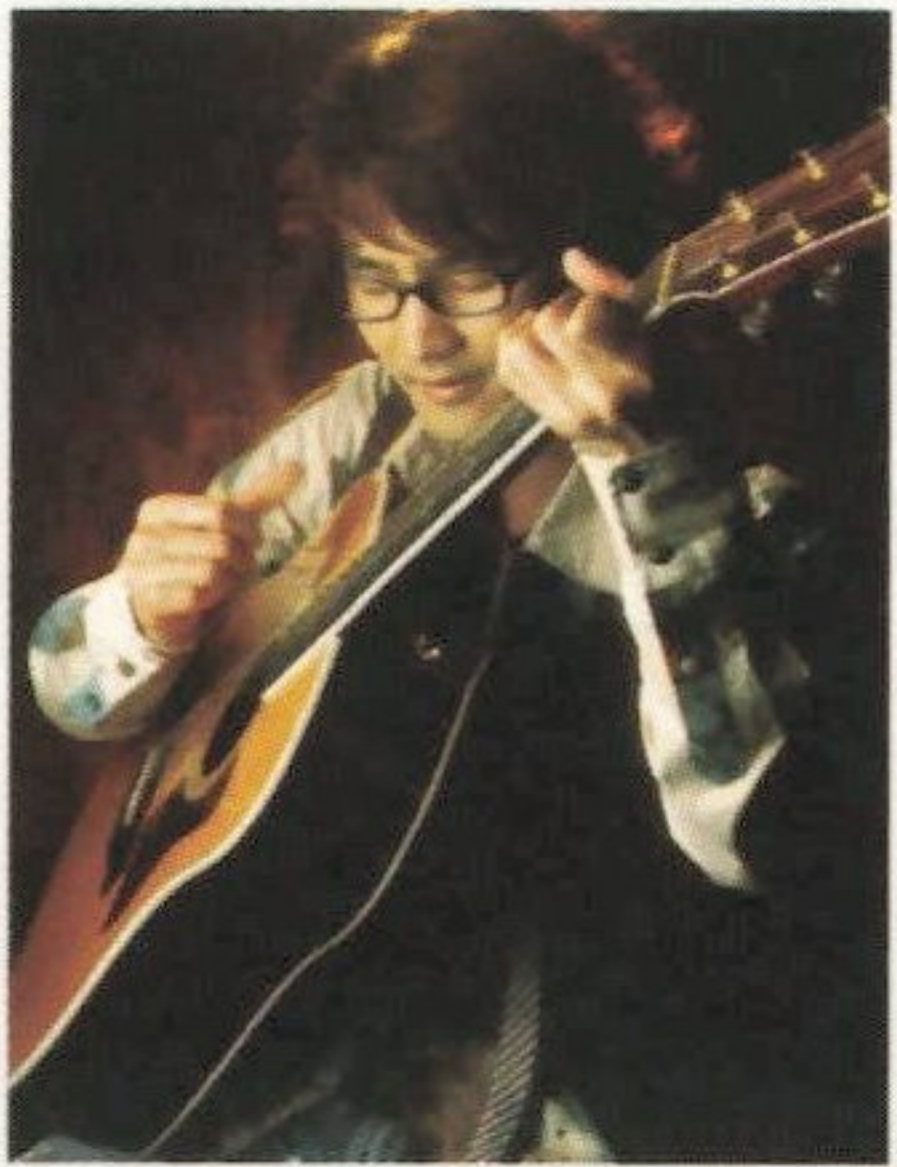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추가열 콘서트

3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실력있는 젊은 뮤지션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가 7080 세대들을 위해 2011년 새롭게 펼쳐는 Part II 무대.

'Part II 무대 Yesterday'의 첫 주인공은 심금을 울리는 미성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감성뮤지션 추가열.

1집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를 발매, 북유럽풍의 서정적인 포크음악과 퓨전재즈 스타일을 지향하는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은 이번 무대에서 팬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 '행복해요'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포크 음악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국립창극단 '청(淸)

3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 대극장



2006년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국악 창극 중 최다 관객 7만 여명을 불러 모은 화제작 국립창극단 '청(淸)' 부산무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탄탄한 구성력과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심청가'를 음악극으로 새롭게 만든 '청(淸)'은 국가 대표급 소리꾼들의 농익은 소리,

2006년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국악 창극 중 최다 관객 7만 여명을 불러 모은 화제작 국립창극단 '청(淸)' 부산무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탄탄한 구성력과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심청가'를 음악극으로 새롭게 만든 '청(淸)'은 국가 대표급 소리꾼들의 농익은 소리,

국립창극단 기악부, 국립국악관현악단 40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대작이다. '상여소리', '벚노래' '방아타령', '화초타령' 등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을 독창과 합창으로 만날 수 있는 '청'은 풍부한 선율과 회전무대가 연출하는 인당수 장면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예술감독/유영대 • 연출/김홍승
- 작창/안숙선 • 지휘/이용탁

• 출연/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 부산통기타리스트 통기타연주회

3월 6일 일요일 오후 3:00 >>> 소극장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산 모임 '부산통기타리스트' 정기연주회.

2001년 결성,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부산통기타리스트는 통기타를 사랑하는 순수 음악 모임으로서 연 2회의 정기공연, 자선공연, 거리공연, 오프라인 통기타 강습을 통해 통기타 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려왔다.

::프로그램

벤처스 파이프 라인, 데파페페 금지된 사랑, 마사아키 키시베의 꽃, 비틀즈 레잇비 등 수곡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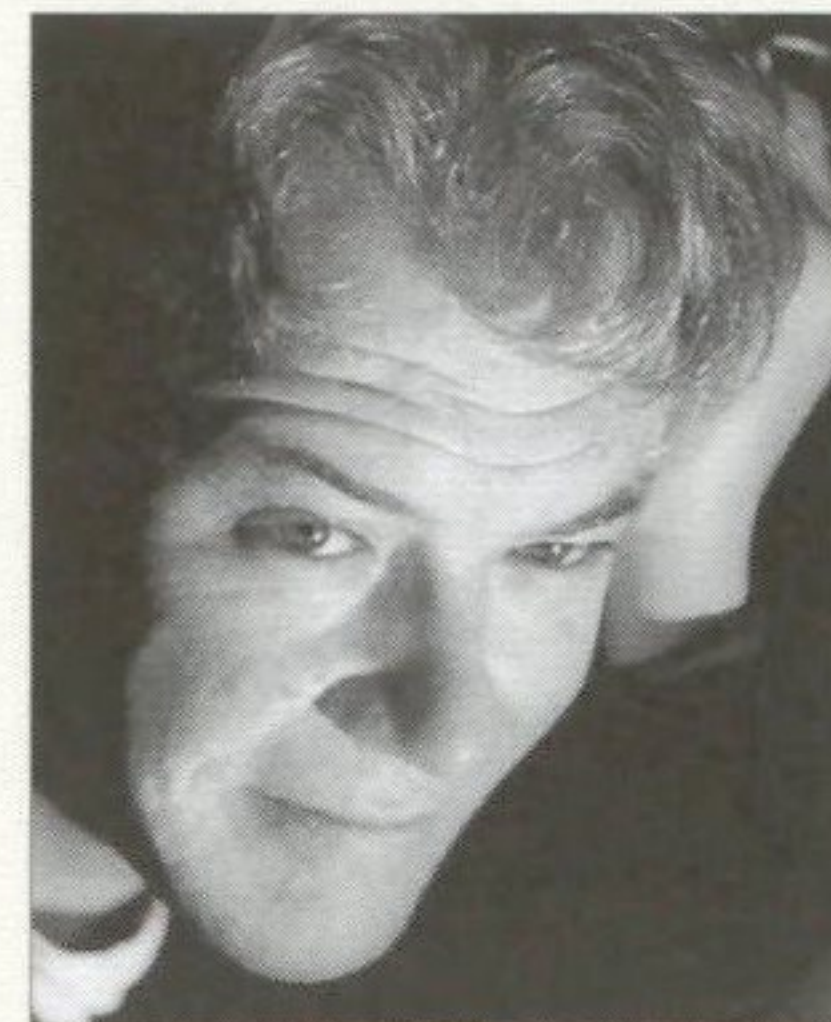
::문 의 부산통기타 리스트(010-9919-3160)

###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제2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3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UKO(United Korean Orchestra)의 정기연주회.

로마에서 'String of Florance', 'Open Orchestra from Roma to Bologna', Roma Ensemble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모노폴리 국립음악원



디에고 콘티



최지윤

교수 디에고 콘티(Diego Conti)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지윤이 협연자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연세대 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최지윤은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프로이예스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카네기홀 및 미국 순회 연주회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푸치니/ '마농 레스코' 중 '간주곡'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라단조 작품 31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95 '신세계로부터'

• 지휘/디에고 콘티(Diego Conti)

• 협연/최지윤(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United Korean Orchestra

(731-4470, 011-589-3111)

### 2011 장정윤 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

3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로고현대무용단 예술감독,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장정윤의 2011년 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

무용의 예술성과 삶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순수현대무용창작 무대를 열어온 장정윤 교수는 이번 무대에서 안무자가 갖고 있는 사색의 여정을 매체와 환경을 통해 육화시켜 표현하는 순수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시도한다.

를 열어온 장정윤 교수는 이번 무대에서 안무자가 갖고 있는 사색의 여정을 매체와 환경을 통해 육화시켜 표현하는 순수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시도한다.



영화 '피아노'를 모티프로 인생에서의 생명을 향수하고 그 열기를 육화한 작품 '피아노(Piano)', 승무의 현대적 변형을 꾀한 '승무(Monk Dance) 2011' 등 세 작품을 초연한다.

**작품**

작품1. 귀소리(Ringing in my ear)

작품2. 피아노(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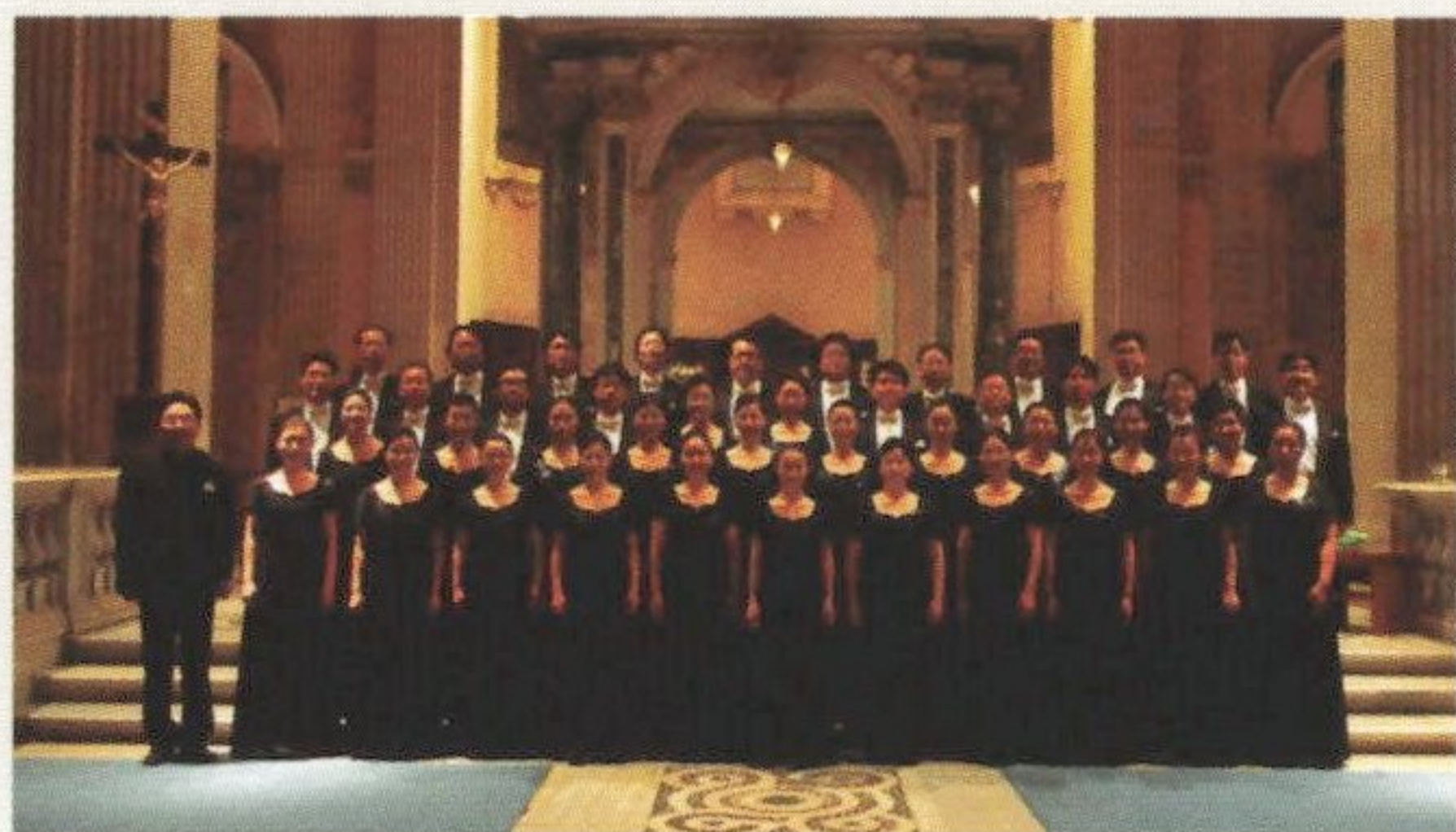
작품3. 승무(Monk Dance) 2011

- 안무/장정윤
- 출연/장정윤, 김현정, 한지은, 강민욱 외 6명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장정윤(200-7822)

**부산시립합창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지휘자, 2인 2색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 출신의 젊은 지휘자 2인과 함께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지휘자, 2인 2색(2人 2色)'.

부산의 재발견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무대는 부산대학교 재학중 도미, 미국 템플대학교와 예일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합창 수업을 한 학구적인 지휘자 최정일과 한양대학교와 이탈리아 Novara 국립음악원, Academia Europea에서 성악과 합창지휘수업을 한 열정의 지휘자 이성훈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지휘,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세 개의 시편/시편 96편 & 22편(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84편(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독일레퀴엠' 중), 시편 33편(너희 의인들아 주를 기뻐하라)  
두 곡의 영시 합창/파랑새, 그대의 손에 백합을

두 곡의 독일 낭만 합창/그리움, 집시의 삶  
세 곡의 민요/증인(미국민요), 대니 보이(아일랜드 민요), 곤도리에리(이탈리아 민요)  
본 윌리엄스/이중 합창과 솔리스트를 위한 사단조 미사

- 지휘/이성훈(부산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최정일(미국 일리노이대 합창박사)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서성은 귀국 첼로 리사이틀**

3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독,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 연주자과정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첼리스트 서성은 귀국 독주회.

서성은은 유학 중 Ars Musica 초청 솔로 연주, Johannes Kirche 초청 독주회 등 독주회, 독일 Klassische Philharmonie Bonn, 호프시립극장 소속 오케스트라 Hofer Symphoniker 단원으로, 8 Göttinger Cellisten 앙상블 멤버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4번 다장조  
힌데미트/첼로 솔로를 위한 소나타  
프랑크/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아트뱅크크레아(442-1941)

**부산시립극단 제 40회 정기공연**  
1동 28번지, 차숙이네

3월 14일-20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2011년 첫 정기공연 무대 '1동 28번지,

차숙이네'.

2010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화제작 '1동 28번지, 차숙이네'는 삶의 필수공간이자 도구인 <집>을 바라보며, 집을 짓는 과정에 숨은 인류 지혜의 역사와 그 공간에서 삶을 지속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극단 놀땅 대표, 작가, 연출가인 최진아의 객원 연출로 부산에서 초연된다.

- 작, 연출/최진아

**출연**

정행심(차숙), 황창기(희정), 유성주(희섭), 김은옥(시은), 이혁우, 이돈희, 라세흠, 김은희, 이현주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2011 제 11회 부산신춘음악회**

3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지역 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는 유망신예들의 등용문 '부산음악협회 신춘음악회'.

성악, 기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8명의 음악도를 선발, 싱그러운 봄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에나프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김규환/님이 오시는지

채동선/그리움

바버/빛나는 오늘 밤에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등 수곡

- 연주/조아람(더블베이스, 인제대 대학원 졸업), 조현정(소프라노, 동아대 대학원 졸업), 심윤경(바이올린, 동의대 대학원 졸업),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박수환(테너, 부산대 졸업), 김재한(플루트, 인제대 대학원 졸업), 권윤화(피아노, 경성대 대학원 졸업), 윤선혜(고신대 대학원 졸업), 임혜민(피아노, 신라대 대학원 졸업)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7회 정기연주회 거장 '장-베르나르 포미에' 초청연주회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장-베르나르 포미에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7회 정기연주회.

장-베르나르 포미에는 베를린 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에 이어 17세 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최연소 준우승으로 일찍부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거장적 해석과 원숙미 넘치는 연주로 프랑스 특유의 화려하고 우아한 선율이 돋보이는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와 장-베르나르 포미에가 직접 협연하는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사모를 담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작품 9  
생상/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사단조 작품 22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

• 객원지휘, 피아노/장-베르나르 포미에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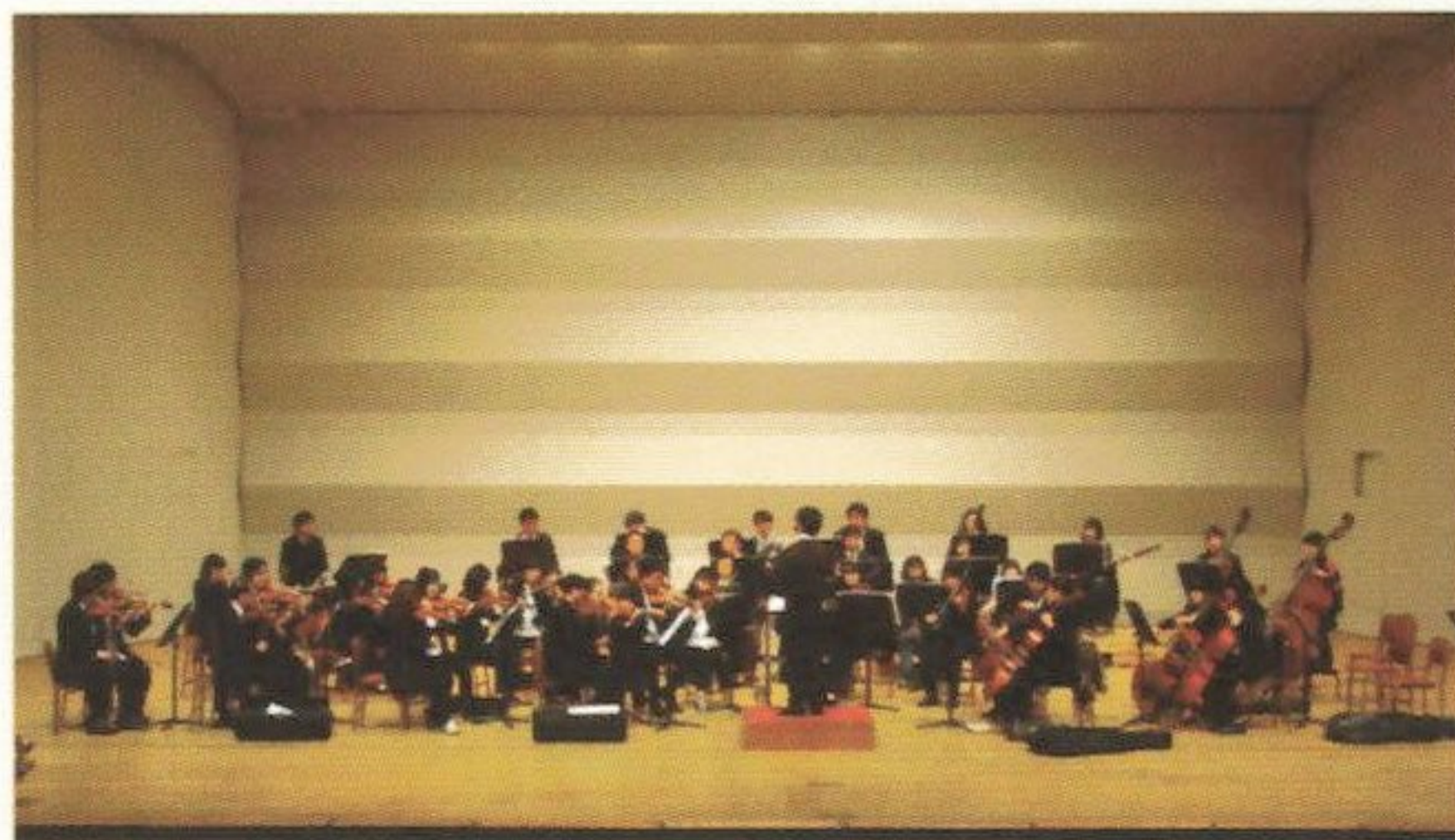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607-3100)

### 제 8회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 대극장



2002년 대학교수, 의사, 감정평가사, 교사, 군인, 학원 강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그리스어로 '선율'이란 뜻을 담은 멜로스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 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수 음악회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작품 15  
슈베르트/로자문데 발레음악 제 2번 D.797  
모차르트/교향곡 제 4번 K.550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음악과 교수)

::관람료 초대

::문의 이승아(010-6432-0821)

### 슈투트가르트 카메라다 유로피아나 내한연주회

3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3년 지휘자이며 첼리스트인 Klaus Peter Hahn에

의해 창단된 슈투트가르트 카메라다 유로피아나 부산 연주회.

슈투트가르트 카메라다 유로피아나는 성공한 음악인들과 독주자들이 20년 가까이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에 참여하며 Stuttgart, Hamburg, Bielefeld, Bayreuth, Freiburg, Fulda, Warstein 등 독일의 주요 콘서트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 Daniel Rehfeldt가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및 리더를 맡아 유럽 전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프리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연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관람료 R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문의 코리아뮤지카(02-2277-6516)

### 장 베르나르 포미에 피아노독주회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프랑스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장 베르나르 포미에 부산연주회.

피아노와 지휘를 함께하는 지휘자로도 유명한 장 베르나르 포미에는 뉴욕에서 유진 이스토민을 사사한 국제 청소년 음악 콩쿠르 우승과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최연소 파이널리스트로 입상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비롯하여 피에르 불레즈,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쿠르트 마주어,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사이먼 래틀과 협연, 런던, 비엔나, 베를린, 라이프찌히, 드레스덴, 암스테르담, 파리, 모스크바, 시카고, 뉴욕에서 독주회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노던 심포니아, 토리노 필하모니 음악감독을 역임한 장 베르나르 포미에는 2008, 2009 시즌에 런던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 독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8번 다단조 작품 13 '비창'  
 베토벤/소나타 제 14번 올림다단조 작품 27/2 '월광'  
 베토벤/소나타 제 30번 마단조 작품 109  
 베토벤/소나타 제 31번 내림가단조 작품 110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소프라노 김삼희 귀국독창회**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Piacenza 'G. Nicolini' Conservatorio, Parma 'A. Boito' Conservatorio, Parma 'Orfeo' Academia, Genova 'Ducale' Academia, Roma 아카데미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김삼희 독창회.

**:: 프로그램**

헨델/날 올게 버려 두오

벨리니/회상

토스티/4월

아르디티/말해주오!

푸치니/ '투란도트' 중 '주여 들어주소서' 등 수곡

• 피아노/윤민화

**:: 관람료** 균일 10,000원(중, 고등학생 무료)

**:: 문의** 김삼희(011-863-5052, 010-9213-028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6회 정기연주회**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교류음악회**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월 2일 첫 절기공연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2011년 활동을 시작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강원도립국



지휘 김철호



지휘 신영균

악관현악단이 함께 하는 교류음악회.

우리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마련하는 이번 합동교류음악회는 두 악단이 100여명의 연주단을 구성, 화려하고 신명난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산과 바다를 대표하는 부산과 강원도의 지역적인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창작 관현악곡들을 엄선,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신영균이,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류형선/국악관현악을 위한 '마침내 바다'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2009년 위촉작품)

백대웅/남도아리랑

이준호/국악관현악을 위한 '아라리'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2002년 위촉작품)

백대웅/국악관현악 '연변목가'

이준호/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997년 위촉작품)

강봉천/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5년 위촉작품)

• 지휘/1부 신영균(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2부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사회/김지현(TBN부산교통방송 출발! 부산대행진 진행)

• 협연/정세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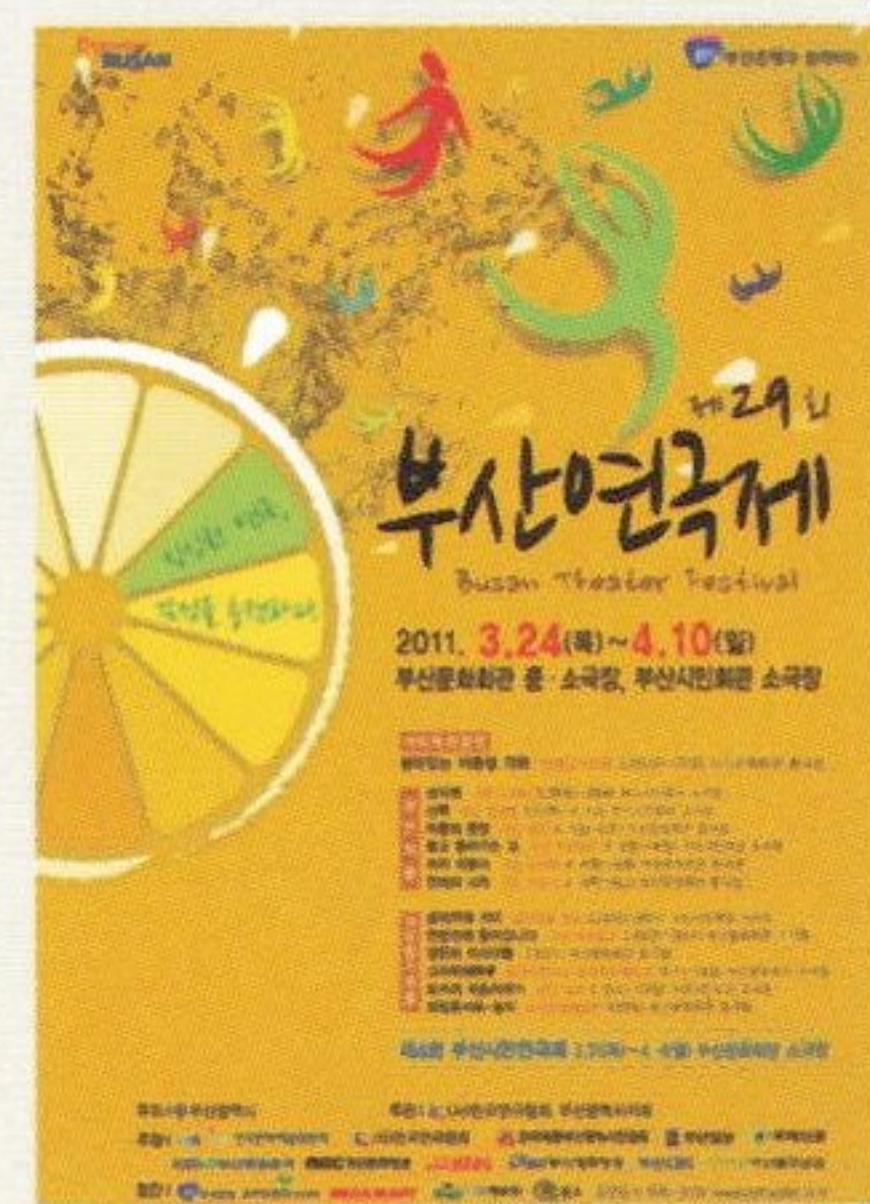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싱싱한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

3월 24일(목)-4월 10일(일) >>>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해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제 최고의 축제인 부산연극제 제 29회 무대.

겨우내 연습실을 지키며 새로운 작업에 열정을 쏟은 부산연극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6개

극단의 경연작품, 6개 자유 참가작품 공연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 4회 부산시민연극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1991년 가마골소극장에서 초연된 '연희단거리패'의 '살아있는 이중생각(작/오영진, 연출/이윤택)'를 개막축하공연으로 선보인다.

**■ 개막축하공연**

연희단 거리패 '살아있는 이중생각'

3월 25일-27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해방 이후 묻혀있던 한국연극 레퍼토리 재발견을 위해 1991년 이윤택에 의해 재발굴된 '살아있는 이중생각'은 당시 부산 가마골소극장 배우들인 오달수(이중생 역), 남미정(우씨 역), 이지해(하연 역) 등이 출연, 많은 화제를 모은 풍자극이다.

해방 전에는 자기 자식까지 자진해서 징병 보낸 친일 파였고 해방 후에는 미 군정청 관리들에게 빌붙어 민족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이중생이 악덕 변호사 최영후와 짜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극을 펼친다.



- 작/오영진 • 연출/이윤택
- 출연/이승헌, 배미향, 오동식, 하지은, 홍민수, 조승희, 조정우, 고윤희, 박혜린, 민혜림, 신보희 외

### ■경연 작품

극단 세진 '여름의 문장'

4월 1일-2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모함으로 죽음을 맞게 된 주인공 허균이 겪는 부조리한 세상과의 불화를 극단적인 시각화를 통해 표현한 극단 세진의 경연 참가작 '여름의 문장'.

지난해 부산연극협회 제 3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인 '여름의 문장'은 사회 개혁을 꿈꾼 허균의 생애를 마당극과 꼭두놀음으로 조화시킨 독특한 구조로 호평 받았다. 모함으로 죽음을 맞은 허균이 저승에서 사흘간의 이승여행 기회를 얻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면서 허균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한다.

- 작/이원희 • 연출/김세진
- 출연/백길성, 정애경, 유재명, 양기원, 신동훈, 장승현, 금정원, 장민, 이현정, 이현남, 이은주 외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4월 4일-5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여자 이발사'는 지난 60년간 한국 땅에 살아남은 일본 여성인 '에이코'의 이야기다. 자신의 삶을 새로이 개척하려고 했으나 척박한 현실이 결국 그녀가 이국의 갯벌에 묻히게 만들었다. 임신한 일본인 여성 에이코의 순수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개척의지를 그린 '여자 이발사'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보편적인 가치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과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 작/김경미 • 연출/강성우
- 출연/최성희, 이창환, 김부성, 최현경, 박빈, 강봉금, 이지혜, 안재홍, 우영태, 황유나, 황정미 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의 시대'

4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자유연애와 사랑이 유행처럼 퍼지던 1920년대, 新 문물이 들어오면서 주체적으로 사랑과 자아를 찾기 시작하던 시대 사람들의 사랑,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

람들의 사랑까지, 시대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자아 찾기는 공통된 화두이다. '연애의 시대'는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현재, 미래의 성숙된 자아를 그리고 있다.

- 작/최은영 • 연출/김지용
- 출연/최은영, 엄준필, 송준승 외

### ■자유참가작품

극단 배우창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3월 25일-30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80년간 자리를 지켜온 동대문야구장. 커다란 덩치의 괴물 같은 고교 왼손투수 한복판이 선발투수로 동대문 경기장의 마지막 경기에 임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하는 한복판 선수와 그의 가족이 펼치는 고군분투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 작, 연출/박훈영
- 출연/김병철, 김지혜, 서경화, 이재연, 김하영, 박훈영

강민성 콘서트

3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강민성이 들려주는 크로스 오버 콘서트. 오페라와 뮤지컬 가곡을 들려준다.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빠빠

4월 6일-10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11:40 **소극장**

아버지의 큰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창작극 연구소 몽키프로젝트 '그라찌에 빠빠' 축하공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무대로 옮긴 이 작품은 유대인 청년 귀도와 아들 조슈아의 애뜻한 부정을 그렸다.

- 작, 연출/이준하
- 출연/김효영, 임진유, 유윤주, 이지욱, 김병국, 조지혜, 박정상, 전자연, 안진희, 김다혜, 백승희 외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4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관객, 무대연희자, 한국사람, 일본사람, 모두가 하나되어 진정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희망콘서트-놀이. 100명의 난타공연, 놀이 판굿, 피아노 연주회, 춤으로

관객과 하나되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펼친다.

- 연출/정동훈
- 출연/박홍의, 전미경, 천행지, 류지연, 이나영, 곽은진, 정지연, 정재욱, 전진삼, 박성호, 이유미 외

### ■부대행사

2011 제4회 부산시민연극제 3월 31일(목)-4월 1일(월)

오후 2:00, 3:00, 4:00 **소극장**

시민단체, 직장 및 대학 연극 동아리 등 순수 아마추어 단체가 참가하는 부산시민연극제.

:: **관람료** 개막작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 B석 15,000원

경연작, 자유참가작 균일 12,000원

(강민성 콘서트는 균일 30,000원)

부산시민연극제 무료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1 신춘음악회 - 봄의 갈라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봄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봄의 갈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정원, 이윤경, 테너 조윤환, 바리톤 강경원, 박종준, 조성빈, 베이스 함석현이

아름다운 봄의 환희를 선사한다.

### :: 프로그램

슈트라우스 2세/ '집시남작' 서곡, '박쥐' 중 '여보세요, 후작님'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 중 '나의 갈망, 나의 망상'

레하르/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 '힘담은 미풍을 타고'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

푸치니/ '라보엠' 제 2막 중 발체 등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소프라노 박정원, 이윤경, 테너 조윤환  
바리톤 강경원, 박종준, 조성빈, 베이스 함석헌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3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 대극장



수석지휘자 전상철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로 시작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2011년의 첫 정기공연.

모차르트의 19곡의 미사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관식 미사'는 1779년 모차르트의 나이 23세 때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된 작품이다. 장애우로 구성된 부산베데스다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 소프라노 장은영, 앨토 강희영,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정대가 솔로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창작 합창/바닷가에서(김성덕 곡), 할머니의 장맛(조한조 곡), 굴렁쇠(박봉렬 곡) 남성중창/고향길(이동훈 곡), 이슬맺힌 이 아침에(김동현 편곡), 열레콜라리(박정선 곡)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등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솔로/소프라노 장은영, 앨토 강희영,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정대
- 특별출연/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  
부산베데스다합창단(지휘/박성환)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사단법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 기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9회 정기연주회**  
3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지휘 오충근



피아노 유영욱

사단법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을 기념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9회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객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호평받아왔다.

수석지휘자 오충근 교수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과 교향곡 5번, 피아니스트 유영욱 교수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작품 96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작품 23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5번 작품 47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피아니스트 유영욱(연세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악장/임병원 · 경성대교수)

::관람료 VIP석 30,000원 · R석 20,000원  
A석 10,000원(전석 학생 50% 할인)

::문 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405-4577)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3월 5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집박\_유경조 / 대금\_채수만, 이만형, 강은주  
소금\_조은경 / 피리\_박춘석, 강영현, 김경수  
해금\_최윤정, 정수경, 이은주 / 아쟁\_권혜정, 최희정  
장구\_이장우 / 좌고\_송강수

::지영희류 해금산조

해금\_방병원 / 장구\_송강수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_옥경화, 김지현 / 25현\_이명일, 송영남  
장구\_장미진

::대풍류

대금\_한영길 / 피리\_진형준, 박영은 / 해금\_윤해승  
장구\_송강수 / 좌고\_최오성

::시나위

대금\_엄익준 / 피리\_정주아 / 해금\_김소현  
아쟁\_박일 / 가야금\_정미자 / 거문고\_이대하  
장구\_전학수 / 징\_이주현

※해 설\_전현진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3월에는 부산연극제 일정으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에는 토요상설무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60석

**MOZART**

영빈관 맞은편 1층

**모짜르트 레스토랑**

예약문의. 051) 622-1456



### MUSIC

#### 제 8회 부산콘서바토리 정기연주회 스프링 콘서트

3월 1일 화요일 오후 5: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립음대 교수인 피아니스트 스테판 뮐러와 동백 국제콩쿠르 입상자가 함께하는 무대.

- 연주/스테판 뮐러(피아노), 배수진(소프라노), 한혜지(악사 소프라노), 문정수(전 부산시장), 이동욱(바리톤), 박진(바이올린), 김남옥(피아노), 정순화(피아노), 김준혁(재즈피아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콘서바토리(501-3999)

#### 주니어 스트로크 앙상블 정기연주회

3월 1일 화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타악기의 매력에 빠진 부산, 경남지역 초·중·고생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주니어 스트로크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그동안 타악기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려온 주니어 스트로크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중남미의 라틴음악과 타악기로 편곡된 클래식명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스트로크 앙상블(010-4494-3520)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일 'Appassionata' 최미경 바이올린 리사이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최미경 독주회.

::프로그램

포레/소나타 가장조

드뷔시/렌토보다 느리게 작품 13 등 수곡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9일 신지아 피아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및 동대학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대음악앙상블 KARIEN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신지아 독주회.

▶16일 테너 문대진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테너 문대진 독창회.

• 피아노/박미은

▶23일 4인 피아니스트의 듀오콘서트

피아니스트 공소현, 김병기, 이은영, 정성흡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30일 고영주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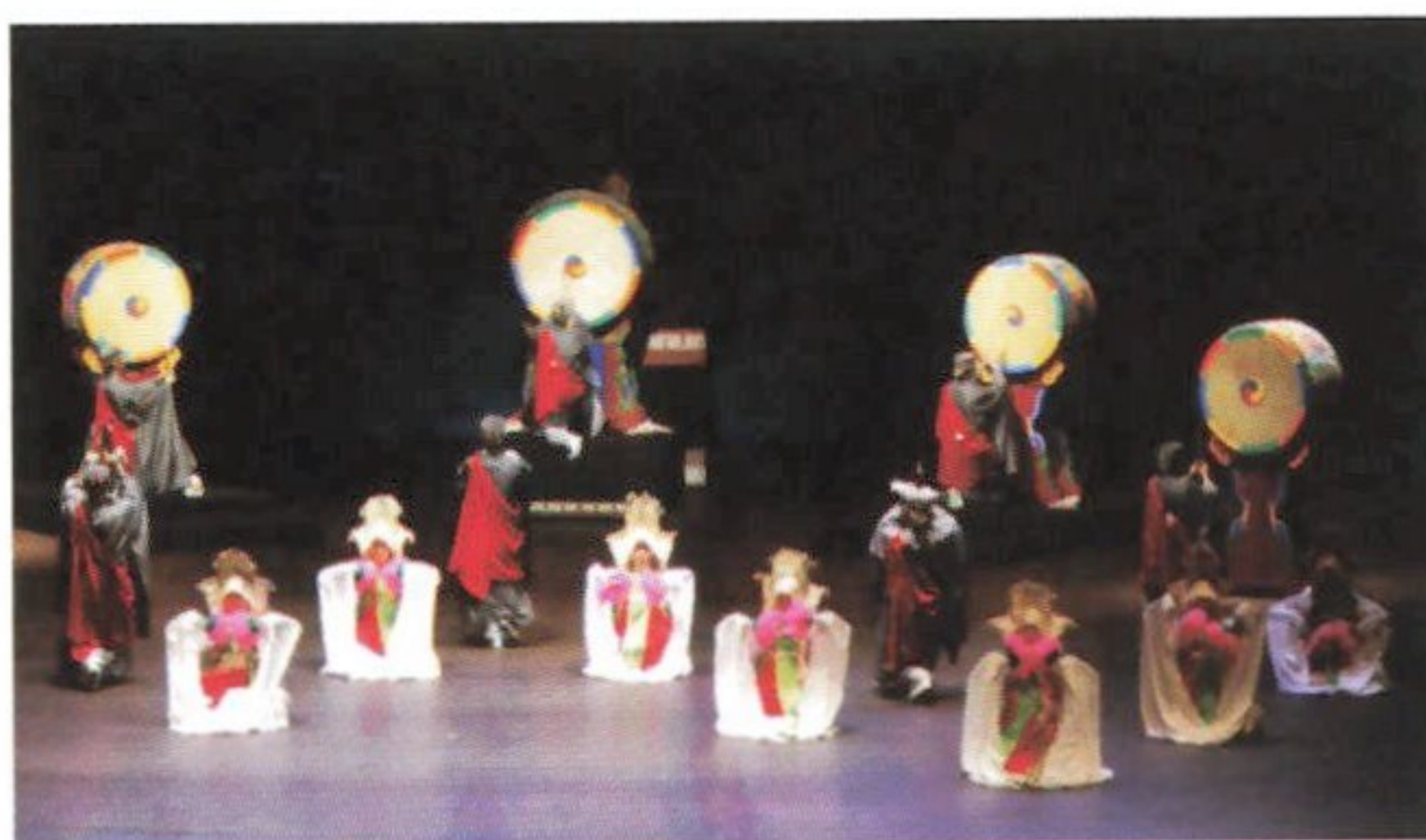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단비울 남성 앙상블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고영주 독주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5일 프로그램

향발무, 판소리 '흥부가', 대금독주 '상령산 풀이', 동래학춤, 남도민요, 가야금 3중주, 설장구춤, 사물놀이

::12일 프로그램

수제천, 승전무 중 '칼춤', 남창가곡 '연락', 승무, 경기민요, 대금·가야금중주, 좌수영여방놀이, 삼도설장구

::19일 프로그램

춘앵전, 판소리 '적벽가', 해금독주, 통영교방진춤과 동래한량무, 모듬북협주곡, 동부민요, 부채춤, 판굿

::26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산조춤,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생소병주 '수룡음', 태평무, 서도민요, 작법, 모듬북합주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2011 겨울음악페스티벌

3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노를 지도하는 전공교사들의 재교육, 음악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 협회가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4번째 무대.

• 해설/석경래(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연구소장), 박현정(아나운서)

• 특별출연/옥준(오카리나), 고충진(클래식기타)

::관람료 초대

::문의 박선연(010-4509-6846)

#### 7th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축제 2011 신춘음악회

3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 KBS울산홀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2011년 신춘음악회.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작품 96

비제/카르멘 전주곡

슈트라우스/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웨버/오페라의 유령

김희조/가야금협주곡-관현악을 위한 산조 등 수곡

• 협연/소프라노 박미혜, 바리톤 김동규,

국악인 오정해, 김남순과 가야금연주단

::관람료 균일 70,000원

::문의 현대모비스(052-280-8961)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월요음악회**

매주 월요일 오후 8:00 >>> 가톨릭센터 소공연장

▶7일 제 1기 피아노반주음악연구소 정기연주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마술피리 그리고 리골렛토'  
피아노반주음악연구소 회원들과 성악가들이 마련하  
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21일 아리아와 가곡의 밤 '평화로운 봄날에...'  
소프라노 변향숙, 윤선기, 장은영이 새봄을 맞아 들  
려주는 유명 아리아와 가곡의 밤.

- 피아노/금찬이 • 해설/장진규

▶28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9  
현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작곡가 마스카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갈라무대로 마련  
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출연/윤지영, 허동권, 이태영, 장희진, 한현미
- 피아노/이용란 • 해설/장진규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최보빈(010-9880-8447)

**테너 김지호 제자 음악회  
봄을 깨우는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

3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김지호의 제자들이 새봄을 맞아 가곡과 오페  
라 아리아로 꾸미는 무대.

- 출연/테너 이신범, 이호석, 최용준, 김준석, 바리톤  
박종준, 정제원, 소프라노 원진희, 정현, 백소명
- 피아노/강수근, 박선영, 안하영

::관람료 초대

::문 의 이호석(010-6641-1176)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3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태리 루이지 스트라메



지, 포라나 리릭 등 각  
종 국제콩쿠르 우승과  
비오티 국제콩쿠르에  
서 특별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  
회.

한국에서 보기 힘든

리릭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가진 윤지영은 이번 무  
대에서 로티와 스카를라티의 바로크음악을 비롯해  
파야의 일곱 편의 스페인 민요, 모차르트, 포레, 사  
티의 가곡과 Pleurez mes yeux, Pace mio Dio,  
Meine Lippen so küssen heiss 등의 오페라 아  
리아를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윤지영(010-5165-3744)

**이야기가 있는 연주회  
임동혁 Piano Story**

3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최강의 테크닉과 풍부  
한 감수성으로 최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라  
고 불리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콘  
서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  
쿠르를 석권한 임동혁은 이번 무대에서 쇼팽, 리스

트, 라흐마니노프 곡을 위주로 곡에 대한 해설과 연  
주 때 있었던 에피소드 등 관객과 함께하는 이야기  
가 있는 음악회를 펼친다.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한낮의 유U; 콘서트  
뮤직카페 '유'**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이사벨



김지호



김동욱

영혼을 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팝페라 가수 이  
사벨과 테너 김지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이 마련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3월 무대.

::프로그램

오토 니콜라이/오페라 '원저의 명량한 부인들' 서곡  
영화 OST/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 리버'  
오펜바흐/인형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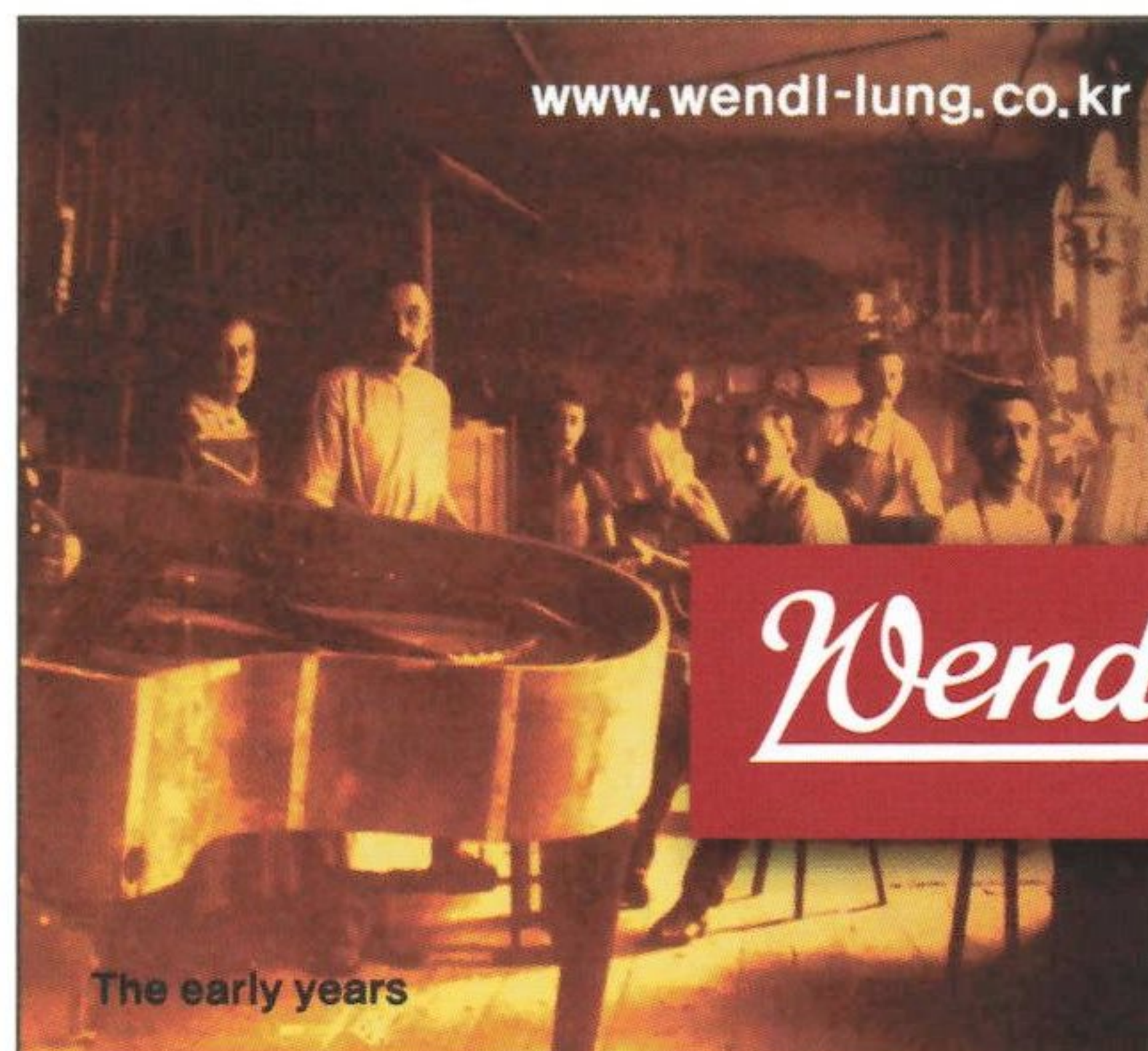
부르흐/바이올린 협주곡 사단조 작품 26 등수곡

- 지휘/박성완 • 사회/박은주

• 연주/가마뱀오케스트라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국제신문(500-5222)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김민경, 김희나 듀오 콘서트

3월 15일 화요일 오후 6: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국제청소년예술음악콩쿠르 최고상,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2위를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민경과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명예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희나의 듀오무대. 김민경과 김희나는 현재 부산예고 2년에 재학중이다.

• 우정출연/이미정(피아노)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민경(010-6223-3287)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1일, 8일 공연없음)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15일 김선한 거문고산조 독주회-한갑득류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부 명예교수, 정농악회 지도위원, 금화악회 대표로 있는 거문고주자 김선한 독주회.

김선한은 KBS국악대상(현악부분 연주상), 난계악학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22일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 '이현의 노래'

해금만이 지니는 독특한 표현으로 전통적 선율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들려주고 있는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 무대.

### ▶29일 백연화의 춤

용인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 전수자로 활동하는 전통춤 백연화의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가영 탱고트리오 탱고 드 카르멘

3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매혹적인 비올리니스트 가영과 피아니스트 박종훈, 재즈 기타리스트 김민석이 들려주는 최고의 탱고 향연.

::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로드리게스/라쿰파르시타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바리톤 최대우, 테너 김문현 2인 음악회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최대우



김문현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대우와 신라대학교를 졸업한 테너 김문현이 함께하는 2인 음악회.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파보리타' '안드레아

쉴리에' 등 오페라 주요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의** 최대우(016-869-6780)

### 백상홍 & 조진학 제자 음악회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주자 백상홍과 플루티스트 조진학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제자음악회.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협주곡 제 1번 내림마장조 작품 11

모차르트/협주곡 제 4번 내림나장조 K.495

뿔랑/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 혼/박용인(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은아, 최진웅

• 플루트/박아름, 윤진주, 신현이, 정수진, 김지예,

안혜빈, 강주영, 구자훈, 엄경민, 유하은

:: **관람료** 초대

:: **문의** 조진학(010-4592-8868)

###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주 셋째주 토요일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작곡가나 음악에 얽힌 숨겨진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무악극 Beautiful Korea

3월 24일(목), 31일(목) 오전 11: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바다와 육지, 생명의 시작인 물을 소재로, 동양의 오방사상을 담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창작



가무악극.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랑스 빌다레브국립 음악원, 부르주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콜로라

투라 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 **프로그램**

브와엘디외/오페라 '이웃마을의 축제' 중 '볼레로: 인생을 즐겨라'

포레/나비와 꽃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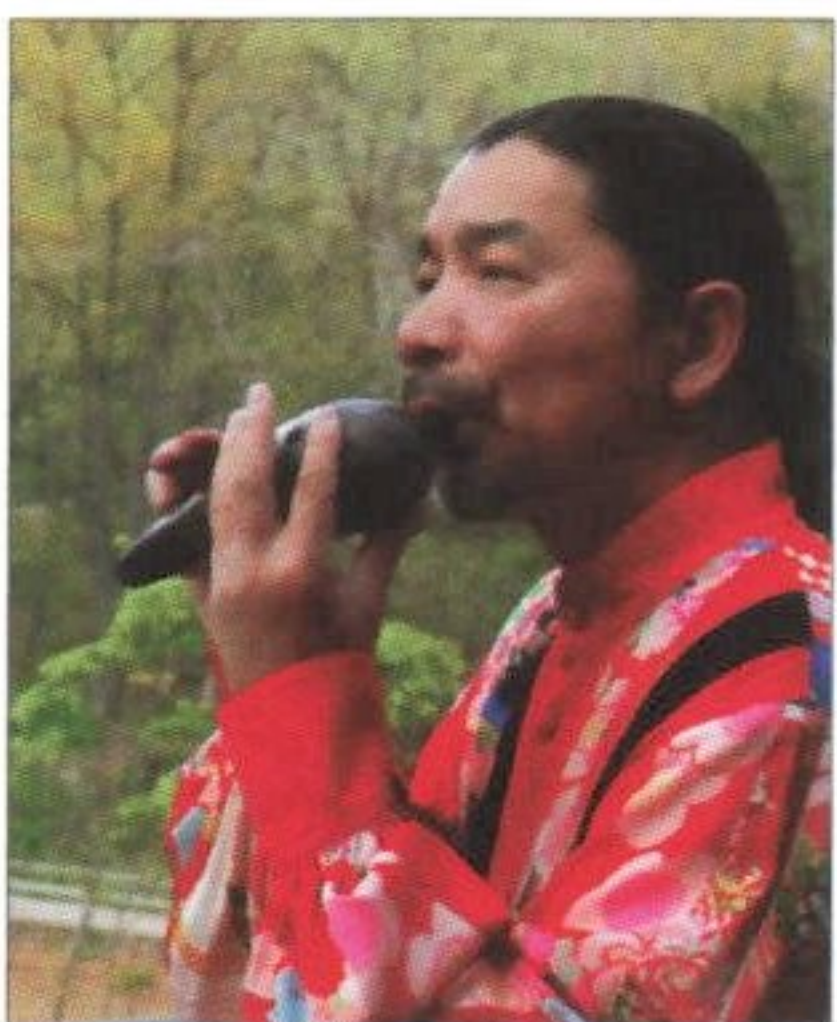
• 피아노/강은경

:: **관람료** 균일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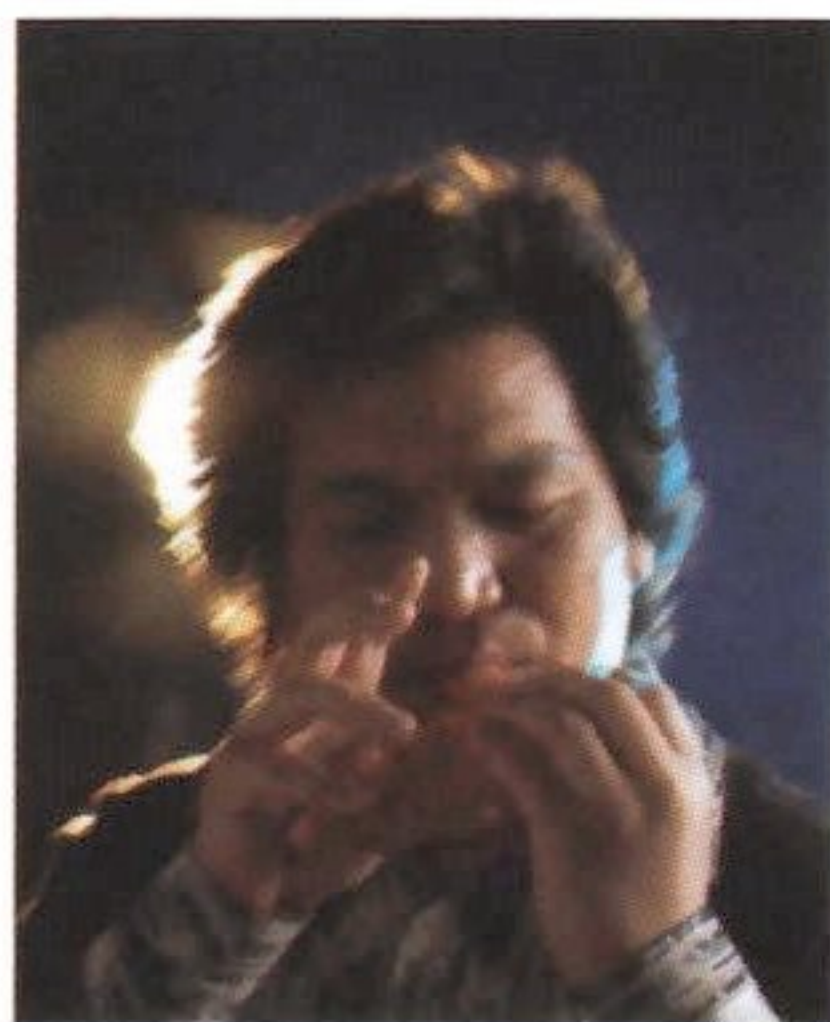
::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소지로 & 박봉규 오카리나 조인트 콘서트 슌으로의 초대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소지로



박봉규

NHK-TV 다큐멘터리 '대황하(大黃河)의 배경음악'을 연주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자 노무라 소지로와 2010년 제 1회 아시아 오카리나페스티벌 총 기획자이자 연주자인 박봉규가 함께하는 오카리나 조인트 콘서트.

영혼을 자극하는 따뜻하면서도 맑고 아름다운 오카리나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진행/서윤다(KBS 리포터)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단체 20인 이상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02-582-1048~9, 010-3315-5274)

### 루퍼스 최 피아노 리사이틀

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7년 클래식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호세 이투르비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계 피

아니스트 루퍼스 최 피아노 리사이틀.

미국 줄리아드음대 학사, 석사과정, 독일 Music Hochschule in Hannover 최고연주자과정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한 루시퍼 최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으로 그 음악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오고 있다.

:: **프로그램**

리스트/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연습곡

리스트/왈츠-즉흥곡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 1번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작품 45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PLAY

### 2011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극. 부산전용극장 공연 1,000회를 돌파하며 그 재미를 이어가고 있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 제1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 부 문 : 피아노 · 작곡 · 성악 · 현악 · 관악 · 실내악 · 국악 · 실용음악

> 대 상 : 유 · 초 · 중 · 고(재학생포함) · 대 · 일반

> 접수처 : <http://www.contest.co.kr>(콘테스트)

>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 부산광역시교육감상 / 부산대학교총장상 / 부산대학교문화콘텐츠개발원장 / 글로벌아트홀관장상

각 부문별 및 학년별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 전체대상 및 전체 최우수상 (개인연주회 개최 및 유학오디션용 CD 제공)

■ 각 부문별 학년별 금상 · 은상 · 동상 (글로벌행복음악회 출연 자격)

국제수준 여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위치 : 3호선 미남역1번출구 국영은행과 바래비게뜨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 (온천 3동 1243-21)

☎ 051-505-5995

Fax.051-505-5935

악도 : 홈페이지 참조

<http://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 연극 열대야

2월 11일(금)-3월 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 공휴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 용천지랄소극장

직업도 성격도 다른 세 중년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지는 연극 '열대야'.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무대공감(623-0678)

### 훈남들의 수다

2월 11일(금)-3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3/14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3/1일 오후 3:00, 6:00)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30대 초 · 중반 남성들의 성과 연애, 결혼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 '훈남들의 수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밴드 뮤지컬 6시 퇴근

2월 25일(금)-3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3/14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3/1일 오후 3:00, 6:00)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속에서 자신들의 열정을 찾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특별한 밴드활동 이야기 '6시 퇴근'. 국악과 록을 접목시킨 '아리랑'으로 2001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을 거머쥔

Nevada#51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펼쳐진다.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하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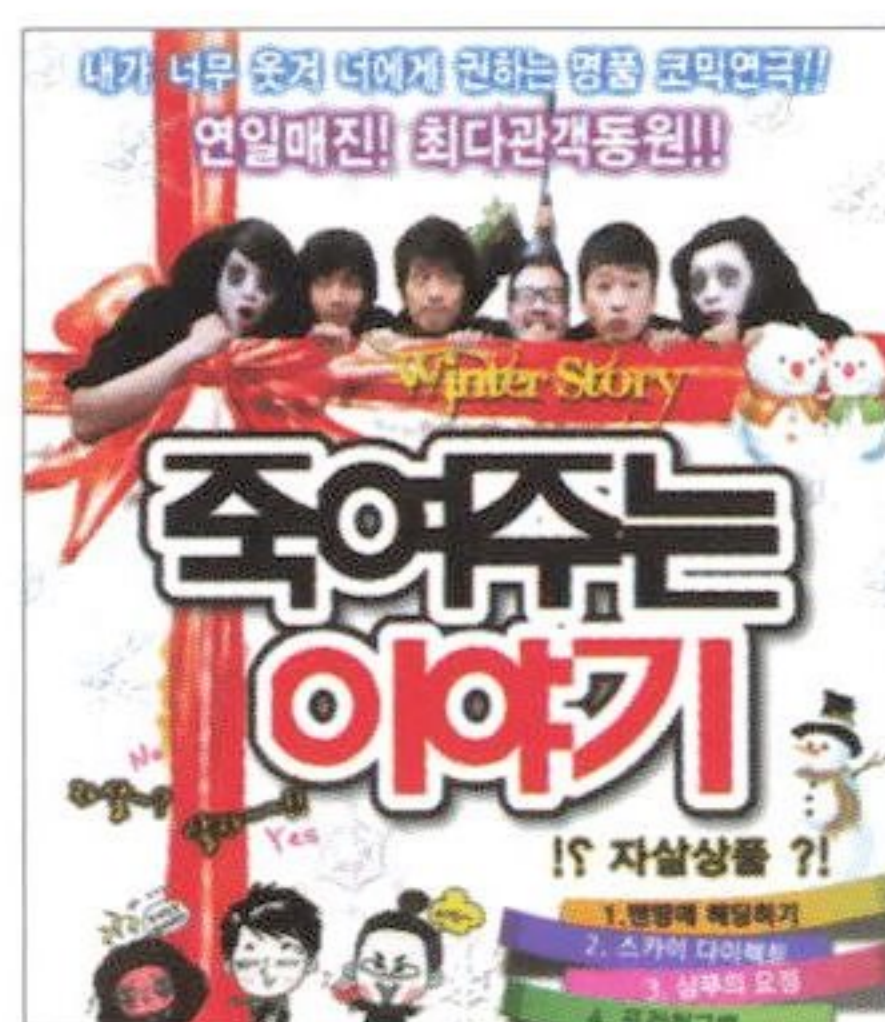
2월 28일(월)-3월 3일(목) 오후 8:00  
(3월 1일 오후 3:00, 7:00) »» 가마골소극장

'이윤택 연기훈련'을 받기위해 일본에서 들어온 9명의 일본배우들이 선보이는 장 주네의 대표작 '하녀들'. 일본어로 공연되고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3월 2일(수)-4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자살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연극적 상상에서 출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지는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 햄릿머신

3월 4일(금) 오후 8:00, 3월 5일(토) 오후 3:00, 7:00  
3월 6일(일) 오후 3:00 »» 가마골소극장

브레히트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는 칭송을 받는 하이네 뮐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잔혹한 실험극

으로 각색한 연극 '햄릿머신'.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아르투로우이의 출세

3월 9일(수)-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해외연출가전 두번째 무대로, 독일 연출가 알렉시스 부크 특유의 사회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작품.

• 출연/이승헌, 오동식, 홍민수, 조승희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중 · 고생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어떤 싸움의 기록

3월 9일(수)-26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 열린소극장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성찰한 작품으로, 세상을 폭력과 비폭력으로 이분하는 것이 아닌 어떤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린 실험극 '어떤 싸움의 기록'.

• 작, 연출/구현철  
• 출연/최웅, 허종오, 하현관, 이효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 러브러브 베베

3월 11일(금)-5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소극장



'제멋대로 공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말하는 병적인 증상'을 뜻하는 '공화증'을 소재로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 작/구보경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유정은, 박규남, 박진수, 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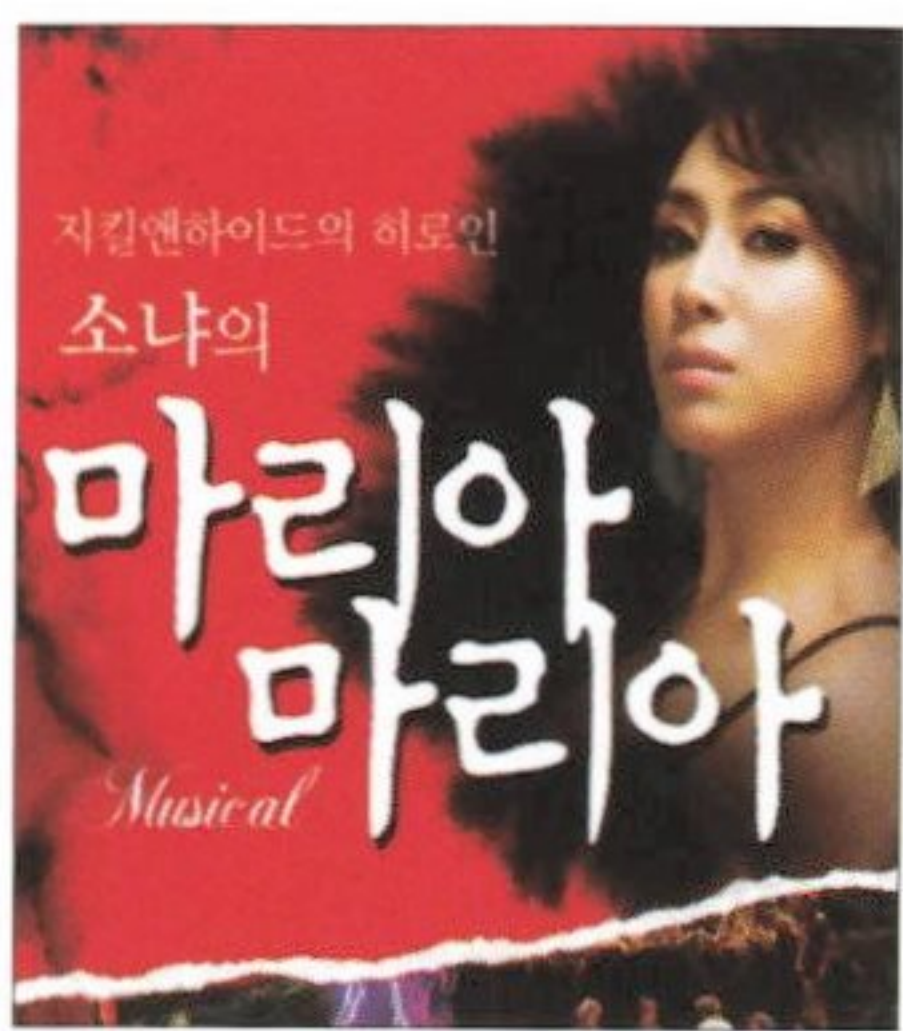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 뮤지컬 '소냐의 마리아 마리아'

3월 12일(토) 오후 3:00, 6:30/13일(일) 오후 2:00, 5: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수를 유혹해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창녀 마리아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음악과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재창조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았던 뮤지컬 최고의 디바 소냐가 3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의 (주)WSM(1600-1716)

### 보잉보잉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5:00, 8:00, 1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미모의 스튜디오 세 명과 사귀는 바람둥이 남자주인공의 이슬이슬 연애줄다리기 코미극.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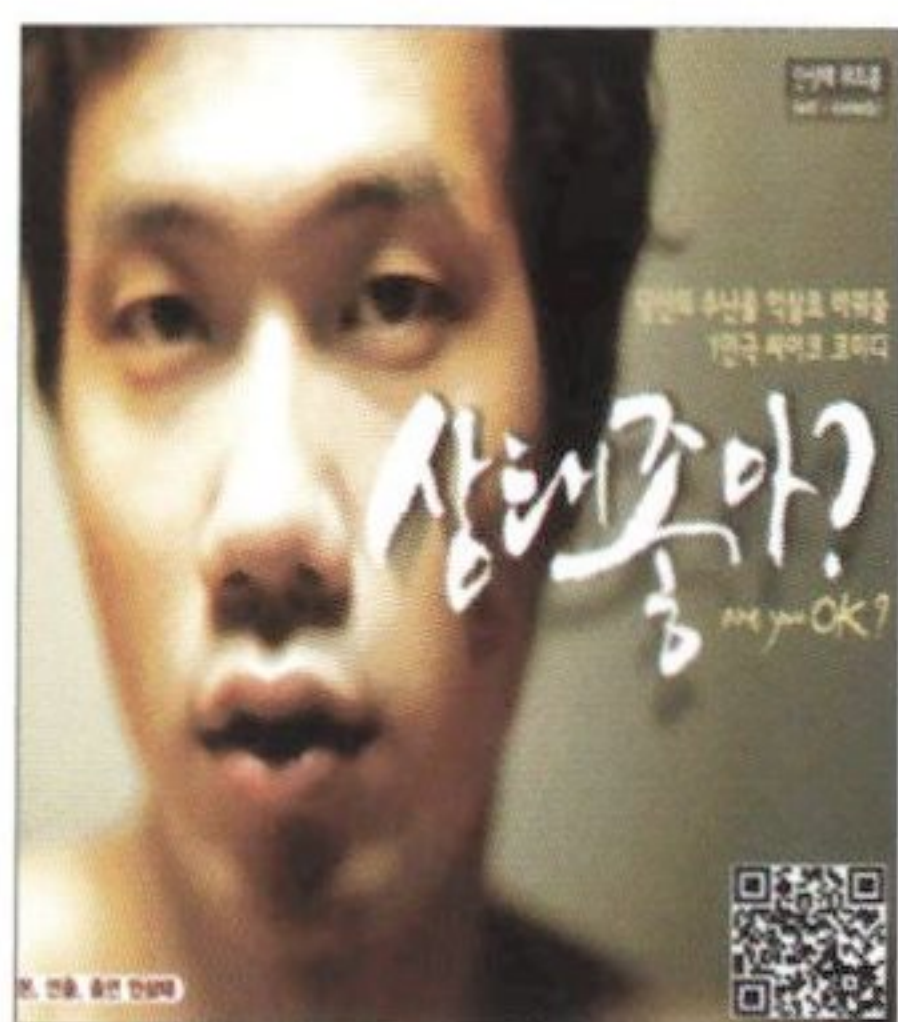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인극 싸이코 드라마 상태좋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TV 개그콘서트에서 캐릭터 안어빙, 안상순, 안상태기자로 사랑 받았던 개그맨 안상태가 선보이는 1인극 싸이코 코미디극.

정신과 전문의 안상태가 네명의 정신질환 환자를 통해 말하는 익살스런 처방극이 관객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준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레드펄킨(070-4136-2131)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예술 전위 '용띠위에 개띠'

3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 시민회관 소극장

76년생 용띠 나용두와 82년생 개띠 지견숙, 내기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과 삶은 결혼생활 내내 내기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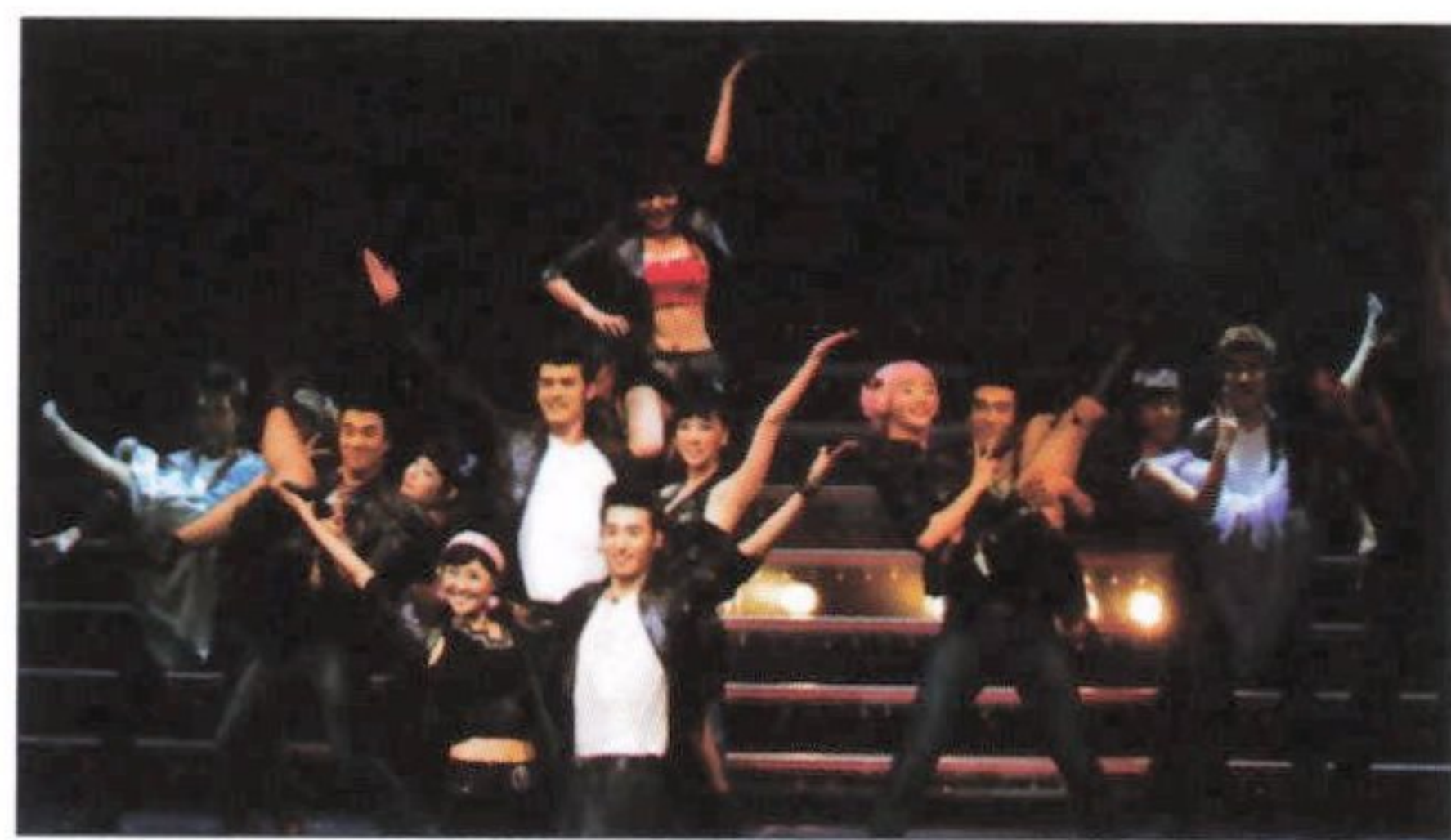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김진욱, 이민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 뮤지컬 그리스 부산앵콜공연

3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7일 일요일 오후 2:00 >>> 시민회관 대극장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만한 10대의 사랑과 우정을 진솔하게 그려낸 뮤지컬 '그리스' 앵콜무대.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와 역동적이면서도

www.piano123.co.kr

### 조율사 강규찬

H.P 017. 556. 9410

- > 산업기사 (국가공인 1급 조율사)
- > 일본야마하 기술학교 그랜드피아노 부문 디플롬
- > 러시아 조율협회 그랜드피아노 수리부문 디플롬
- > 스타인웨이 리빌더 수회연수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화려한 안무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B석 40,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어린이 감성음악극 뭉치의 음악여행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00, 12:20, 2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29일 화요일 오전 11:00, 30일 수요일 오전 10:10, 11:2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31일 목요일 오전 10:00, 11:20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 **영도문화예술회관**



소용돌이에 휩쓸려 음악나라에 떨어지게 된 북극곰 뭉치의 즐거운 음악여행이 다채로운 악기의 라이브 연주와 동요부르기와 함께 펼쳐지는 감성음악극.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서툰사람들

3월 25일(금)-4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초보도둑과 여교사와의 하룻밤 헤프닝을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선보이는 가마골소극장의 대표 흥행레퍼토리 '서툰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중 · 고생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구름빵 동요콘서트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월 2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날아 친구들과 이웃을 돕는 흥비, 흥시 남매의 일상을 따뜻하게 풀어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을 신나는 동요콘서트로 만나는 무대.

• 원작/백희나 • 극본/최은이  
• 연출/이재진 • 작곡/김성균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상사화'

3월 28일-29일 월-화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탈춤을 바탕으로 춤과 노래, 연주가 함께하는 현대 판 마당극 '상사화'.  
꽃이 피면 잎이 지고, 잎이 피면 꽃이 지는 상사화처럼 이 시대 가장들에게 돈과 사랑,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음을 경고한다.  
• 작, 연출/김익현  
• 출연/백정임, 차일환, 박준화, 김민성, 박기범, 신다솜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 이덕인의 어린이를 위한 국악뮤지컬 제 4탄 우당탕탕 똥고집전

3월 30일-31일 수-목요일 오전 10:10, 11:2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판소리, 풍물, 탈춤, 인형극, 그림자극 등 전통연희로 풀어낸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극.

• 작, 연출, 작창/이덕인 • 작곡/박선영  
• 안무/박준하  
• 출연/김현진, 이나리, 김윤희, 박아름, 정진영, 정부섬  
:: **관람료** 균일 15,000원  
(20인이상 단체 8,000원)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극단 일터 뮤지컬 '너, 붉은사랑'

3월 30일(수)-4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일터소극장**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여성 작가 강영애의 소설 '인간문제'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너, 붉은 사랑'.



- 연출/김기영
- 작곡/김미원 • 안무/손영성
- 출연/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령순, 오다윤, 신현우, 임선미, 김주원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초등생 10,000원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한새벌 '선택'

3월 31일-4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광해군 시절, 명과 청나라 사이 실리와 명분이라는 외교정책의 희생양이었던 강홍립 장군의 비극적 삶을 그린 역사극.

- 작, 연출/이철우
- 출연/주용욱, 나종기, 곽상국, 황용대 윤미숙, 황인엽, 하승호, 최재영, 김민수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 2011 제 2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자유바다 '돌고 돌아 가는 길'

4월 3일-4일 일-월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근거지였던 일원산에서 발견된 비석을 통해 그 당시 반란의 괴수와 현감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했던 두 젊은이의 운명적 만남과 인생행로를 그린 작품.

- 작, 연출/정경환
- 출연/김상훈, 강혜란, 박지영, 이동희, 양성우, 송민정, 권혁철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 DANCE

### 신예담의 춤 '心花興'

3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영남교방청춤 보존회 영남지회 감사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특별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신예담의 전통춤.

신예담은 진해국악대전 무용부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영남승무, 영남교방수건춤, 영남교방청춤, 영남선비춤, 진주교방궁거리춤, 영남북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신예담 (011-9924-9561, 010-5473-3241)

### 2011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문화 춤 릴레이

3월 27일 일요일 오후 3:30 >>> 용두산공원 상설무대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시민 문화 춤 릴레이.

::일정

3/27(일) 오후 3:30 용두산공원 상설무대 -일반(청소년)팀

4/10(일) 오후 3:30 서면지하철 상설무대 -대학동아리팀

4/24(일) 오후 3:30 광안리해변 상설무대 -장애인팀

5/1(일) 오후 3:30 해운대해변 상설무대 -실버팀

5/7(토) 오후 3:30 해운대해변 상설무대 -힙합(배틀)

• 참가신청/3월 7일(월) 오후 5:00까지

::문 의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사무국 (890-2507)

## CINEMA

### 시네마테크 부산 예술영화의 향기

3월 1일(화)-17일(목) >>>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일정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휴관)

음악과 문학, 로맨스가 함께하는 특별상영전. 슈만과 브람스가 사랑한 여인 '클라라'를 그린 영화 '클라라'와 톨스토이의 위대한 삶과 사랑을 담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2010년 아카데미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엘 시크레토:비밀의 눈동자', 세련되고 감각적인 에로틱 멜로드라마 '사랑하고 싶은 시간' 등 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8

3월 18일(금)-4월 24일(일) >>>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일정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휴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선구자로 전후 세계영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장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프리츠 랑, 테렌스 피셔, 안제이 바이다, 프랑수아 트뤼포 등 세계영화사를 수놓은 위대한 감독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EVENT

### 제 100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3월 2일 수요일 오후 7:00 >>> 문화사랑방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초대시인 오탁번의 '나의 시 이야기' 강연과 초대 시인 김지현, 박수현, 윤영숙의 시낭송, 테너 박광하, 색소포니스트 김찬식의 축하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는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100회 무대.

• 사회/한창옥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예강(010-5516-1867)

## CONCERT

### 사이의 소극장스탠드 10주년 한정판

3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7:00

>>>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김장훈 Letter to 김현식 with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 KBS부산홀

故 김현식 20주기를 맞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한정앨범 '레터 투 김현식'을 발표했던 김장훈이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 **관람료** R석 132,000원 · S석 110,000원

A석 99,000원 · B석 77,000원

C석 66,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EXHIBIT

### 황나현 '하늘 정원'展

2월 9일(수)~3월 6일(일) >>> 갤러리 이배

:: **문의** 갤러리 이배(746-2111)

### 오픈스페이스 배 'Are you ready?'

박흥순, 이인미, 이동문 3인전

2월 12일(토)~3월 12일(토) >>> 오픈스페이스 배

:: **관람시간** 오전 11:00~오후 6:00(월요일 휴관)

::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유미연

'내 이름으로 부터 시작된 정원'展

2월 16일(수)~3월 20일(일) >>> 롯데갤러리 광복점



:: **관람시간** 오전 10:30~오후 8:00

::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1~2)

### 이동국 개인전

'on one's Travels'

2월 25일(금)~3월 3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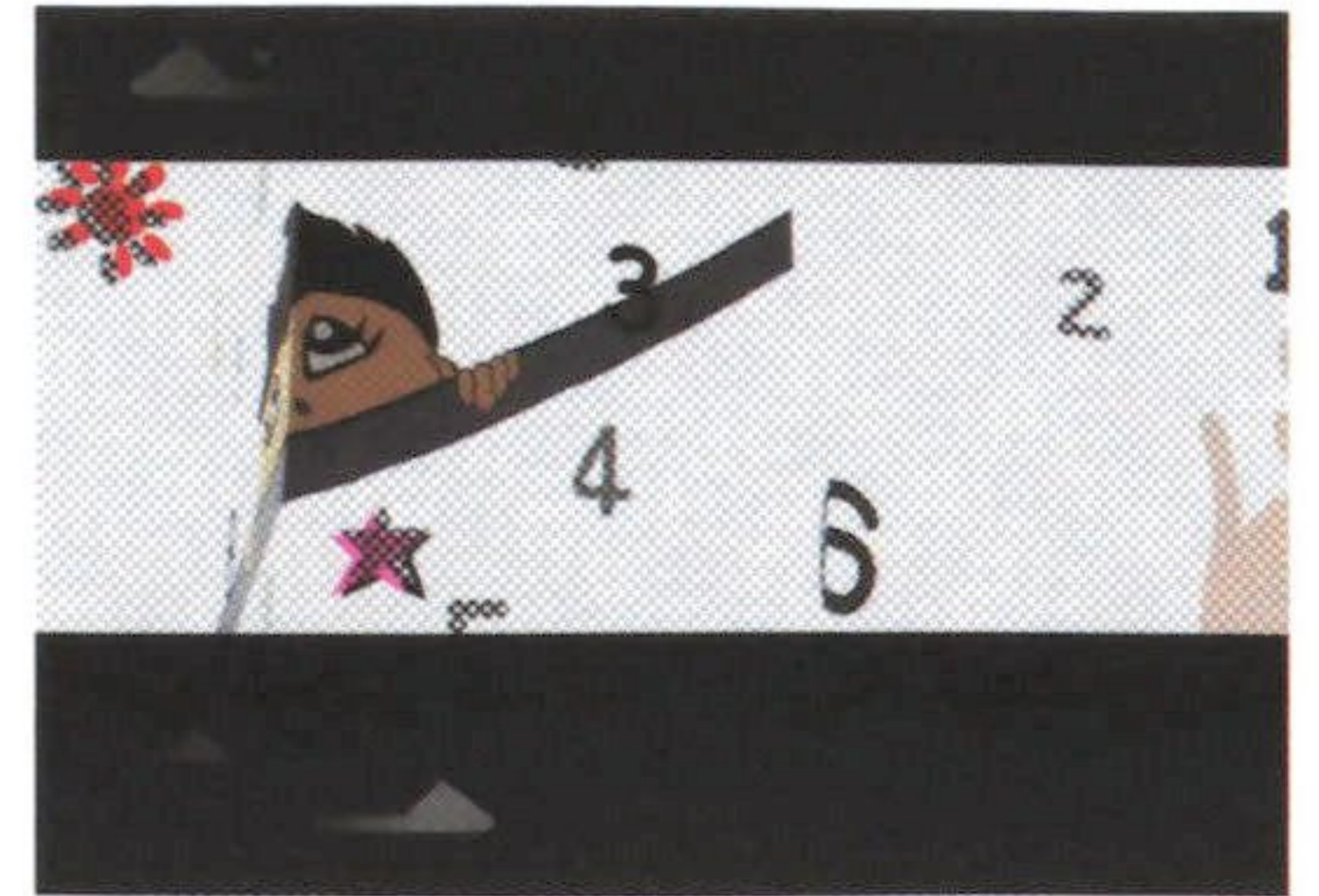


::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 프레임 2011

김혜진, 김광민, 김찬수

3월 2일(수)~3월 7일(월) >>> 갤러리 예가



김찬수 작 '아이가 말한다'

::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 김재선갤러리 개관 12주년 기념 특별기획

'러시아 현대미술 : 8인의 작가들'

3월 4일(금)~3월 31일(목) >>> 김재선갤러리 부산



Vladmir Serov 작 'Cloudy day'

우리에게 익숙한 연해주지역의 우스리스크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 8인의 작품들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러시아 현대미술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 **문의** 김재선갤러리 부산(731-5438)

### 티에리 피즈展

3월 10일(목)~4월 10일(일) >>> 조현화랑 부산

:: **문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 권태균 사진전 '침묵하는 돌'

3월 12일(토)~5월 15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0)





## 우리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는 음악... 共鳴 '통해야'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언제부터인가 '퓨전(fusion)', '하이브리드(hybrid)', '크로스오버(cross-over)'라는 용어가 모든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음식이 혼합된 퓨전요리가 인기 메뉴가 되었으며 클래식과 재즈, 국악과 양악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뮤직이 어느덧 음악 장르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 매니아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음악 애호가들 중 우리의 국악을 좋아하는 장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초·중·고교 음악 교과서에도 국악보다는 서양음악이 더 많이 소개되어 있고 전문 음악방송에서도 국악은 체면치레만 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서양음악과 우리의 전통음악을 각각 '음악과'와 '국악과'에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음악을 '음악과'에서 다루고 '서양음악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래식음악'이라고 하면 서양음악을 생각하지 우리의 음악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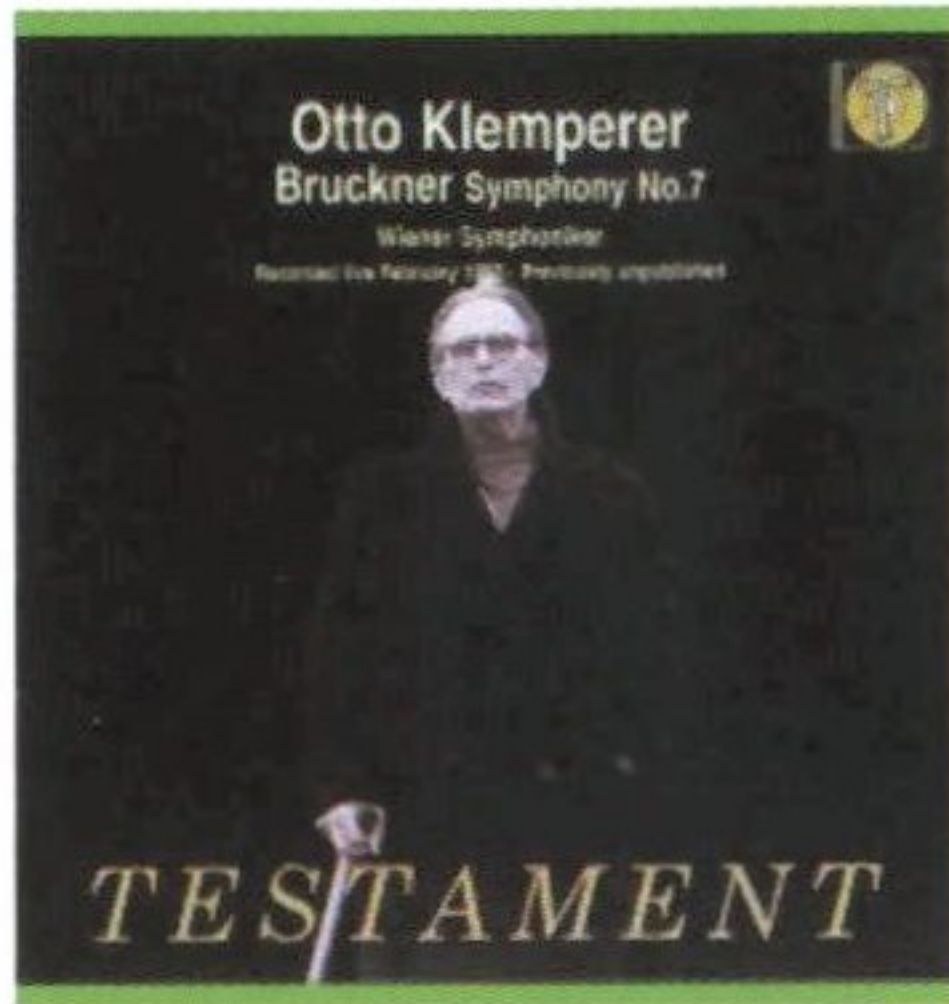
전세계의 최신 트렌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우리의 국악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분들의 노력 덕택에 지금 정도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사물놀이나 국악가요, 그리고 국악기로 연주되는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접하게 하는 것도 국악에 보다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전통이 훼손되고 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품위있고 정겹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음악이 서양음악보다 수준낮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말자! 전통음악을 전공한 네 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1997년에 결성된 '공명(共鳴)'이라는 그룹이 있다. 이들 단체의 이름은 그들이 직접 제작한 대나무 악기 이름이기도 하다. '공명'은 한국 고유의 서정성과 리듬을 국악기에 편중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30여가지가 되는 타악기와 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배합하여 한국 음악의 다양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데뷔 이후 수많은 해외 페스티벌과 아트마켓 등에서 초청받아 색다른 음악세계와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퍼포먼스를 펼쳐 호평을 받아왔다. 그들의 이름 앞에 '퓨전타악그룹' 혹은 '창작타악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 콘서트 무대 뿐만 아니라 연극, 뮤

지컬, 무용,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음악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1년에 발매된 첫 번째 앨범인 '통해야'는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는 네 명의 연주자들 자켓사진에서 그들의 포부와 역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반에 수록된 곡은 저마다 매력적인 선율로 가득하며 전통악기와 새로운 악기소리, 멤버간의 재미있는 대화와 효과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들의 진가는 공연실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그들의 공연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청중들을 공연과 하나되게 만드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절로 어깨가 들썩일 정도였다. 2집 앨범 '어느 날 목이 긴 기린의 꿈을 꾸다'와 3집 앨범 'Deep Sea', 그리고 10주년 기념 앨범 '10th Anniversary Live'에서는 보다 진화된 공명을 만날 수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1집과 2집 앨범은 이미 절판되었고 멤버의 교체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다시 발매될 계획도 불확실하여 많은 팬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그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앨범을 통하여 그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많은 애호가들을 위하여 다시 앨범들이 발매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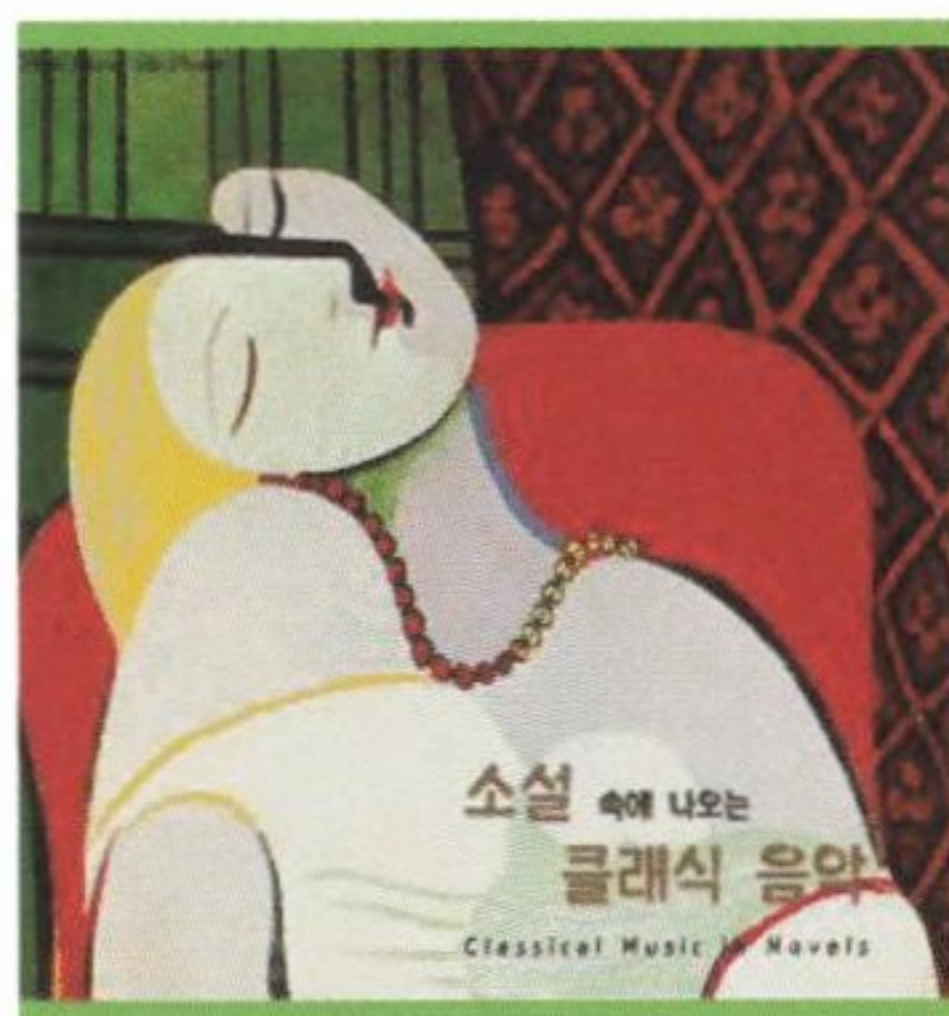




## 오토 클렘페러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

▶ 오토 클렘페러 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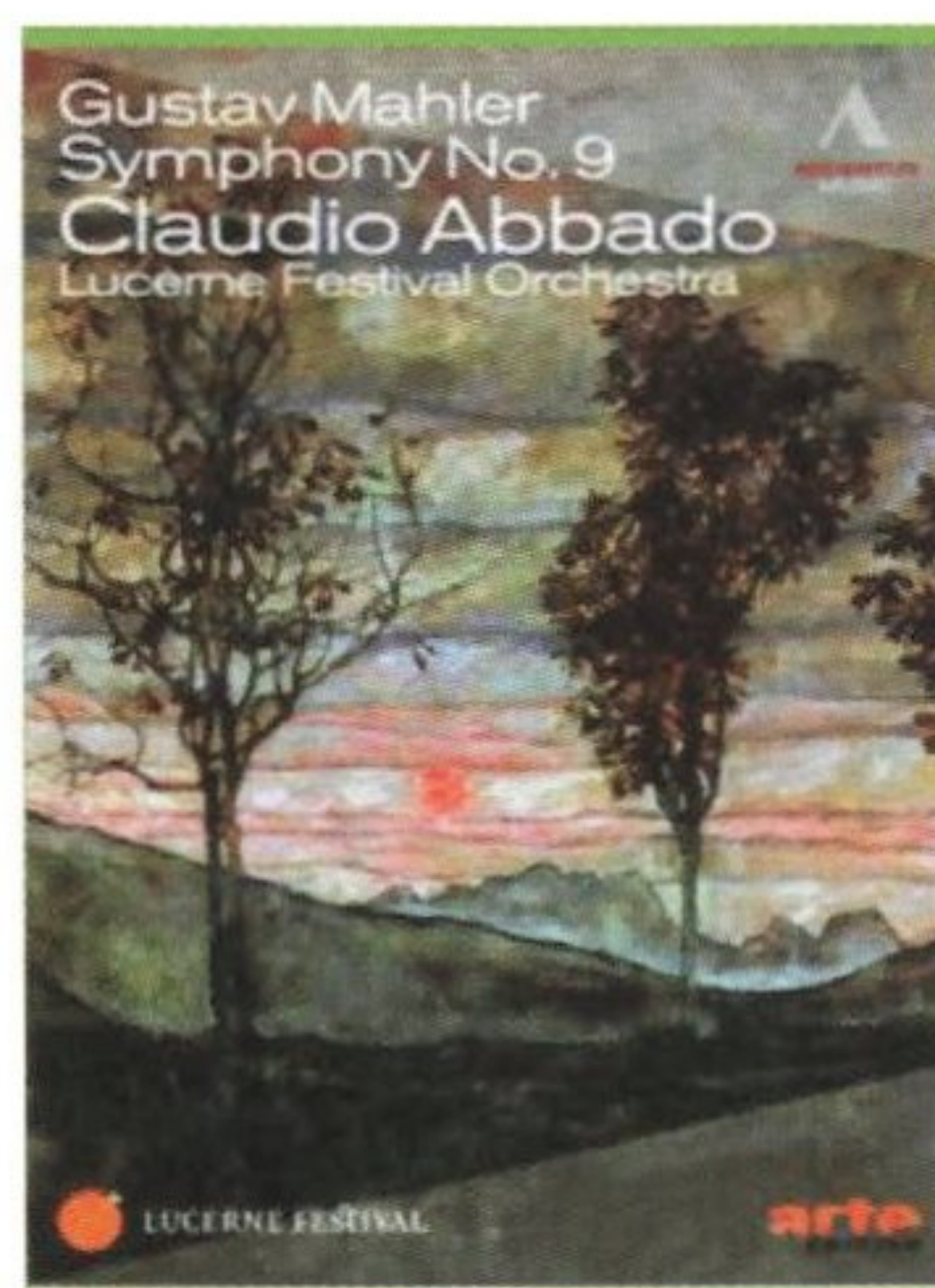
거장 오토 클렘페러가 1958년 2월 26일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은 매우 소중한 기록으로, 이제 처음으로 음반화 되었다. 클렘페러는 베토벤 <에로이카>, 말러 교향곡 2번과 더불어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특히나 좋아해서 1921년에 처음 지휘한 이래 처음 접하는 청중 혹은 브루크너에 익숙하지 않은 독일 바깥에서도 이 곡을 즐겨 연주했다. 이 실황음반은 청중이나 비평가들이 브루크너를 좋아하지 않을 때도 끈기 있게 음악의 가치를 알렸던 그의 애정이 녹아 있는 연주이다. 스튜디오 녹음에 비해서 음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악곡 전체에 더욱 활력이 넘치며, 중후한 건축미와 깊이 있는 해석은 여전히 감동을 준다.



## 소설 속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 부제 : 무라카미 하루키와 음악과의 만남

세계 최고의 일본 작가이자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 클래식 음악들을 모은 앨범이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일컬어지는 화제작 <1Q84>를 중심으로 <1973년의 핀볼>, <해변의 카프카>, <태엽 감는 새>, <상실의 시대>에 소개된 클래식 곡을 2CD에 담았다. 추가 증정 보너스 CD에는 <트와일라잇>, <스타시카>, <홀리가든>, <절규성 살인사건>, <피아니스트>,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크로이체르 소나타>, <어둠의 속도>, <시계태엽 오렌지> 등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유명 소설 속 클래식 명곡들로 감동을 선사한다. (Denon Class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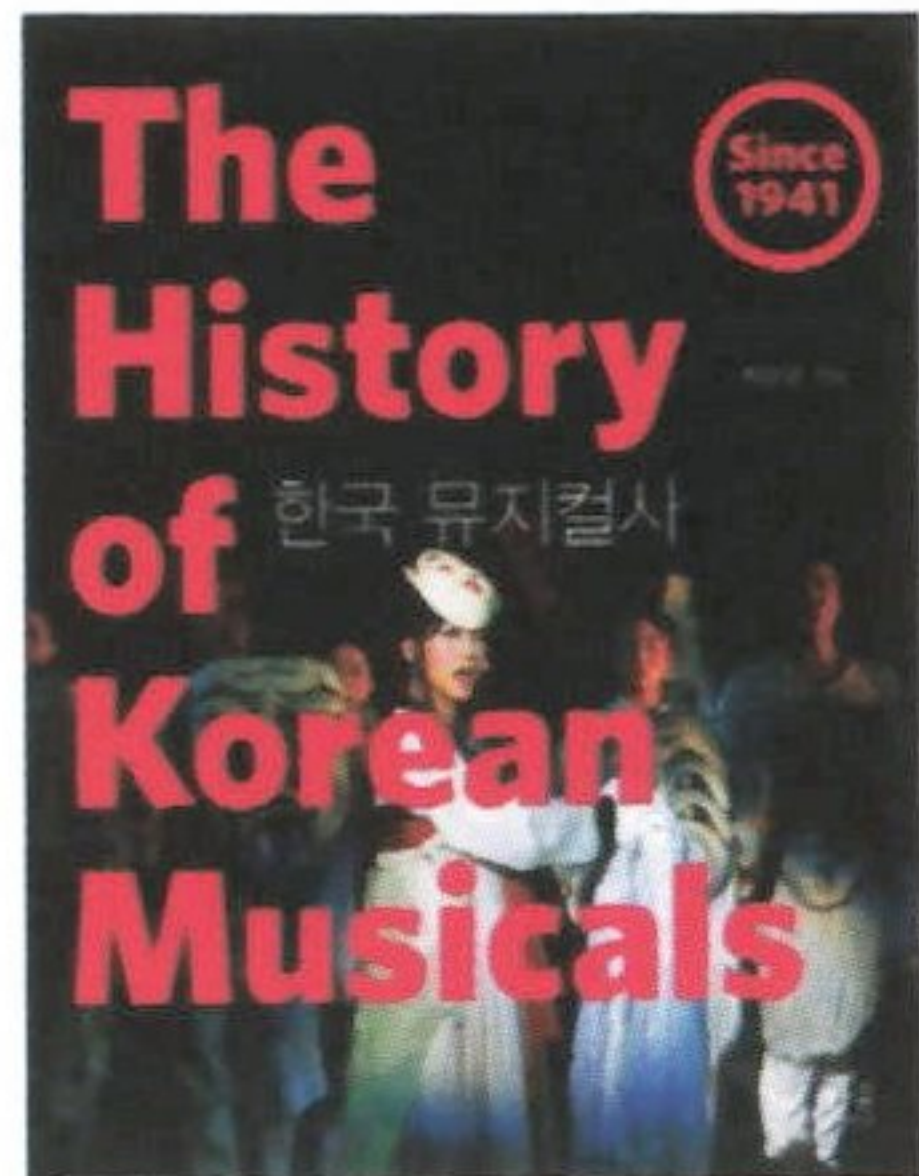


## 클라우디오 아바도 말러 교향곡 9번

▶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노거장의 손끝으로 정성껏 빚어낸 감동의 말러 교향곡 9번. 말러 애호가들이 학수고대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바도가 로마에서 말러 유겐트오케스터를 지휘했던 2004년의 동곡 실황도 호평을 받긴 했지만, 많은 아바도의 팬들과 말러리안들은 이 시대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포함된 명실상부한 슈퍼올스타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이 감동적인 말러의 마지막 완성작을 감상하길 소망했을 것이다. 2010년 8월 루체른 KKL에서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본 영상물은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아바도의 얼굴과 손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며, 이 시대 최고의 관악 테크니션들이 정성껏 빚어낸 투명한 텍스처와 정교한 초절기교는 이 걸작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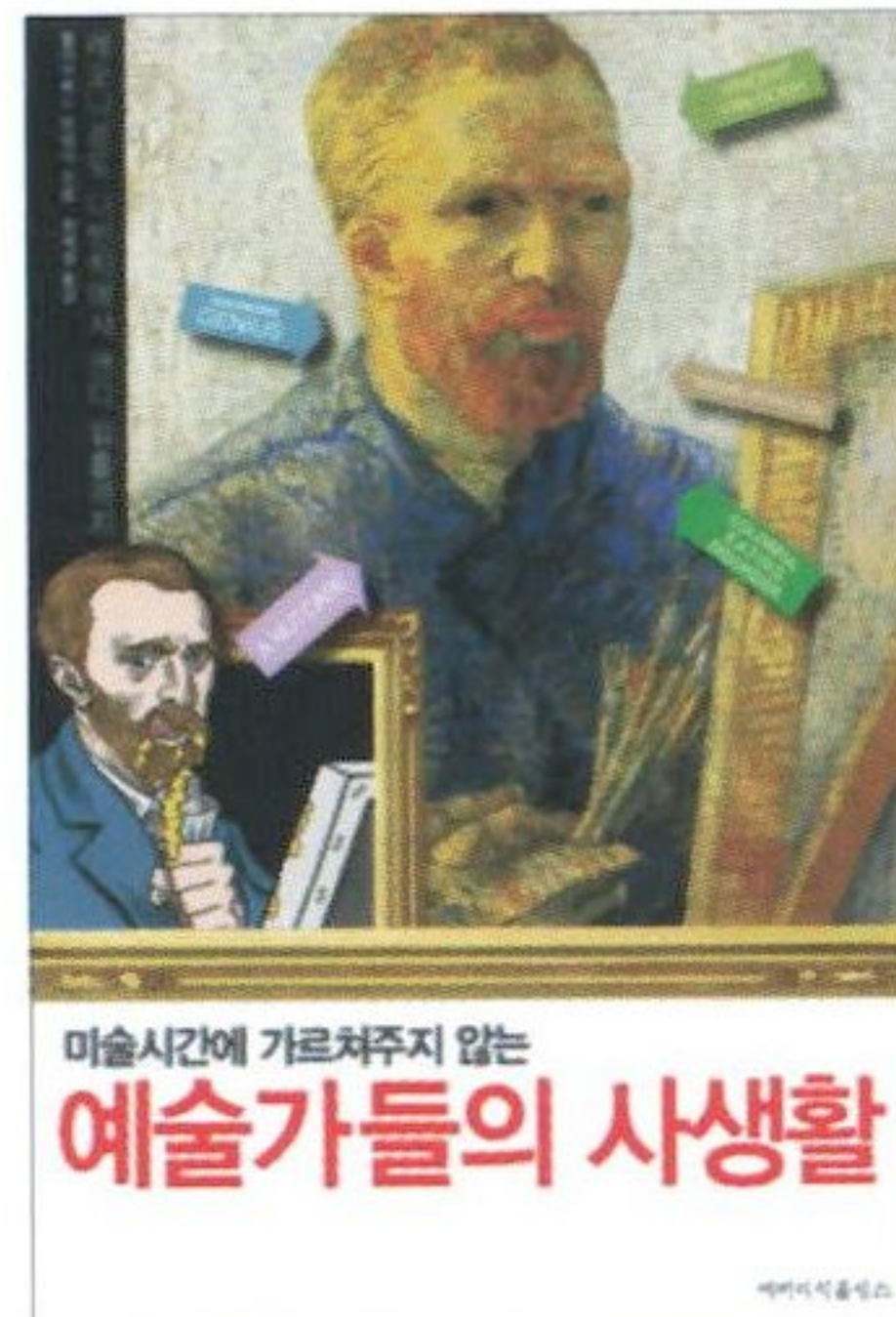




## 한국 뮤지컬사

박만규 지음 / 한울 / 1,003p /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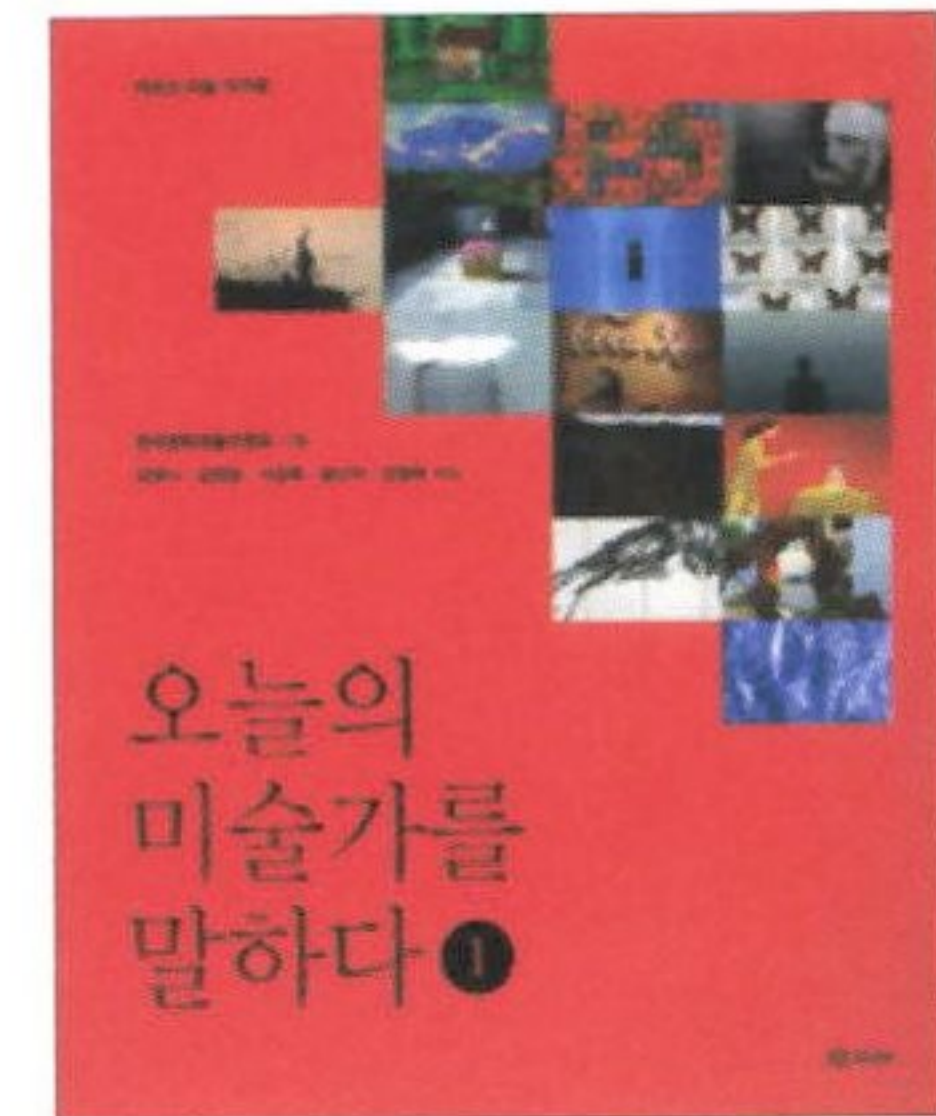
전 서울시립가무단 박만규 단장이 한국 뮤지컬 70년사를 10여 년간에 걸쳐 집필했다. 저자는 뮤지컬을 '꿈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거칠고 살벌한 말씨를 정감이 넘치는 대사로 엮고 아름다운 시로 다듬어 감미로운 노래로 승화시키고, 경직되고 아무렇게나 사납게 내던졌던 몸에 매혹적인 울동을 붙여 인간이 지닌 미적 구조를 최대한 유연하고 활력이 넘치는 무용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뮤지컬이 제작되고 공연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섭렵한 많은 자료와 관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한국 뮤지컬이 걸어온 길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한국 뮤지컬이 일구어온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국내 극단 활동은 물론, 연출가이자 뮤지컬 극본을 써온 작가로서 현장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전반과 해외 뮤지컬 현황, 최근 뮤지컬까지 기록하여 국내외 뮤지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실용적인 공연 입문서가, 뮤지컬 관객과 관계자에게는 뮤지컬 백과사전이, 뮤지컬에 깊은 관심을 지닌 마니아들이나 뮤지컬에 흥미를 느끼는 일반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 미술시간에 가르쳐주지 않는 예술가들의 사생활

엘리자베스 런데이 지음 / 에버리치출판사  
/ 432p / 15,800원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글을 쓰는 엘리자베스 런데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앤디 워홀까지, 괴짜 예술가 35인에 관한 엉뚱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저자는 위대한 예술은 도전적이고 추잡하고 대립적이며 공격적일 수 있지만, 아름답고 계몽적이고 즐거우며 우리를 위로해줄 수도 있다고 믿으며,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벽과 어리석음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예술가들의 사생활들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2006년 소더비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인 1억 4000만 달러에 낙찰된 잭슨 폴록의 〈No. 5, 1948〉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며, 오늘날 폴록은 '액션 페인팅'을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액션 페인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족한 회화 실력 탓이었다. 모든 예술가들이 다 고통스럽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최고의 화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살았고,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예술가들이 견뎌낸 시련과 상처를 아는 것은 그들의 성공과 혼란스러운 작품 스타일을 해석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전 3권)

김영호 외 지음 / 학고재 / 329p내외 /  
각 35,0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현대시각 예술 작가론의 비평 활성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폭넓은 연배의 미술평론가 23명이 참여하여 한국현대미술사를 그려가는 미술가 49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미술계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미술현장의 발전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미술가들에 대한 정보나 이론적 뒷받침은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 현대미술사에 남을 미술가들을 알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전문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작업의 결과물이다. 1945년 이후 태어난 미술작가 중 현재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현 지점을 다각도로 잘 보여주는 작가 49명을 선정하고,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대의 평론가 23명이 각각 1~3명의 작가에 대한 평론을 썼다. 평론가 23명 역시 한국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로,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평론가가 연결됐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국내외의 전시를 통해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3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풍성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3월에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3월 1일 내사랑 부산공연 '3·1절 기념식'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복지관을 순회 개최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공연, 꿈나무를 위한 공연 등 16개 행사가 펼쳐진다.

### 일정

3월 1일(화) 10:00	내사랑 부산공연 '3·1절 기념식'	부산시민회관(출연/합창단)
3월 2일(수) 14: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2일(수) 20:00	고신대학교 신입생들과 함께	아르피나(출연/합창단)
3월 3일(목) 10:4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학장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3일(목) 15: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3일(목) 16:00	부산도시가스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공연	부산도시가스 대강당(출연/합창단)
3월 4일(금) 10:3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동원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7일(목) 10: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금곡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7일(목) 14: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반송 LH아파트 주민들과'	운봉복지관(출연/교향악단)
3월 9일(수) 12:30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시청 로비(출연/국악관현악단)
3월 10일(목) 15:00	내사랑 부산 운동 추진협의회 공연	시청 대회의실(출연/교향악단)
3월 11일(목) 15: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부산노인전문 제 2병원(출연/무용단)
3월 12일(토) 15:00	꿈나무를 위한 공연 '구포도서관 어린이들과'	구포도서관(출연/국악관현악단)
3월 16일(수) 14:00	녹산농심 근로자와 함께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공연	녹산농심공장(출연/합창단)
3월 23일(수) 12:30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시청 로비(출연/합창단)
3월 29일(수) 16:00	내사랑 부산 공연 '남구문화원 공연'	남구문화원(출연/무용단)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 공연장 운영, 관리, 관객 서비스 확대 위한 부산문화회관 전문 하우스 매니저 채용

2010년 대극장 리모델링으로 현대적인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부산문화회관이 공연장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해 전문 계약직 공무원 하우스 매니저를 공개 채용, 보다 수준 높은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실시된 계약직 공무원 공채 결과 박아람과 하운화가 하우스 매니저로 합격, 3월중 공연장 운영, 관리 및 공연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뉴욕 Hunter College에서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박아람은 뉴욕 현대 미술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하운화는 금정문화회관 하우스 매니저로 실무 경험을 익혔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공채로 하우스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여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이미지를 높이고 관람객이 감동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공연장으로 변모했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5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 공연일시 및 장소: 2011. 4. 21(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공연장
- 모집대상: 전국 중,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중인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곡목: 협주곡(자유곡) 1곡
- 모집부문: 전파트 [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생황, 비파, 양금]
- 모집인원: 6명 이내
- 전형일자: 2011. 3. 21(월) 10:00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09:0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추첨)
- 전형장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1. 3. 9(수)-3. 17(목) 17:00  
※우편접수는 2011. 3. 17(목) 13: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학교장(학과장) 추천서 1부, 협연곡(자유곡) 악보 7부, 본인 프로필 1부, 사진 1매
- 접수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내)
- 합격자 발표: 2011. 3. 23(수)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607-3121~4)



**마스크 플레이 가족뮤지컬 '피터팬'**

질투심이 많지만 빛으로 존재하는 틱커벨, 피터팬의 용기, 웬디의 따스함이 합쳐지면 후크 선장과 스미의 계략에도 웃어 줄 수가 있다. 어른 머리 크기 4~6배의 인형 탈을 쓰고도 휘휘 날아다니고, 나풀나풀 춤을 추고, 찌렁찌렁 노래를 한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이가 피터팬 뿐이 아닐 텐데, 이제 나도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미안해 하고, 고마워 하고, 배려도 하니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네버랜드에 올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웬디에게 피터가 남긴 한 마디... “네버랜드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너가 꿈을 잃지 않는다면...”.

-이은숙(해운대구 좌동)

**재즈, 와인에 빠지다**

세 명의 프렌치 꽃미남 트리오 속에서 완전 리드미컬한 금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 각 악기가 충분히 제 몫을 하며 또 다른 하모니를 만들어 냅니다. Insomnia 불면증 - 무대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 까칠한 밤을, Schedule - 무대에서는 빠듯한 일정이 절로 느껴집니다. 공연 전후로 와인과 함께 하니 다소 낯설지만 기분 좋은 파티 문화에 한발 다가간 듯도 합니다.

-이미경(동래구 온천2동)

**감성음악극 '존 레논을 위하여'**

팝을 아는 나이 누구나 한번쯤은 존 레논에 열광한다. 처음 공연 제목을 접했을 때 존 레논을 추모하는 콘서트인줄 알았다. 배우들의 연기와 감미로운 노래를 보고 들으면서 비틀즈의 일원이자 사랑을 찾아 나섰던, 또 평화주의자였던 존 레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 작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보고 싶다.

-김미정(금정구 장전동)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포스터가 재미있어 극장으로 향했다. 도대체 자살이 상품이라니, 죽여준다니... 자살을 비웃음으로 그려낸 죽여주는 이야기는 촌철살인의 위트와 풍자로 유쾌한 웃음을 준다. 자살이라는 소재로 웃기려는 연극,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려하지만 결국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게 된다.

-최정인(사하구 당리동)

**겨울방학의 추억 '매직아트'**

여름, 겨울 방학만 되면 뭔가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 나선다. 올해 처음 매직 아트를 만났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다른 전시들이 열려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다. 근엄하게 서있는, 우아하게 미소 짓는 그림속의 주인공들이 시종 일관 우리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이 내겐 또 다른 작품 ^^.

-김연미(연제구 거제3동)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부산시립극단 제40회 정기공연


# 동 28번지, 차숙이네

2010년 동아연극상 수상, 2010년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수상, 2010베스트7



작 연출 최진아



일시 2011. 3. 14(월) ~ 20(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4시, 오후 7시30분 **일요일**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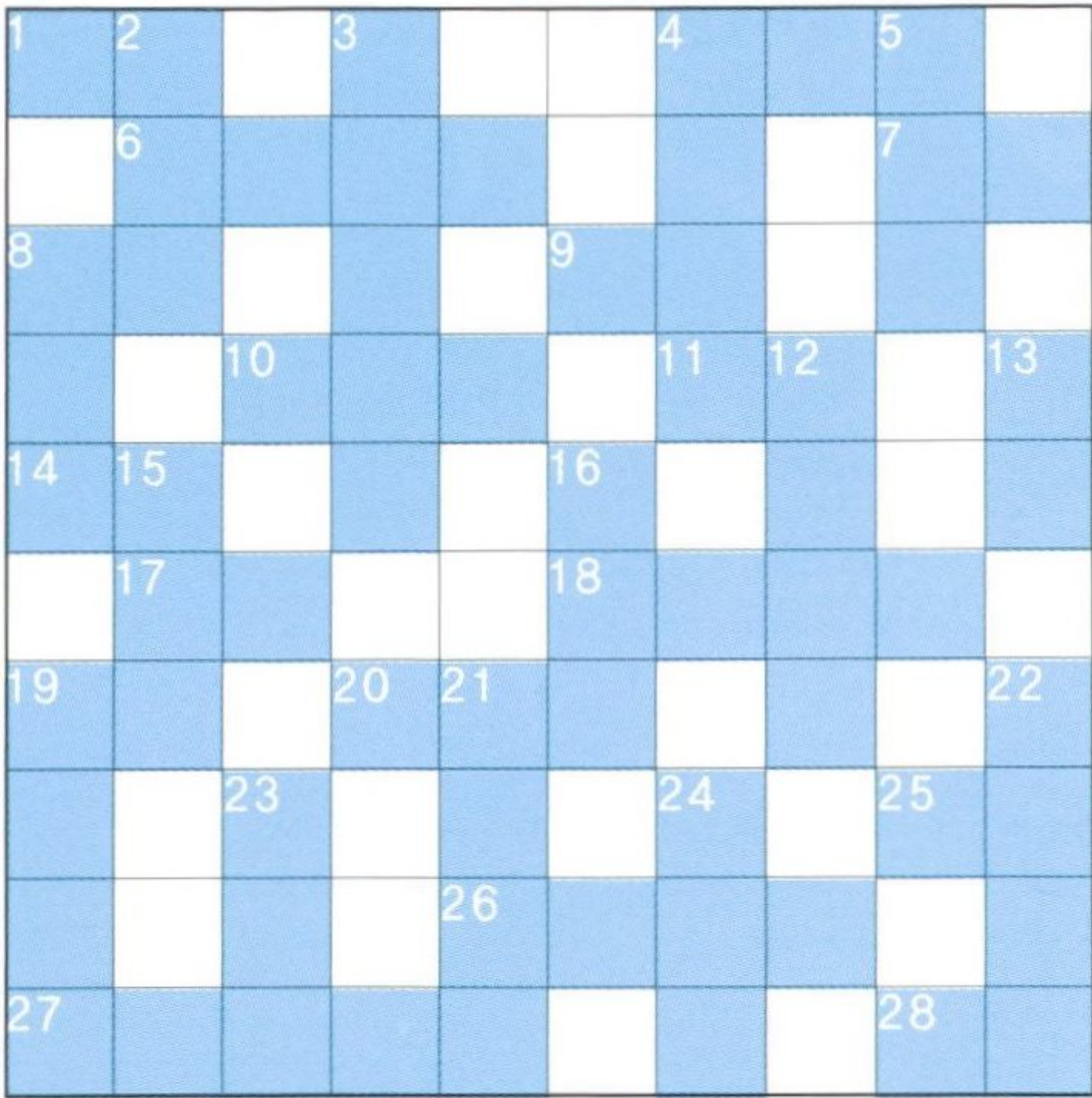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공연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처  부산문화회관  부산은행 전지점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가로열쇠

- 매월 둘째주 금요일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3월 11일 테마여행 5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인 00로 역사기행을 떠난다.
- 낙동강이 운반해온 토사가 하구에 퇴적되어 형성된 섬.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지닌 순 우리말.
- 움직이는 인체를 그린 소묘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화가. 여러 재료를 사용했으나, 무엇보다 파스텔을 좋아했으며, 발레리나들을 묘사한 회화, 드로잉, 청동상으로 유명하다.
-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인간과 고래의 목숨을 건 싸움을 그린 미국의 소설가 H.멜빌의 장편소설.
-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律文)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다.

-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악성(樂聖).
- 하루아침에 추악한 벌레로 변한 주인공의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고립되고 소외된 모습을 그린 독일의 소설가 카프카의 장편소설.
-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 형태의 하나. 느린 장단에 빠른 장단으로 배열된 3~6개 장단 구성의 악장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장구 반주가 따른다.
-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에세이.
- 하와이에서 사용하는, 기타와 비슷한 작은 현악기.
- 미국 텔레비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작품과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상. 00상.
- 후기 바로크시대 기악음악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작곡가 중 한사람으로, 대표작 '사계'가 유명하다.
- 현재 중국령인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고대 도시의 작은 국가. '00의 미녀'라는 별칭을 지닌 동서양의 혼혈 미라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영국의 그레이트브리튼 북부에 있는 지방. 1707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에 병합되었으나, 별개의 자치법으로 통치되고 독자적인 사법제도, 교육제도, 국교회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심 도시는 에든버러.
- 단편소설보다도 짧은 소설. 대개 인생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리는데 유머, 풍자, 기지를 담고 있다. 엽편 소설.

### 세로열쇠

- 국어학자(1876~1914). 호는 한헌생. 조선문동학회(朝鮮文同式會)를 조직하여 한글 기사체의 통일과 연구에 힘썼고,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이 되어 국어학을 중흥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 알리 맥크로우, 라이언 오닐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릭 시걸의 소설.
- 조선 고종 32년(1895)에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
-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통 빠르기의 6박 1장 단으로 구성된 국악 장단의 하나. 또는 그 장단에 맞추어 만든 악곡이나 춤.
- 장백산맥 동쪽에 솟은 우리나라 제일의 산이다. 최고봉인 병사봉에 있는 칼데라호인 천지(天池)에서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松花江)이 시작한다. 높이는 2,744미터.
- 계모와 그 딸들에게 구박을 받던 주인공이 궁중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유리 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동화.
- 지난 1월 22일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의 등단작.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6·25전쟁과 분단 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을 그린 작품.
- 한국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한 스페인의 건축가. 미완성으로 끝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유명하다.
-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마굿간 소년의 괴기적 범죄 실화를 소재로 한 영국 극작가 셰이퍼의 대표적 희곡으로, 현대문명과 기성도덕, 현대인의 절망과 고뇌를 그렸다.
-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원래는 인도 뭍바이의 인기 있는 영화산업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인도 전체의 영화, 영화산업을 가리킨다.
-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구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는 냉혈한 공주가 왕자 카라프의 열렬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푸치니의 3막 오페라.
- '사람과 자연은 원래 한몸'이라는 연설로 감동을 주었던 스퀴미시(Suquamish) 부족의 추장 이름을 딴 미국 워싱턴 주의 도시.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이울곡이 태어난 집. 뜰 안에 오죽이 있어 이 이름을 붙였다.

지난호 정답

악	기	가	족	이	야	기	옥
장	야	반	리	영	희		
해	금	요	가	허	의		
돌	리	이	성	선	설	영	
포	세	이	돈	판	화		
새	터	키	송	례	문		
웅	시	화	호	농	점	자	
지	조	테	너	박	격		
마	하	자	름	광	한	루	
마	지	막	임	새	수		

##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나랏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큰집
윤소희(연제구 거제3동)	김정미(연제구 거제3동)	김지혜(금정구 구서1동)	김대현(중구 보수동1가)
정미란(금정구 금사동)	박선영(부산진구 초읍동)	이미숙(북구 화명3동)	김현영(서구 서대신동2가)
정향기(부산진구 부전동)	손효정(남구 감만2동)	정성희(사상구 모라1동)	박해만(중구 중앙동)
주은서(중구 대청동)	이숙희(해운대구 우1동)	최윤경(사하구 하단동)	전해열(서구 토성동)
천지원(연제구 연산5동)	장은주(양산시 물금읍)	홍성두(양산시 덕계동)	한경혜(연제구 연산5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맛을 곁들여주는

## 나랏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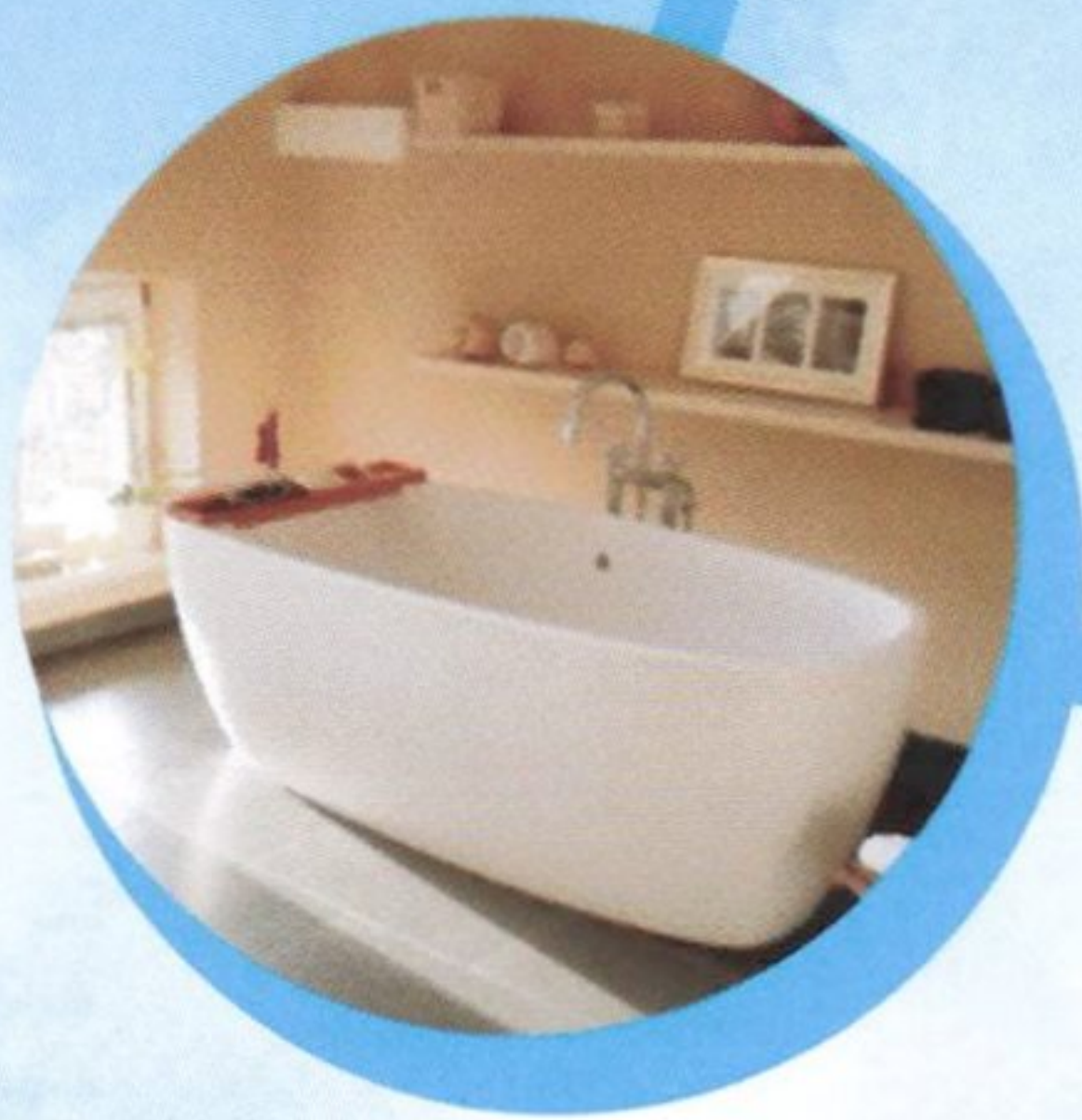
만우 숯불구이 곁들여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엠피온스는 인간과 자연,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03년 설립된 젊은 기업 엠피온스는 인조대리석 및 특수 플라스틱 경화제인 Alkenox P-100과 인조대리석 경화제인 Alkenox TBM, 다양한 유기과산화물을 개발, 생산 국내 및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2011 Yamaha Grand Piano Fair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전문판매점

## 특별 할인 판매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이상 근

### 10대 한정

3월 31일까지

010-3579-0905



모차르트의

# 대관식미사



지위전상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특별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

반주: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 W.A. Mozart Coronation Mass C Major K.317

프로그램

- 창작 합창 · 바닷가에서 - 김성덕 곡 · 할머니의 장맛 - 조한조 곡 · 굴렁쇠 - 박봉렬 곡
- 특별출연 부산베데스다합창단(지휘 박성환) · Radetzky Marsch - J. Strauss · Festival sanctus - J. Leavitt · Kalinka - Russian Folk Song · 아리랑모음곡[밀양 · 진도 · 강원도 · 경기도 · 홀로아리랑] - 이선택 편
- 특별출연 남성중창 · 고향길 - 이동훈 곡 · 이슬맺힌 이 아침에 - 김동현 편 · 얼레플라리 - 박정선 곡
-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독창자: Sop. 장은영, Alto. 강희영, Ten. 김지호, Bass. 김정대 · 반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김추리, 강은태, 김응태, 최춘식, 안재형, 최기호, 최성규, 장용균, 이현성)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Kyrie) · 영광(Gloria) · 사도신경(Credo) · 거룩(Sanctus) · 복있도다(Benedictus) ·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



Sop. 장은영



Alto. 강희영



Ten. 김지호



Bass. 김정대



지휘 박성환  
(부산베데스다합창단지휘자)



부산베데스다합창단

2011. 3. 26 (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균일 2,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다솔사

## 2011년 4월 8일 금요일 사천 봄빛 기행

사천의 봄은 바다 빛부터 다르다. 신라 지증왕 때 범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고찰 다솔사를 시작으로 삼천포대교와 인근의 섬들을 돌아보는 유람선에 올라 사천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난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비봉내 마을, 대숲산책, 다솔사
- 13:00 중식
- 14:00 한려수도 크루즈유람선 탑승  
(삼천포대교 ⇨ 코섬 ⇨ 신수도 ⇨ 상족암 ⇨ 삼천포화력발전소  
⇨ 코끼리바위 ⇨ 삼천포항)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일두 정여창 고택

##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함양 선비문화길

산성과 서원, 전통한옥, 정자, 누각 등이 산재해 있는 함양으로 떠나는 역사 기행. 지리산의 너른 품과 유교 및 선비문화를 체험하며 선조의 멋과 풍류를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거연정 ⇨ 군자정 ⇨ 동호정 ⇨ 경모정  
⇨ 농월정으로 이어진 선비문화길 답사
- 13:00 개평문화마을로 이동, 중식
- 14:00 개평문화마을 탐방,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 2월 부산지역 구제역발생으로 2월 테마여행이 취소되어 2월 코스가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사천**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3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엽서당첨자

강정숙(해운대구 좌동)  
김동범(연제구 연산9동)  
김인태(기장군 기장읍)  
유흥곤(동구 범일2동)  
이심순(남구 용당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박소순(서구 서대신동1가)  
박태숙(연제구 거제2동)  
조영자(해운대구 좌2동)  
최경재(남구 대연동)

### 신규가입자

김미선(영도구 신선동2가)  
김형민(남구 용호동)  
박현영(남구 용호3동)  
서희영(동구 범일2동)  
성지민(부산진구 전포동)  
이민호(동래구 온천2동)  
이수옥(남구 용호동)  
이희수(김해시 외동)  
정성원(동래구 온천2동)  
채 백(금정구 구서2동)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9 가을방학

2011. 4.15(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concert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 628-2592

## 연극 훈남들의 수다 20% 할인



2011.2.11(목) ~ 3.20(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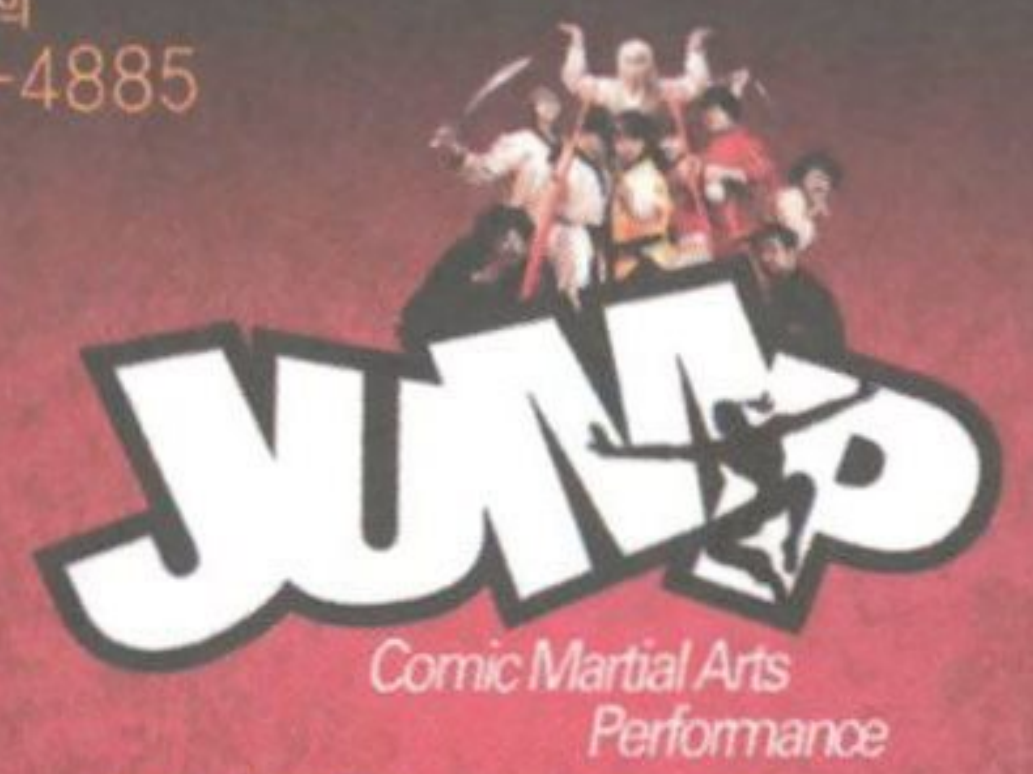
▶ 날짜 : 2011.1.1(토) ~ 2011.12.31(토)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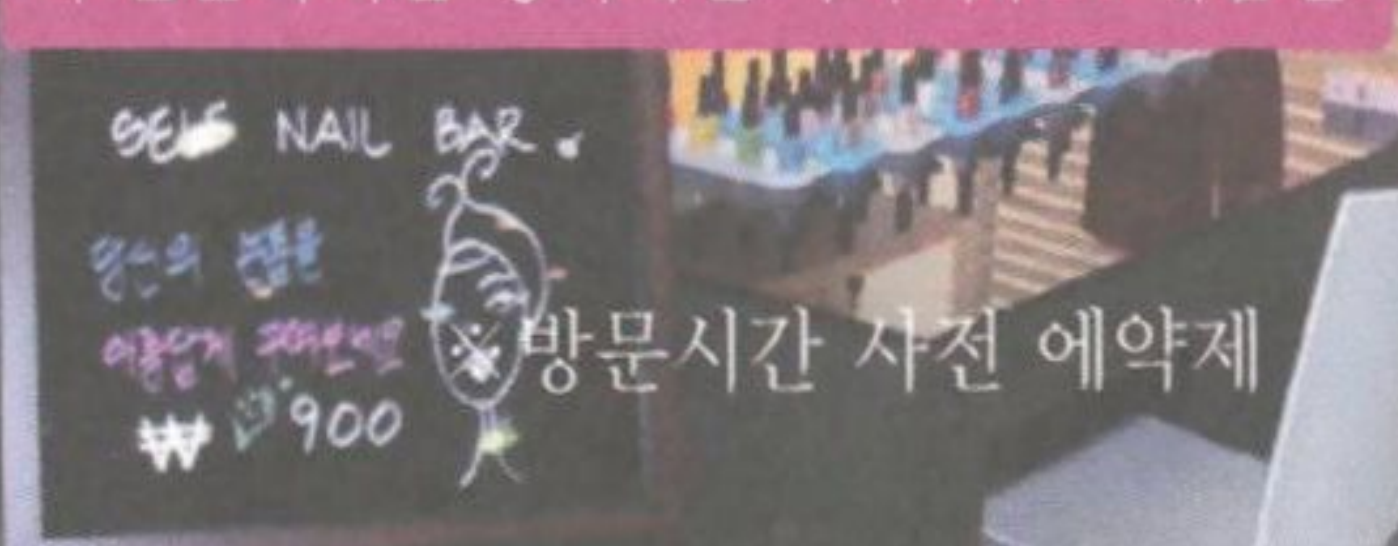
IBK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우문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우문,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로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인빌딩 051-626-6760

##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 부산문화회관

###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에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 이상 가입 10% 할인	

-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 탈 퇴 \_ 5일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 예약취소 \_ 공연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 혜 택 \_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조기에매 기획제공, 문화강좌 할인, 테마여행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 ■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

매달 2명 추첨 ➡ 점프전용극장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607-3100

Fax. 051)607-310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1 신춘음악회

# 봄의 가사라

PROGRAM

- |                         |   |
|-------------------------|---|
| 슈트라우스<br><i>Strauss</i> | 「집시남작」中 <i>Overture</i><br><i>Ja, das Schreiben und das Lesen</i>                         |
|                         | 「박쥐」中 <i>Mein Herr Marquis</i><br><i>Spiel ich die Unschuld vom Lande</i>                 |
| 모차르트<br><i>Mozart</i>   | 「피가로의 결혼」中 <i>Hai già vinta la causa</i><br>「티토 황제의 자비」中 <i>Se all' impero, amici Dei</i> |
| 로시니<br><i>Rossini</i>   | 「세비야의 이발사」中 <i>La calunnia è un venticello</i><br><i>Una voce poco fa</i>                 |
| 베르디<br><i>Verdi</i>     | 「라트라비아타」中 <i>Ah fors'è lui che l'anima</i>  |
| 코른골트<br><i>Korngold</i> | 「죽음의 도시」中 <i>Mein Sehnen, mein Wähnen</i>   |
| 레하르<br><i>Lehár</i>     | 「미소의 나라」中 <i>Dein ist mein ganzes Herz</i>  |
| 푸치니<br><i>Puccini</i>   | 「라보엠」 제2막 中 발채  |



지휘\_리 신차오



소프라노\_박정원



소프라노\_이운경



테너\_조윤환



바리톤\_강경원



바리톤\_박종준



바리톤\_조성빈



베이스\_함석현

2011.3.25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